



‘아시아나 매각’ 놓고 금호家 미묘한 기류 2



‘脫중국’ 속도 높이는 정의선 부회장 13

코스피 (26일 전주 대비) 2066.26 (-28.1P)
코스닥 644.58 (-29.48P)
환율 (달러당 원화) 1184.80 (+10.3원)
금리 (국고채 3년물) 1.308% (-0.019%p)

‘불명에 신기록’ 향해 가는 20대 국회

스페셜 리포트

20대 국회가 최악의 정쟁국회로 치달으면서 다양한 ‘불명에 신기록’에 도전하고 있다.

무엇보다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95일째 국회에 발의 묶여 있다. 계류 기간으로는 역대 2번째다. 역대 최장 기록은 2000년의 107일이다. 조유의 추경 처리 무산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 이 기록을 깰 가능성이 높다. 입법기관 본연의 역할은 잊은 채 정쟁에만 몰두하는 20대 국회는 이미 ‘역대 최악’이다.

▶관련기사 3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6일 기준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 비율은 30%다. 역대 최저다. 17대 53%, 18대 49%, 19대 47%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2만1696건의 법안 중 처리 법안(가결·부결·폐기 포함)은 6462건에 그쳤다. 미처리(계류) 법안은 1만5234건에 달한다. 이 중 70% 이상의 법안은 단 한 차례의 법안 소위원회 심사조차 거치지 못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법안이 발의됐지



여야 갈등에 민생은 뒷전...95일째 계류 중인 추경안 법안 논의 ‘식물’ 정쟁은 ‘동물’...패트정국 109명 고발

만, 논의 한 번 안 된 채 폐기될 운명에 처한 법안이 수도룩하다.

미처리 법안이 1000건을 상회하는 상임위는 모두 7개다. 행안위는 법안 접수 건수가 2353건이지만 처리 법안은 337건에 불과하다. 미처리 법안이 2016건에 이른다. 법사위는 미처리 법안이 1454건(접수 1687건)이며 환경노동위 1395건(접수

1892건), 보건복지위 1410건(접수 2308건), 국토교통위 1212건(접수 1950건), 기획재정부 1199건(접수 1788건), 정부위원회가 1133건(접수 1531건) 등이다.

내년 5월 29일 임기가 만료되는 20대 국회의 자동 폐기 법안 숫자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 확실시된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발의 법안은 2만5000건을 넘기

고 이 중 1만 건 이상이 자동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19대 국회의 임기 만료에 따른 자동 폐기 법안은 모두 9811건으로, 발의된 1만7822건의 55.1%에 달했다. 18대 국회에서는 1만3913건이 발의돼 6301건(45.29%)이 자동 폐기됐고, 17대 국회에서는 7489건이 발의돼 3155건이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는 ‘동물국회 부활’에 ‘난장판 국회’라는 오명도 떠안게 됐다.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고발당한 현역 의원은 무려 109명(민주당 40명, 한국당 59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에 달한다. 과거에도 이런 무더기 고발사태는 있었지만, ‘동물국회’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던 시절이다.

현재 윤리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의원 징계안은 모두 43건이다. 2016년 10건, 2017년 9건, 지난해 3건에서 올해 5월 말까지 21건으로 크게 늘었다. 그만큼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인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는 의미다. 실제 징계로 이어진 사례가 없다는 것도 진기록이다.

김하늬 기자 honey@



美 금리 10년 만에 내릴까

30~31일 FOMC 인하 전망 우세 글로벌 금융완화 경쟁 신호탄 될 듯

30~31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롬 파월(사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0일 의회 증언에서 “금융 완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이번 FOMC에서 연준이 10년 만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연준이 이번에 완화로 금융정책을 선회하면 일본은행(BOJ)과 유럽중앙은행(ECB) 등 다른 선진국들을 비롯해 신흥국들까지 세계적 금융완화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6일 기준 연방기금(FF) 금리 선물시장에 반영된 금리인하(0.25%포인트) 확률은 80%가 넘는 다. 연준이 실제로 금리를 인하한다면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8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금융완화 정책은 3차 양적완화(2012년 9월~2014년 10월)가 마지막이었다. 연준은 재닛 옐런 전 의장 시절인 2015년 말 금리인상을 재개했으며, 파월 시대에 들어서는 기준금리를 현 2.25~2.50%까지 인상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금융완화로 돌아서면 BOJ와 ECB도 따라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ECB는 25일 통화정책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고, 연준의 결정을 지켜본 후 금융완화 여부를 최종 결정할 뜻을 나타냈다. BOJ는 연준의 금리인하로 인한 달러 약세를 경계하지만 일단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연준의 조기 금리인하에 대해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미국 경기 확장세가 이달로 12개월째에 접어들며 사상 최장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금리를 굳이 낮춰야 하느냐는 것이다.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 연준이 굴복했다는 비판을 자초할 수도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日경제보복 한 달 시총 55兆 증발

〈코스피 42조·코스닥 13조〉

투심 악화...증시하락 지속될 듯

코스피 상장종목 시가총액이 최근 한 달간 42조 원가량 증발했다. 코스닥은 13조 원 줄었다.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증시가 크게 조정받은 영향이다.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코스피 시총은 지난달 말 기준 1420조 원에서 이달 26일에는 42조 원 감소한 1378조 원을 기록했다.

▶관련기사 4·5·6·16면

외국인 투자자가 해당 기간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를 주도했지만 기관과 개인의 매도 공세가 강했다. 결국 코스피지수는 2130.62에서 3.02% 내린 2066.26으로 집계됐다.

코스닥 시가총액은 같은 기간 236조 원에서 223조 원으로 13조 원가량 줄었다. 해당 기간 지수는 690.53에서 644.59로 6.65% 하락했다. 상대적으로 대폭 조정된 코스닥지수는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 영향을 받았다. 이 기간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4821억 원, 2933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증시 하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뚜렷한 매수 주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8월 2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반도체 소재뿐만 아니라 방산, 원자력, 공작기계, 2차전지, 수소차 관련 부품에 대한 수출 심사가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고종민 기자 kjm@



장마 끝...인산인해 해운대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든 28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수많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日 이어 美까지...옆친데 덮친 韓 통상 ‘이중고’

트럼프, 中 겨냥 WTO 개도국 우대 제외 압박...한국 농산물 관세 감축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발도상국 우대’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미·중 고위급 무역 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새로운 카드이나, 일본의 수출 규제로 통상 압박이 고조되는 한국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서명한 대통령 메모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WTO의 개발도상국 우대체계를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이 WTO 규정을 피하고 특별 대우를 받고자 스스로를 개도국이라고 주장하면서 WTO가 망가졌다”며 USTR에 시정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메모에 따르면 USTR는 향후 90일 안에 WTO에 개도국 우대체계를 시정하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이 기간 내 진전이 없으면 미국은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한편 해당

국가들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유지 지지 방침을 철회한다.

트럼프는 WTO 개도국 우대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국가로 중국을 집중적으로 거론했으나 그 밖에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 10위권 안에 있는 브루나이와 홍콩, 쿠웨이트, 마카오, 카타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도 언급했다. 또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 자 OECD 회원국인 한국과 멕시코, 터키도 WTO 개도국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WSJ는 30~31일 중국 상하이에서의 고

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트럼프가 더 많은 미국산 농산물 구입과 시장 개방 확대를 중국 측에 압박하고자 WTO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분석했다.

WTO 규정을 변경하려면 164개 회원국 전체 동의가 필요해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중국은 물론 한국 등 그동안 개도국 우대 혜택을 받아왔던 국가들은 당혹스럽게 됐다. WTO 체제에서 개도국 결정은 ‘자기 선언’ 방식이며,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협약 이행에 더 많은 시간이 허용되고 농업보조금 규제도 느슨하게 적용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이 개도국에서 제외된다면 특히 농수산물 부문에서 강한 관세 감축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아시아나 매각’ 놓고 금호家 형제 ‘미묘한 기류’

박세창 아시아나IDT 사장
 “특수관계자 매각 참여 안돼”
 ‘아버지’ 박삼구 의중 담긴 듯
 박찬구 회장측 ‘불편한 심기’
 “인수 고려 않지만 자격 있어”
 SK, 공식 부인해도 인수 관심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 입찰에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할 수 없다.”(박세창 아시아나IDT 사장·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아들)
 “인수 참여를 고려하지 않지만 인수 자격은 있다.”(금호석유화학 관계자)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을 코앞에 두고 금호산업과 금호석화에 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박 사장이 25일 기자들과 만나 특수관계자의 매각 참여 불가 입장을 밝히며 “금호

석유화학도 입찰에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할 수 없다”고 언급한 것이 잔잔하지만 의미 있는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는 “과거 계열 분리 당시 약속한 것도 있고, 시장에서 억측(지분 파킹거래)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채권단과 합의해 매각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고도 부연했다.

박 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그의 아버지 박삼구 전 회장의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박삼구 전 회장이 동생(박찬구 금호석화 회장)과 사업상 이견으로 완전히 등을 돌린 상황에서 금호석화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그러자 금호석화 측이 ‘생똥맛다’는 반응을 보였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인수전 참여를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인수전 참여를 제한할 근거도 전혀 없다”며 “과거 현대건설과 현대증권 사례 등 특수관계인의 인수 합병(M&A) 사례는 많다”고 말했다. 또 계열 분리 당시 약속하거나 합의된 사항도



박삼구(왼쪽)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른바 ‘파킹거래’로 진성 매각 시비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도 상표권 등을 놓고 소송 중으로 남보다도 못한 사이”라며 박삼구 전 회장 측을 위해서 파킹거래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형제간의 앙금이 영똥하게 파편은 SK 그룹으로 튀었다.

박찬구 회장이 공동대표이사를 맡은 금호미쓰이화학은 금호석화그룹과 SK그룹 등 두 대규모 기업집단에 공동으로 소속된다.

2015년 미쓰이화학이 SKC의 폴리우레탄 사업부와 합쳐 ‘미쓰이케미칼 & SKC 폴리우레탄’ (MCNS)을 설립하면서 금호미쓰이화학은 SK그룹에도 편입됐다. MCNS의 지분율은 미쓰이화학과 SKC가

각각 50%다.

박 사장의 논리라면 SK그룹도 금호석화와의 특수관계로 인해 아시아나항공 입찰 참여가 불가능한 셈이다. SK그룹은 수차례에 걸친 공식 부인에도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보로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관심이 없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따라서 금호미쓰이화학이 SK그룹 계열사라는 이유로 인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금호석화의 아시아나인수를 결코 허용할 수 없는 박삼구 전 회장의 입장에서 SK그룹과의 전략적 제휴 가능성도 마음에 걸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25일 개시된 아시아나항공 매각은 9월 예비입찰 등을 거쳐 연내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매각 가격은 1조~2조5000억 원가량으로 전망된다.

김유진 기자 eugene@

애 보는 아빠 늘었다... 올 상반기 男 육아휴직 1만1080명

아이를 키우기 위해 휴직하는 ‘애 보는 아빠’가 1년 새 31%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올해 상반기 민간 부문 남성 육아휴직자가 1만108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9% 증가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 중 20.7%는 남성이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연간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2013년 2293명에서 2015년 4872명으로 증가했고, 2017년 1만2042명, 2018년 1만7662명 등 급증 추세다.

고용부는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

는 분위기가 널리 퍼지고, 육아휴직 기간의 소득 대체율을 지속적으로 높인 것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업규모별로는 ‘10인 이상~30인 미만 기업’과 ‘10인 미만 기업’에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0.3%, 51.2% 증가했다. 그러나 남성 육아휴직자의 절반 이상(56.7%)은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고 있어 여전히 대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 활용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민간 부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2759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1986명보

다 38.9% 증가했다. 전체 이용자 중 11.8%는 남성(326명)이었다.
 이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에서 일할 수 있는 제도다.



기업규모별로는 전체 이용자 중 3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비율이 76.4%였다.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에서 활발하게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 남녀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5만3494명으로 전년 상반기(5만87명)보다 6.8% 늘었다.

정부는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 동안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월 상한액 120만 원, 하한액 70만 원)로 인상했다.

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도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높였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제도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나은 농어촌

KF 한국농어촌공사

생명산업의 뿌리, 농어촌용수

물길이 생명길입니다

국토의 생명물길, 농어촌용수
건강한 물순환을 변함없이 지켜가겠습니다

국토의 물길을 관리하는 것은 인체의 혈관처럼 생명을 주관하는 가치있는 일입니다.
미래세대에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농어촌을 물려주는 일, 한국농어촌공사가 함께 합니다.

반년간 본회의의 달랑 3번... 밥값 안 해도 '연봉 1.5억'

20대 국회는 '월급루팡'?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격언에서 자유로운 곳이 있다. 올 들어 입법활동이 전무하다시피 한데도 세계 최고 수준의 월급을 꼬박꼬박 받고 있는 20대 국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통상 '세비'로 부르는 국회의원 급여의 정식 명칭은 수당이다. 국회의원의 수당은 매달 일반수당 675만1300원, 관리업무수당 60만7610원, 정액급식비 13만 원, 정근수당 56만2608원(월평균), 명절휴가비 67만5130원(월평균) 등 총 872만6648만 원이다. 여기에 입법활동 지원 명목으로 월 313만6000 원의 입법활동비가 책정된다. 회기 중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면 받는 특별활동비도 월 78만4000원씩 지급된다.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일반 의원 기준으로 1264만6648원가량의 월급을 받는 셈이다.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도 신청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보수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5176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국민 1인당 실질소득(3493만 원)의 4.34배, 올해 1분기 전국 평균 가구소득(가구원 3.05명, 월 482만원)의 2.62배에 해당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17년 조사에서 평균소득이 가장 많은 직업으로 국회의원을 꼽았다. 당시 국회의원 연봉은 1억4000만 원으



국회의원 급여 내역 (단위: 원, 국회사무처 '2019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

수당	월간		연간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일반수당	675만1300	60만7610	13만	56만2608
관리업무수당	60만7610			67만5130
정액급식비	13만			313만6000
정근수당	56만2608			675만1300
명절휴가비	67만5130			810만1560
입법활동비	313만6000			3763만2000
특별활동비	78만4000			940만8000
월 평균	1264만6648원		1년 총액: 1억5175만9780원	

※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일반 국회의원 기준이며,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한해 별도 지급



수당·입법활동비 등 구성된 세비 국민 1인당 실질소득의 '4.3배'

구매력평가지수 환율 적용하면 韓의원 급여, 美 다음으로 많아

'무노동 무임금' '최저임금 줘라' 들끓는 여론... 자진반납 의원도

로 지금보다 낮았지만 성형외과 의사(1억 2000만 원), 기업 고위 임원(8500만 원), 대학 총장·학장(8000 만원)을 제쳤다.

우리 국회의원 보수는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요국 국회의원 보수를 비교한 결과 구매력평가지수(PPP) 환율을 적용한 한국 의원들의 연봉은 16만3360달러로 미국(17만4000달러) 다음에 위치했다. 일

본은 15만4707달러, 독일 14만6288달러, 영국 11만1400달러, 프랑스 10만6691달러 등이다. 특히 1인당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회의원 급여는 한국(4.16배)이 다른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올 상반기 6개월간 국회 본회의는 불과 세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지만 의원들은 매달 20일 빠짐없이 월급을 받았다. 심지어 수감 상태인 자유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전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할 때까지 예외는 아

니었다. 프랑스, 폴란드, 스웨덴 등 유럽 국가에서 불출석 일수만큼 수당을 삭감하는 것과 비교하면 커다란 특혜다.

국회 공전으로 민생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자 '일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월급을 주지 말자'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여론조사기간 리얼미터가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회의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80.8%에 달했다.

일부 의원은 반성의 의미로 세비를 반납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장으로 7월 국회도 입법실적이 전무하게 된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수당으로 받은 1000만 원을 기부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동참을 독려했다. 민 의원은 "국민들께 무릎 꿇고 사과할 일은 사과해야 한다"며 "정치인 중에 부끄러워할 줄 아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정치인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손놓은 법안처리 '115일째 0진' "일하는 국회법, 강제성 띠어야"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의무화한 '일하는 국회법'이 17일 시행에 들어갔지만 강제성이 없는 훈시 규정이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하는 국회법'은 각 상임위원회에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2개 이상 둘 수 있게 하고, 법안소위를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한 것이 골자다. 말 그대로 법안소위를 의무화해 일하는 국회를 만든다는 취지다. 상임위에 설치된 법안 심사 소위원회가 2곳이라면 매달 각각 2번 이상 회의를 열어야 한다.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52명 가운데 237명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다. 전체 국회의원의 80%에 달하는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찬성한 셈이다.

하지만 이 법안이 앞으로 제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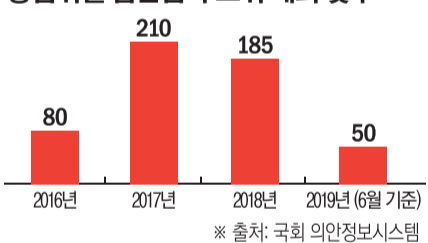
20대 국회는 이미 역대 최악의 '일 안 하는 국회'로 기록될 만하다. 특히 4월 5일 이후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법안 처리 0 기간'이 115일째다. 이는 20대 국회 들어 두 번째로 긴 기간이다. 20대 국회 출범 직후 185일 동안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1~7월 열린 본회의 수를 살펴보면 올해는 18회로 2017년(22회)과 2018년(19회)에 비해 적었다. 여야 정쟁이 격화한 탓이다. 6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반쪽 국회'였다. 여야는 고성과 막말을 주고받다 끝났다. 민생법안도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

20대 국회는 올해 들어 '식물 국회'라는 지적을 유난히 많이 받고 있다. 국회법은 '2·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20대 국회는 2016년 5월 30일 임기 시작한 이래 2·4·6·8월 임시회를 모두 개의한 적이 단 한 해도 없었다.

'일하는 국회법' 주요 내용

법안소위	복수 설치·매월 2회 이상 실시(훈시 규정)
비법안 소위	위원장 및 교섭단체 간사 합의

상임위별 법안심사 소위 개최 횟수



전체 상임위 법안 심사 관련 소위원회는 25곳이다. 현재 일하는 국회법을 지킨 상임위별 법안 심사 소위는 8곳에 불과하다. 3분의 1만이 법을 지킨 셈이다.

이에 따라 일하는 국회법 규정이 강제성이 없는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법안소위 정례화나 복수화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페널티'가 전혀 없다는 게 한계로 지적된다. 그만큼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여야 간 입장차로 합의가 불발돼도 이를 처벌할 제재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일하는 국회법을 보완할 강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미 발의된 법안이 쌓여 있고 언제 처리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법안 발의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며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고 일하지 않는 의원에게 강력하게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와 포르투갈, 인도, 터키, 호주 등은 법이 허용한 특별한 이유 없이 일정 횟수 이상 본회의에 불참하면 의원직을 박탈하기도 한다"며 "우리나라도 국회 장기 파행을 막기 위해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 새롭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현정 기자 jhj@

ENERGY를 CHANGE하라

자연을 에너지로
건강한 환경을 생각합니다.
안전한 에너지로
인류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환경과 인류를 지키는
ENERGY CHANGE!
한국남동발전이
에너지 전환을 선도합니다.

Clean & Smart Energy Leader!
KOEN 한국남동발전

〈탐라해상풍력 전경〉

韓산업, 섬유·의류 빼면 日보다 '한 수 아래'

현대경제연구 '한·일 주요 산업 경쟁력 비교'

화학·기계산업 절대 열위... 반도체, 메모리 부문만 앞서
자동차 격차 더 확대됐지만, 부품은 빠르게 경쟁력 개선
의존도 90% 넘는 품목 48개... 민·관 다각적 노력 절실

우리나라 주력 산업 대부분이 일본과의 경쟁력 비교에서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일 주요 산업의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섬유류 및 생활용품 산업 등 경공업에 제외하고 대부분 중화학공업에서 일본에 대해 경쟁력 열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화학산업과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 산업은 대(對) 일본 경쟁력이 '절대적 열위'에 머물렀다. 화학산업의 하위산업인 석유화학, 정밀화학 산업은 상당 기간 절대 열위에 있으나 최근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계산업도 추세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나 여전히 절대열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위 산업 중 기초산업기계산업은 대일본 경쟁력이 추세적으로 개선되는 중이나 여전히 절대열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산업기계산업은 절대열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나 개선 속도는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다. 그러나 정밀기계산업은 상당 기간 절대열위에 있으며 개선될 조짐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자동차산업은 경쟁력이 상당 기간 절대 열위에 있으며 격차도 확대됐다. 단, 자동차부품산업은 경쟁력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그 격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선박·해양구조물산업은 경쟁력이 상당 기간 절대열위에 있었으나 최근 개선되고 있다.

전기·전자산업은 최근 경쟁력이 급락하는 모습이나, 세부 업종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무선통신기기산업은 2010년 이후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상당 기간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가전산업은 최근 들어 경쟁력이 열위에서 우위로 전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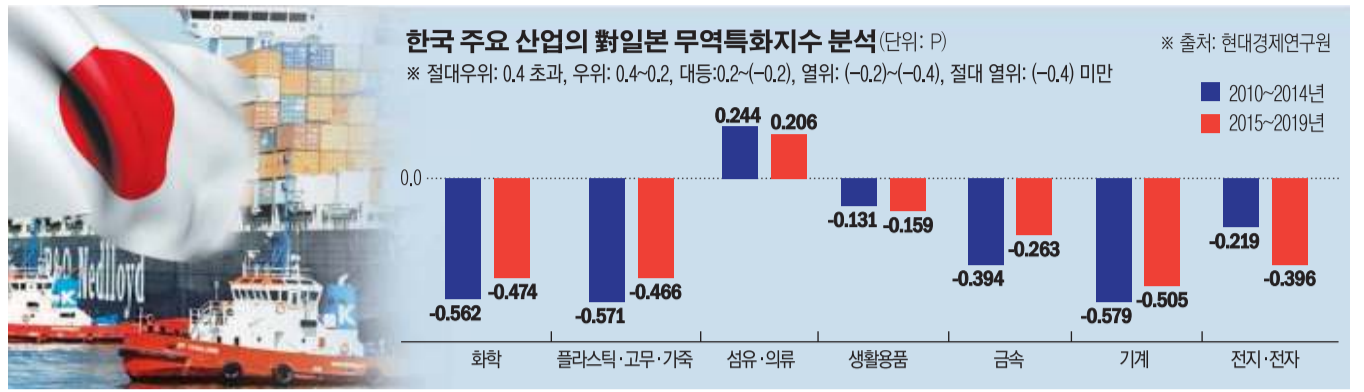
반도체산업 전체로는 최근 경쟁력이 급속하게 악화하면서 절대열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메모리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일본에 대해 절대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평판디스플레이산업은 최근 들어 경쟁력이 급속하게 악화되면서 절대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의류산업은 유일하게 일본에 대해 산업경쟁력 우위를 보였다. 그러나 보고서는 한일 간 경쟁력 격차가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생활용품산업은 경쟁력이 일본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은 48개이며 일본에 대해 열위인 산업이 많아 수출규제로 인해 성장에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됐다. 유엔 국제무역 통계 HS코드 6단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일본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들의 총 수입액은 27억8000만 달러였다. HS코드 6단위 기준에 따르면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 수는 총 4227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과거 한중 간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나 최근 한일 간의 수출규제 문제에서 볼 때, 산업경쟁력이 견고한 우위를 가지지 못하면 국내 산업계가 위기에 빠지고 경제 성장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면서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민·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소재부품 對日 의존도 꾸준히 줄었다

경상학회 "기술력 제고 힘입어 무역 적자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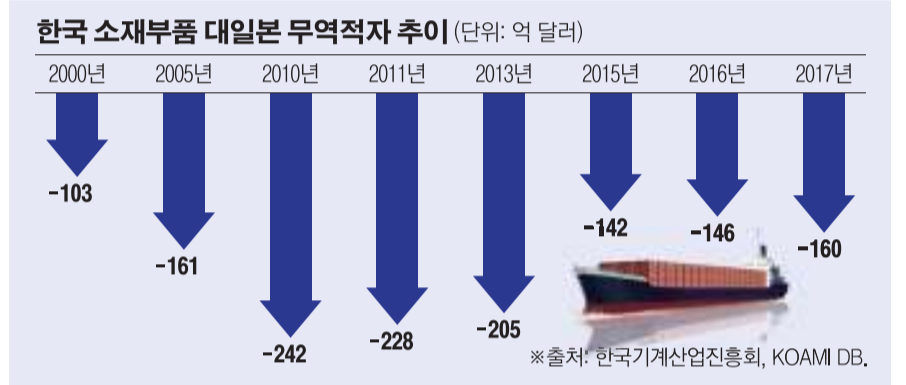
한국 소재부품 산업의 대(對)일본 의존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전히 한국의 대일 의존도가 높아 기술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8일 한일경상학회에 따르면 이흥배 동대 무역·유통학부 교수는 '한국 소재부품의 대일본 무역적자 축소 원인 고찰' 논문을 통해 한국 소재부품 산업은 만성적으로 일본에 높은 의존도를 보여왔으나 한국의 기술력 제고 노력 등에 힘입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소재부품의 무역적자는 2000년 93억 달러에서 2005년 227억 달러, 2010년 779억 달러, 2015년 1050억 달러, 2017년 1137억 달러 등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한국 소재부품 산업은 일본과의 무역에서는 단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다. 2017년 한국 소재부품의 대일 무역적자는 160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대일 무역적자에서 소재부품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56.5%였다.

다행히 무역적자가 점차 줄고 있다. 한국 소재부품의 대일 무역적자는 2000년 103억 달러에서 2010년 242억 달러로 늘었으나 이후 점차 개선돼 2017년 160억 달러까지 줄었다. 2000~2017년 전체 대일 무역적자에서 소재부품이 차지하는 비



중도 91.2%에서 56.5%로 낮아졌다.

이 교수는 "과거와 달리 양국 간 무역 관계가 일방적인 의존구조에서 탈피해 쌍방향적 의존구조로 전환됐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두 나라 산업 간 수입 의존도를 보여주는 지표인 국제기술분업도(ITS) 지수를 보면 한국의 대일본 국제기술분업도 지수는 2000년 0.0238에서 2015년 0.0171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반대로 일본은 0.0017에서 0.0045로 2.6배 늘었다. 이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의존도가 높고, 0에 가까울수록 의존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수치상으로 보면 한국의 대일 의존도가 일본보다 4배 가까이 높지만, 추세적으로

는 한국은 대일 의존도는 줄고 일본의 대 한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원천기술에 의한 생산기술 요인과 중간재 투입 요인이 감소했다. 한·일 간 보유한 원천기술의 격차와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중간재 수입이 줄었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실질적으로 한일 간 생산기술 수준 차이가 2000년 이후 큰 폭으로 개선되는 모습"이라며 "그러나 여전히 한일 간 의존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당분간 대일 적자 구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적 노력과 전략적 기술개발, 시장개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2019년 산업기술 R&D 8월 교육 안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에서는 산업기술 R&D사업 수행자들의 효율적 사업수행 및 연구성과 향상 도모를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리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교육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교육개요

동 교육은 산업부 산업기술 R&D 과제수행기관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이며,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필요하신 분들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목적 : 산업기술 R&D수행자의 R&D이해도 및 역량강화를 통한 연구성과 제고

2. [수료증 발급] 교육과정(오프라인) : 실무과정, 전문과정 / 연구지원전문가 과정

실무과정 / 1일 6시간 / 100% 수강시 수료증 발급 /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산정 가능

- 과정소개 : 산업기술R&D 사업 수행 과정에 대한 학습이 가능한 과정
- 과목안내 : 4개 과목

• 산업기술 R&D 과제수행	• 성과관리 및 활용
• RCMS 이해와 활용	• 사업비 집행·정산·관리

전문과정 / 1일 4~5시간 / 100% 수강시 수료증 발급 /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산정 가능

- 과정소개 : 산업기술R&D 사업 수행과 관련한 사례 및 실습 중심의 과정
- 세부과정 안내 : 2개 세부과정
- ▶ 사업계획서 작성 및 프레젠테이션 (1일 5시간)
- ▶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불인정 사례 등 (1일 4시간)

3. [수료증 미발급] 산업기술 R&D 동영상의

산업기술 R&D 동영상의 - 로그인 및 교육신청 없이 학습 가능

- ▶ 산업기술 R&D 전주기에 대해 온라인KEIT 교육홈페이지 및 유튜브로 자유롭게 학습 가능
- ▶ 동영상의 내용 안내
 - ▶ 산업기술 R&D정책 및 소개, 과제기획 및 사업계획서, 과제관리, RCMS 이해, 사업비 집행관리, 기술로 제, 연구윤리, 기술보호 등
- ▶ 이용채널 : KEIT 교육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 ☞ 교육홈페이지 : itech.keit.re.kr / 고객(교육)센터 / R&D교육센터
 - ☞ 유튜브(YouTub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검색 / 산업기술 R&D 동영상상의

교육안내

원활한 교육신청 및 참여를 위해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일정 : 아래 표 참조(교육장소별 주소(약도)는 홈페이지 참조)

교육과정	교육일정	정원	지역	교육장소
실무과정 (10:00~17:00)	08.20.(화)	30	대구	KEIT 대구본원 2층 교육장
	08.23.(금)	30	대전	KEIT 대전본원 4층 교육장
전문과정(사업비 관리) (14:00~18:00)	08.09.(금)	30	서울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3층 301호

- * (대구) KEIT 본원 : 대구광역시 동구 침당로 8길 3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층 교육장
- * (대전) KEIT 본원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48 계룡사옥 4층 교육장(탄방역 1번 출구 앞)
- * (서울)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405 1관 3층(선릉역 2번 출구에서 도보 약 8분)
- * 주차비가 지원되지 않으니, 대중교통 이용 부탁드립니다. (대구 본원은 무료주차장)

2. 교육신청 : 2019년 8월 1일(목), 오전 10시 부터 교육과정별 모집인원 내 접수

번호	회원가입	교육신청 및 대기신청	교육 및 대기 취소신청	수료증 발급	
①	회원가입	원활한 교육안내를 위해 개인정보(휴대폰, 소속정보)는 반드시 입력 ☞ 교육홈페이지 : itech.keit.re.kr / 고객(교육)센터 / R&D교육센터	[교육신청] 로그인 후 교육신청(대리 신청 및 대리 수강 불가) [대기신청] 신청기간 내 정원 마감시 대기신청 * 대기신청이 완료되어도 '교육신청 원문자료'를 수신하셔야 교육참여가 가능하며, 대기신청한 교육과정 종료시 대기신청 효력이 상실됩니다. * 월별 동일교육과정에 대한 동시 교육신청 및 대기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신청확인] 교육신청 내역 및 대기순번은 '나의강의실'에서 확인 가능	교육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교육(대기)신청 취소 필수 * 교육개강 2일전(주말제외)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교육신청 및 대기신청 취소는 '나의강의실'에서 가능 * 사전연락 없이 무단으로 불참하는 경우, 1년 간 교육참여가 제한	교육수료증은 교육종료 2일 후 '나의강의실'에서 직접 발급 가능
②	회원가입	원활한 교육안내를 위해 개인정보(휴대폰, 소속정보)는 반드시 입력 ☞ 교육홈페이지 : itech.keit.re.kr / 고객(교육)센터 / R&D교육센터	[교육신청] 로그인 후 교육신청(대리 신청 및 대리 수강 불가) [대기신청] 신청기간 내 정원 마감시 대기신청 * 대기신청이 완료되어도 '교육신청 원문자료'를 수신하셔야 교육참여가 가능하며, 대기신청한 교육과정 종료시 대기신청 효력이 상실됩니다. * 월별 동일교육과정에 대한 동시 교육신청 및 대기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신청확인] 교육신청 내역 및 대기순번은 '나의강의실'에서 확인 가능	교육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교육(대기)신청 취소 필수 * 교육개강 2일전(주말제외)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교육신청 및 대기신청 취소는 '나의강의실'에서 가능 * 사전연락 없이 무단으로 불참하는 경우, 1년 간 교육참여가 제한	교육수료증은 교육종료 2일 후 '나의강의실'에서 직접 발급 가능
③	회원가입	원활한 교육안내를 위해 개인정보(휴대폰, 소속정보)는 반드시 입력 ☞ 교육홈페이지 : itech.keit.re.kr / 고객(교육)센터 / R&D교육센터	[교육신청] 로그인 후 교육신청(대리 신청 및 대리 수강 불가) [대기신청] 신청기간 내 정원 마감시 대기신청 * 대기신청이 완료되어도 '교육신청 원문자료'를 수신하셔야 교육참여가 가능하며, 대기신청한 교육과정 종료시 대기신청 효력이 상실됩니다. * 월별 동일교육과정에 대한 동시 교육신청 및 대기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신청확인] 교육신청 내역 및 대기순번은 '나의강의실'에서 확인 가능	교육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교육(대기)신청 취소 필수 * 교육개강 2일전(주말제외)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교육신청 및 대기신청 취소는 '나의강의실'에서 가능 * 사전연락 없이 무단으로 불참하는 경우, 1년 간 교육참여가 제한	교육수료증은 교육종료 2일 후 '나의강의실'에서 직접 발급 가능
④	회원가입	원활한 교육안내를 위해 개인정보(휴대폰, 소속정보)는 반드시 입력 ☞ 교육홈페이지 : itech.keit.re.kr / 고객(교육)센터 / R&D교육센터	[교육신청] 로그인 후 교육신청(대리 신청 및 대리 수강 불가) [대기신청] 신청기간 내 정원 마감시 대기신청 * 대기신청이 완료되어도 '교육신청 원문자료'를 수신하셔야 교육참여가 가능하며, 대기신청한 교육과정 종료시 대기신청 효력이 상실됩니다. * 월별 동일교육과정에 대한 동시 교육신청 및 대기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신청확인] 교육신청 내역 및 대기순번은 '나의강의실'에서 확인 가능	교육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교육(대기)신청 취소 필수 * 교육개강 2일전(주말제외)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교육신청 및 대기신청 취소는 '나의강의실'에서 가능 * 사전연락 없이 무단으로 불참하는 경우, 1년 간 교육참여가 제한	교육수료증은 교육종료 2일 후 '나의강의실'에서 직접 발급 가능

3. 교육비용 : 무료(교재 제공)

4. 주의사항

- ▶ 기본과정(온라인)은 로그인 및 교육신청이 필요 없는 개방형 온라인 학습서비스로 전환되어 이용이 불가능(학습, (재)시험 등)하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재학이 필요하거나 업무 등으로 인해 교육참여가 어려운 경우, R&D에 대한 단순 학습을 희망하시는 경우, '산업기술 R&D 동영상상의'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산정 혹은 수료증이 필요한 경우, 실무 또는 전문과정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 2019년 1월 이후 취득한 실무 또는 전문과정 수료증도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산정 증명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 * 문의 : (R&D콜센터) 1544-6633

文대통령, 휴가 취소 현안 해법 마련 부심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촉각 문 대통령 즉각 대응 준비

문재인 대통령이 29일부터 8월 2일까지 닷새로 예정했던 여름 휴가를 취소했다. 문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포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승화 춘추관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을 보낸 “문 대통령은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예정된 하계휴가를 취소하고 집무실에서 정상 근무한다”고 공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휴가 취소와 관계 없이 참모진들의 휴가는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9일 정례 수석·보좌관 회의는 열리지 않는다고 유 관장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까지 휴가 진행 여부를 고민하다가 이날 오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취소한 것은 최근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과의 갈등과 북한의 신행 전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산적한 외교 현안에 직접 대응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여름 휴가를 떠났다 30일 복귀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다음 달 초 각의를 열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이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 차원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폐막을 하루 앞둔 27일 새벽 광주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18명의 사상자(2명 사망)를 낸 것도 문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다. 휴가철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자체도 큰 사안이지만 부상자 중에는 이번 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 8명이 포함돼 있어 국제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서다.

문 대통령은 작년과 재작년에는 모두 5일의 여름휴가를 다녀왔다. 작년에는 충남 계룡대 등에서 지내면서 대전의 명소인 장태산 휴양림 산책 및 인근 군 주요시설 시찰했고, 재작년에는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차 평창에서 하루 묵은 뒤 경남 진해를 방문해 잠수함사령부를 방문하고 해군사관생도들을 격려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北 목선 또 NLL 넘어... 軍 이번엔 즉각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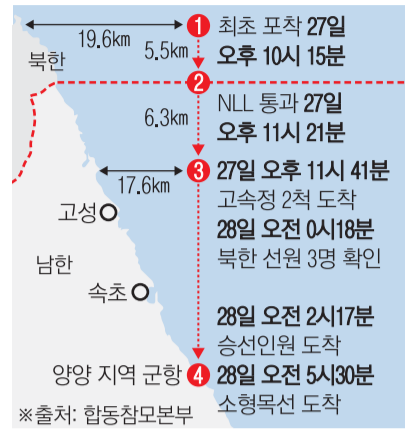
합참, 선원 3명 정밀 조사 “항로 착오로 넘어와”

27일 밤 북한 소형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었다. 우리 군은 즉각 이 목선을 군항에 예인해 선원 3명을 상대로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항로착오’로 NLL을 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군 당국은 이 선박이 북한군 부업선으로 추정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28일 “어제 오후 11시 21분께 북한 소형목선이 동해 NLL을 월선함에 따라 우리 함정이 즉각 출동했다”며 “승선 인원은 오늘 오전 2시 17분께, 소형목선은 오전 5시 30분께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이송 및 예인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5분께 동해 NLL 북방 5.5km 해상(연안 기준 20km)에서 최초 포착된 이 선박은 24분 뒤 2~5노트 속도로 남쪽으로 이

북한 소형목선 동해 NLL월선 상황



동해 오후 11시 21분께 NLL을 넘었다.

군은 즉각 고속정과 특전사 고속단장 등을 현장에 급파했고, 인근에 있던 초계함도 우발적 상황에 대비해 차단 작전에 돌입했다. 오전 0시 18분께 특전사 요원이 NLL 남방 6.3km 지점에서 이 미상 선박을 계류시킨 뒤 승선해 북한 선원 3명이 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엔진이 탑재된 이 목선의 크기는 10m로, 갑판에는 다수의 어구가, 어창에는

오징어 등이 적재돼 있었다.

합참 관계자는 “선원들은 (월선 배경에 대해) ‘방향을 잃었다’, ‘항로 착오’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선박 예인조치에 대해 “북한 소형목선에는 군 부업선으로 추정되는 고유 일련번호로 된 선명이 표기돼 있었다”며 “인원 3명 중 1명이 군복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인원이 군인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군의 경계 작전 당시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동해에서 NLL을 넘어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돼 퇴거 조치된 북한 어선은 5월 말부터 7월 14일까지 380여 척에 달한다. 작년 같은 기간 40여 척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이는 올해 동해 NLL 일대에 오징어 어장이 형성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최근 동해 NLL 인근에서는 북한의 오징어 조업 어선이 식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하늬 기자 honey@



한국당, 안보특위·안보위원회 열어 황교안(오른쪽 두 번째) 자유한국당 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유철(오른쪽) 의원과 얘기하고 있다. 왼쪽은 나경원 원내대표. 연합뉴스

한국당, 경찰 3차 소환도 불응... 체포동의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사태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경찰의 거듭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이 강제력을 동원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주 30명이 넘는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은 경찰 출석률 ‘100%’다. 경찰 조사를 받은 의원은 민주당 백혜련·송기헌·윤준호·표창원·홍영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6명이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의 출석률은 ‘0%’다. 특히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한국당 이상수·엄용수·여상규·정

갑윤 의원은 이미 2차례 경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이들 의원은 이번 주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차원에서 경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이 강제 수단을 동원할지 주목된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사법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통상 피고발인이 3회가량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수사를 검토한다.

유충현 기자 lamuziq@

與, 정당 첫 ‘정책대회’ 연다... 경제·사회 토론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올가을 정당 역사 최초로 ‘정책대회’를 개최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은 9월 말 국회에서 당원과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정책축제’를 열기로 하고 준비위원회를 꾸렸다. 박광은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에는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김두관 참

좋은지방정부위원장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한다. 준비위는 ‘상향식’과 ‘하향식’의 두 가지 방식으로 정책대회를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상향식’은 전국 지역위원회에서 선정한 정책 의제를 시도당 차원에서 추진 뒤 중앙당으로 올려 정책대회에서 집중적으로 소개·토론하는 방식이다.

김하늬 기자 honey@

오늘의 체지방 관리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100% 유기농 녹차를 직접 재배합니다

녹차카테킨은 주원료인 녹차의 질이 제일 중요하니까, 국내산 녹차를 직접 재배합니다 독자적인 AP 녹차연구기술의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현대인의 문제적 식습관으로부터 체지방 감소와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루 세 정 건강한 습관입니다

특허받은 녹차카테킨으로 한국인 건강맞춤

- 고열량식이 섭취로부터 체지방 관리**
메타그린 녹차 카테킨이 고열량, 고탄수화물 식단이 잦은 한국인의 체지방 관리를 도와 대사 건강을 케어합니다
- 대사 건강을 위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메타그린의 녹차추출물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약처 인정 기능성 원료로 믿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세포 대사를 유지하는 항산화 작용**
녹차추출물과 비타민C를 함유,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생성되는 유해산소로부터 대사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튜브에서 바이탈뷰티를 검색하세요

100% 유기농
국산 녹차
오실록 농장 직접 재배 관리



제품상담 구매문의 | 080-023-5454 |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ll.com

바이탈뷰티

“日 규제는 잘못, 국제적 공감대”...정부, WTO 제소 준비

“WTO 회원국의 비공식 지지”... 화이트리스트 배제 안돼 RCEP회의서도 “日 수출규제, 무역규범 훼손”...철회 요구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등 국제적으로 전개한 여론전을 바탕으로 WTO 제소 준비에 들어갔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본은 우리의 반론에 공색한 변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트리스트(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간소화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면 일본의 WTO 협정 위반 범위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WTO 제소 준비에 나섰다. 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26일 “WTO 회원국의 비공식 지지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이 편한 날 짜에 WTO 제소에 나설 것”이라며 “열심

히 칼을 갈고 있다”고 강조했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서’를 상대국인 일본에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제소장 역할을 하는 양자협의 요청서는 제소 범위와 성격을 한번 규정하면 수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정부는 양자협의 요청서 작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7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장에서도 한국은 일본과 양자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 규제 부당성을 지적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27일 일본 경제산업성과 외무성 관계자로 구성된 일측 수석대표들과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국제무역규범을 훼손하고, 역내의 무역자유화를 저해하며, 글로벌 가치사슬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수출 규제를 즉시 철회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여 실장은 RCEP에 참여한 13개국과 양자회의를 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가 역내 무역 자유화에 역행할 뿐 아니라 이들 국가도 참가하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가치사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내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

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한·미·일 장관급 회담이 성사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산업부는 내달 2일 일본의 각의 결정에 대비해 29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20개 업종을 대상으로 수출규제에 대한 업계 설명회를 하고 지역 순회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실상 우리 주요 업종 대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설명회는) 일본 제도 변경에 대한 내용과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 피해 발생에 따른 지원 등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농식품부·농협, 마늘 1만5000t 추가 수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마늘 1만5000t을 추가 수매한다. 농식품부는 28일 “정부 수매 2만 3000t 등 전례없는 시장 격리 대책에도 산지 마늘 가격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의 판매대에 마늘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무역규제 건수 줄었지만 영향력은 두배로 커졌다

WTO ‘무역감시 보고서’ 건당 50억달러→110억달러

국가 간 무역 분쟁이 격화하면서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무역규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무역 규제 건수는 줄지만 규제에 영향을 받는 무역 규모는 늘어나는 추세다.

28일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감시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등장한 무역 규제가 총 127건으로 월평균 10.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나 수입금지, 특별 보호 장치, 수입세 등 수입 규제가 10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수출 규제는 18건, 기타가 1건이었다.

그나마 올해 들어선 신규 무역 규제가 감소하는 양상이다.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했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새 무역 규제는 38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수입 규제가 31건이었다. 반면 무역 규제의 영향력은 종전보다 한층 강해졌다. 같은 기간 신규 수입 규제에 영향을 받은 무역 규모는 총 3395억 달러(약 402조1000억 원)로 집계됐다. 수입 규제 한 건당 110억 달러 수준이다. 직전 조사기간

인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신규 수입 규제의 건당 영향은 50억 달러에 불과했다. 올해 새로 등장한 수입 규제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수입 규제액 및 건당 수입 규제액은 역대 최고치를 갱 가능성도 있다.

WTO 보고서는 “수출 규제 조치의 영향 범주나 관세 부과 정도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주요 20개국(G20) 국가에서 시행한 수출 규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무역 규제 처분은 되레 감소하는 추세다.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무역 규제가 개시된 경우는 99건으로 월평균 14.1건이었다. 직전 조사기간인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무역 규제 처분 건수(296건, 월 24.7건)에 한참 못 미친다. 또 무역 규제 종료 건수가 개시 건수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최근 7개월간 무역 규제 종료 건수는 112건(월 16.0건)이었다.

WTO는 “보고서는 무역 긴장이 글로벌 무역 환경을 압도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준다”며 “보고서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매우 심각하고 경고음이 이미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내일이 불안하다...상대적 경기전망 ‘역대 최저’

현재경기판단 CSI와 향후전망 CSI 격차 단 3P... 장단기금리차도 최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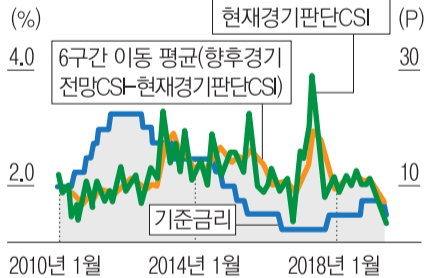
한은 “부정적 요인, 강하게 작용”

내일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본 상대적 경기전망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시장에서 평가하는 경기전망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중 무역분쟁과 수출 부진, 주가 하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얹힌 데 덮친 격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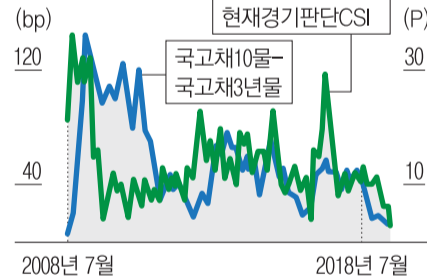
27일 한국은행과 채권시장에 따르면 6개월 전과 현재를 비교한 현재경기판단 소비자동향지수(CSI)는 7월 중 2포인트 내린 67로 1월(65)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반면 현재와 6개월 후를 비교한 향후경기전망CSI는 5포인트 떨어진 70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 2월(7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현재경기판단과 향후경기전망 간의 격차는 불과 3포인트로 좁혀졌다. 이는 한은이 2008년 7월 통

기준금리(좌) vs 상대평가로 본 향후 경기(우)



장단기금리차(좌) vs 상대평가로 본 향후 경기(우)



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저치다. 직전 최저치는 2016년 11월 기록한 4포인트였다.

한은 관계자는 “부정적 요인들이 향후 경기전망에 더 강하게 작용한 것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6월 평균 국고채 금리는 10년물이 1.618%, 3년물이 1.496%를 기록했다. 각각 2016년 10월(각각 1.596%, 1.361%) 이후 2년 8개월 만에 최저치다. 이에 따라 국고채 10년물과 3년물 금리 간 격차인 장

단기 금리차도 12.2bp(1bp=0.01%포인트)로 2008년 7월(7.0bp) 이후 10년 11개월 만에 가장 낮다. 7월 들어서도 26일까지 평균 장단기 금리차도 12.7bp에 머물고 있다.

채권시장 전문가는 “불확실한 경기전망 속에서 국고채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을 향해가고 있고, 장단기 금리차도 축소되고 있다”며 “연내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김현미 “무안공항, 서남권 관광거점 역할”

무안공항이 적자공항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미래전략산업 거점으로 재탄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공항 운영 현황 및 현안 사항을 보고받고 종합상황실·관계청 등 공항시설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광주공항과의 통합을 기점으로 서남권 관광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무안국제공항이 지역경제를 주도할 미래전략산업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어 “무안공항이 지역의 균형발전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5년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호남 고속철도 개통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무안공항은 2007년 11월 목포공항 국내선 및 광주공항 국제선의 대체공항으로 개



항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무안공항은 적자공항을 면치 못했다. 139억 원 적자로 인천공항을 제외한 14개 공항 가운데 꼴찌였다.

올 들어서는 상반기까지 47만여명이 이용했고 연말에 광(미주)노선이 취항하면 이용객이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공항 운항노선은 국내선 3개, 국제선 30개 등 모두 33개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우린에게 이것이 자연스럽다

자연스럽게 달리지만 해도

자연스럽게 타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쓰기만 해도

자연과 함께하는 기술

이게 바로, SK이노베이션의

자연스러운 혁신

SK 이노베이션

SK 에너지

SK 종합화학

SK 루브리컨츠

SK 인천석유화학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SK 아이이테크놀로지

포 신흥국 가계빚 눈덩이... 中은 '日 버블기' 수준

43개국 가계부채 46조 달러, GDP의 60% 달해 '내집마련 열풍' 부채팽창 원인 ... 세계경제 위협

급증하는 아시아 신흥국의 가계부채가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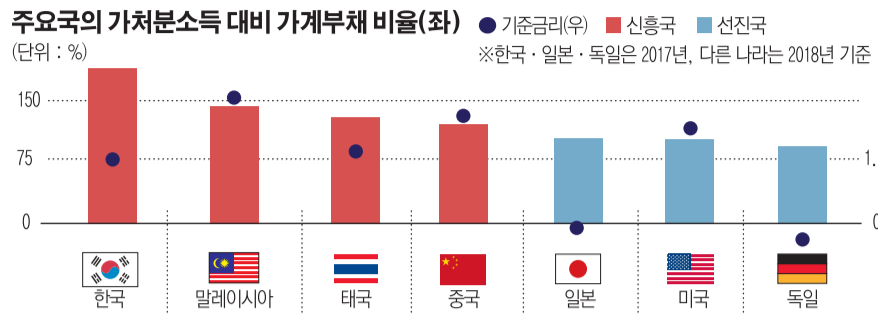
특히 중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일본 버블기 수준으로 올라 심각한 상태이며,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가계부채 급증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28일(현지시간) 니혼게이조 이신문(닛케이)이 진단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데이터가 있는 세계 43개국의 총 가계부채는 2018년 말 기준 46조 달러(약 5경4487조 원)로, 이들 국가 총 국내총생산(GDP)의 60%에 달한다. 가계부채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주택과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를 사

용한 차입 등이었다.

중국의 가계부채 급증 주원인은 주택이다. 중국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의도로 집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이취부동산연구소에 따르면 광둥성 선전 주민의 1인당 소득은 약 500만 엔인데 집값은 1억7000만 엔에 달해 집값을 연수입으로 나눈 비율이 약 34배에 달한다. 이는 일본의 6.3배(2017년 국토교통성 조사)와 미국의 5.7배(2016년 기준)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는 개인소비 억제로 이어진다. 일본 종합연구소(JRI)의 미우라 유지 수석 연구원은 "중국은 가계부채 증가로 소매판매가



침체하는 경향이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자동차 판매가 1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소비 부진을 시사하는 자료도 많다. 중국 정부는 소비 주도의 경제구조 전환을 목표로 하지만 가계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일본에서는 주택 가격이 급증한 1980년대 가계부채가 세 배 가까이 늘어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약 70%에서 120%로

높아졌다. 이는 버블 붕괴 이후 심각한 경기침체와 소비 부진을 초래했는데, 중국도 현재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20%에 달해 일본 버블 시기를 연상케 한다.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자동차나 주택 구입 열풍으로 가계부채가 팽창하면서 상환 부담이 소비 의욕을 억제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태국 아우타야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태

국 정부가 2011년에 내놓은 자동차 등의 구입 지원정책으로 가계부채가 부풀어 오른 것이 구조적으로 소비를 억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70%에 육박해 일본(58%)과 유로존(58%) 등 선진국을 웃돌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정부가 주택 구입 촉진정책을 펼치면서 주택용자가 확대된 가운데 기준금리는 3%로 높은 편이어서 금리 부담이 가계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전망이다. 신흥국 입장에서 이는 금리 인하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채 팽창 상흔을 더 깊게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시리아의 비극... 아버지의 절규 시리아 북서부 이дли브에서 24일(현지시간) 다섯 살짜리 어린 여자 아이가 공습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생후 7개월 된 어린 여동생을 구하려 인간힘을 쓰고 있다. 그 옆에는 아이들의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이 울부짖으며 주위에 도움을 청하고 있다. 현지 저널리스트가 촬영한 이 사진은 현재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하며 시리아 내전의 참상을 보여주고 있다. 여동생은 목숨을 건졌지만 언니는 끝내 숨을 거뒀다. 이드리브/AFP연합뉴스

펼 펼쳐 끊는 유럽... 경제도 타들어간다

40도 넘는 폭염에 생산성 저하 몰살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이 폭염에 신음하고 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기온 탓에 경제까지 녹아내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 25일(현지시간) 서유럽 국가들은 사상 최악의 폭염을 맞았다. 영국, 프랑스, 독일의 일부 도시들은 기온이 각각 39도, 42도, 42.6도까지 치솟으며 여름 기온으로는 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예년보다 10도 이상 높은 폭염이었다.

미국 과학기술정보국(OSTI)에 따르면 기온이 25도가 넘을 경우, 1도 오를 때마다 생산성이 2%씩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대로라면 서유럽 국가들의 생산성은 30% 가까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헤리아 코스타 OSTI 수석 연구원은 "이건 단순히 기록적인 더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40도를 넘어서는 폭염은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경제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정부는 원자로 2기의 가동을 30일 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발전기 냉각에 사용하는 해수가 뜨거워져 사용이 불가능해진 탓이다. 또 다른 원자로 2기는 출력을 절반 이

상으로 낮췄다. 이들 원자로의 발전량은 프랑스 전체 공급의 3%를 차지하는데, 만일 폭염이 계속돼 추가로 가동을 중단시키면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독일 하노버 인근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 역시 같은 이유로 가동 중단에 들어간 상태다. 독일 라인강 수위는 선박 운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낮아졌다.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는 청소 등 주로 외부에서 작업하는 공무원이 업무를 쉬기로 했다. 벨기에 서부 산물을 막기 위해 숲 근처에서의 흡연이나 모닥불도 금지했다. 영국 남동부에서는 선로가 달아올라 열차의 탈선 우려가 부상, 철도회사들은 운행 속도를 줄이도록 공지하는 한편, 시민들에게는 철도 이용을 줄여달라는 캠페인도 시작했다.

이번 유럽의 폭염은 6월 하순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아프리카에서 이베리아 반도를 통해 유럽 상공에 진입한 고기압이 서유럽 중심에 머물고 있는 영향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유럽 관광객 감소는 물론 농축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유럽 전역에서 약 7만 명의 사망자를 낸 2003년 수준(40.7도)의 폭염이면 올해 프랑스의 경제 성장률은 연 0.1~0.2%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김서영 기자 0jung2@

“마크롱, 와인稅 맛 좀 볼래?”

佛, 美기업에 디지털세 부과 트럼프, 프랑스에 보복 경고

‘디지털세’를 둘러싼 미국과 프랑스 간 갈등이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 못지않게 격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프랑스가 도입하는 디지털세에 대해 “대규모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프랑스는 미국의 위대한 기술 기업들에게 디지털세를 부과한다”며 “만일 누군가 이들 기업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그것은 기업이 본사를 둔 미국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크롱의 어리석음에 대해 우리는 조만간 대규모 보복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프랑스에 마누엘 마크롱 대통령까지 언급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나는 항상 미국 와인이 프랑스 와인보다 좋다고 말해왔다”고 다소 사안과 동떨어진 듯한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AFP통신은 트럼프가 프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와인세' 보복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랑스 와인에 대한 관세 부과를 암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가 미국산 와인에 관세를 많이 부과한다고 불평하며 이에 대해 조치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산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등의 보호 의지를 더욱 선명히 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도 “나는 원래 와인을 마시지 않지만 프랑스 와인보다 미국 와인을 훨씬 좋아한다. 미국 와인은 좋은 것 같다”며 자국 와인의 우수성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원래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가

와인을 운운해 기자들 사이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고 한다.

이 같은 미국과 프랑스 간 긴장은 프랑스가 이달 초 전 세계와 자국에서의 매출이 일정액 이상인 주요 IT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세’를 매기기로 한 것이 발단이다. 프랑스는 연 매출 7억5000만 유로(약 9990억 원)이면서 자국에서 250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IT 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넷 사업 매출에 3%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미국 IT 대기업들을 겨냥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반발하며 해당 세금의 철회를 요구했다.

상황이 격해지자 27일 프랑스 브뤼노 르메르 재무장관은 파리에서 기자들에게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할 생각은 없다”며 디지털세가 와인세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했다. 그는 “국제적 규정이 있다면 디지털세를 취소할 것”이라며 “다음달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마저 논의하자는 뜻을 나타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화이자, 마일란과 비특허 부문 합병 추진

세계 최대 제약업체인 미국 화이자가 알레르기 응급 치료제 ‘에피펜’으로 유명한 복제약 제조사 마일란(Mylan)과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화이자 자사의 비특허약품 사업부와 마일란을 합병하려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아직 협상이 타결되지는 않았지만 성사된다면 이르면 29일 합병 소식이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양사는 주식교환 방식을 통한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합병으로 세워질 새 회사 지분의 40%가 약간 넘는 수준을 마일란 주주들이, 나머지는 화이자 주주들이 갖게 되는 형식이다. 마일란의 시가총액은 약 100억 달러(약 12조 원)에 이른다.

또 화이자 자사는 회사채 신규 발행을 통해 120억 달러의 자금도 조달할 계획이다.

두 기업 모두 자사 베스트셀러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저가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이 격화해 최근 매출이 둔화하고 있다. 이에 합병을 통해 저가의 특허만료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WSJ는 풀이했다.

화이자의 특허만료 의약품에는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와 고지혈증 치료약인 ‘리피토’ 등이 포함돼 있다. 바이그라는 연매출이 14억 달러에 달하는 효자상품이었지만 2017년 테바가 복제약을 시판하면서 빠르게 시장점유율을 잃어가고 있다.

마일란은 지난 2017년 에피펜 가격을 종전보다 6배나 인상해 폭리를 취한다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에피펜 복제약을 승인했다.

거레가 성사되면 화이자의 비특허 의약품 사업 책임자인 마이클 고틀러가 합병으로 새로 탄생하는 회사의 최고경영자(CEO)에 오르게 된다. 마일란의 로버트 쿠리 회장은 새 회사 이사회 의장을 맡게 된다.

화이자의 앨버트 블라 CEO는 특허 보호를 받는 의약품과 백신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화이자는 현재 일련의 신약들이 개발 막바지 단계에 있으며 만일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이들 신약은 연매출 10억 달러 이상을 창출할 수 있어 성장세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배준호 기자 baejh94@

〈Recession·경기침체〉

中 때리니 獨 깨졌다... EU 경제심장 'R의 공포'

G2 무역전쟁 유탄 맞은 獨

유럽 최대 경제국이자 유럽연합(EU)의 사실상 수장인 독일이 휘청거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소용돌이 속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독일 경제가 취약해지고 있다.

독일이 리세션(Recession·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공포도 고조되고 있다. 리서치 업체 센틱스(Sentix)가 이달 초 발표한 독일 투자자신뢰지수는 7월에 마이너스(-) 4.8로 10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투자자신뢰지수 하위 지수 중 향후 경제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지수는 -16.0으로 역시 10년래 최저치를 나타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수 결과에 대해 투자자들이 독일 경기침체가 반드시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독일 민간 경제연구소인 유럽경제연구센터(ZEW)가 이달 중순 발표한 독일의 7월 경기기대지수는 -24.5로, 3개월 연속 하락한 것은 물론 시장 전망인 -22.5를 밑돌았다. 이 지수는 앞으로 6개월간 독일 경제전망을 반영하는 선행지표다.

IHS마르킷가 집계한 독일의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예비치는 43.1으로, 전월과 같은 45.0을 기록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을 벗어났다. 또 PMI는 7개월 연속 기준인 50을 밑돌아 경기위축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제조업은 독일 경제에서 약 20% 비중을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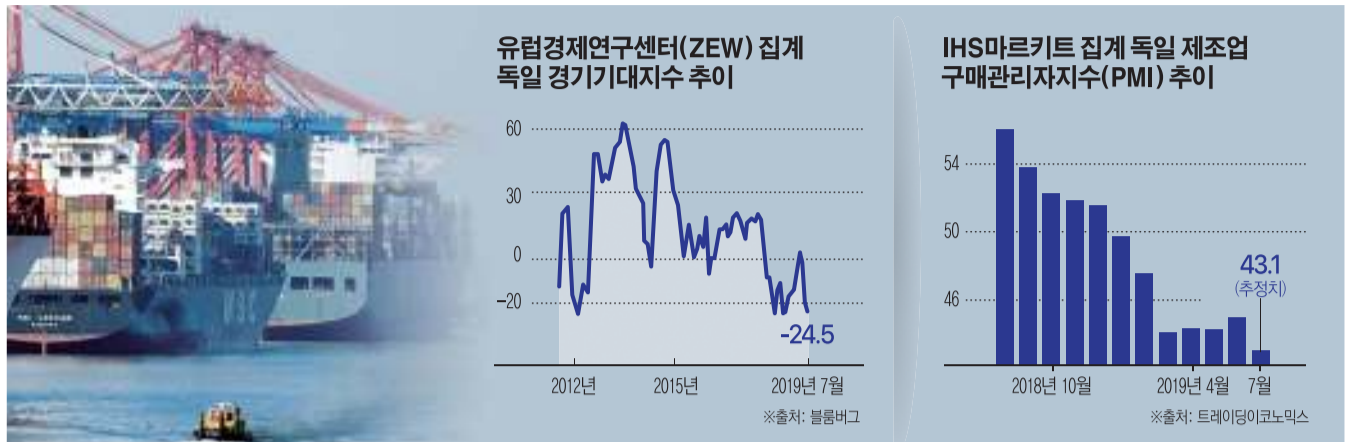
中, 對독일 수입 전년比 37% ↓
수출 의존 높은 獨경제 치명타
경기기대지수 등 지표 하락세
유럽 국가들도 연쇄타격 우려

필 스미스 IHS마르킷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독일 제조업 PMI가 여전히 경기위축 영역에 머물러 있다"며 "이 부문은 글로벌 무역 긴장과 자동차 업계의 성장둔화, 불확실성에 계속해서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1년 넘게 제조업 슬럼프가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경제지표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ING 독일 법인의 카르스텐 브르제스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 경제지표는 적어도 지난 2분기 독일의 경제성장 엔진이 멈춰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며 "지표가 당황할 정도로 나쁘지는 않지만 여름을 즐길 수 있을 만큼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독일기계장치산업연맹(VDMA)의 랄프 비셔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전반적으로 기계공학 부문이 거의 10년의 경기확장 주기 이후 전형적인 하강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그러나 대 중국 수출 성장세가 멈추고 아시아 전역에서는 감소하는 등 독일 경제는 무역 이슈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독일 2위 은행 코메르츠뱅크의 요르그



크레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독일 경제의 부상과 추락은 중국과 함께 한다"며 "독일은 선진국 중 거의 유일하게 중국을 주요 수출시장으로 만들었지만 중국 국영기업의 높은 부채, 미·중 무역 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으로 중국 경기가 냉각하면서 독일 경제도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중국은 EU를 제외하면 독일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지만 지난해 중국의 대독일 수입은 전년보다 무려 37% 급감했다.

독일 정부의 경제전망도 점점 더 비관적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독일 경제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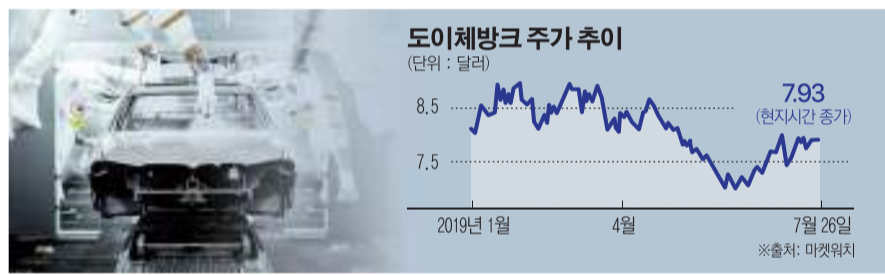
이달 중순 발표한 월간 경제보고서에서 "제조업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고 최근 지표는 서비스 부문의 성장둔화를 가리키고 있다"며 "경제발전은 2분기에 억제되고 나서 외부 환경이 안정되면 회복할 수 있지만 글로벌 무역 갈등과 영국의 EU 탈퇴인 브렉시트, 지정학적 긴장 등 경기하강 리스크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뱅크는 수출 부진 지속으로 2분기 자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독일은 세계 4위이자 유럽 최대 경제국

이다. 만일 독일 경제가 휘청거리면 유럽 나머지 국가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베렌베르그은행의 플로리안 헨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달 말 미국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독일 경제가 리세션에 빠지면 유럽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프랑스와 스페인, 남유럽의 관광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독일과 제조업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오스트리아와 동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경영착오·정부개입 '접착제' 수렁 빠진 독일 대표 기업들

독일 기업의 신화가 깨지고 있다. 많은 독일 기업이 올해 자국 경기둔화와 더불어 경영 판단 착오와 디지털 경제에 대한 부적응 등으로 고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단순히 외부 경영환경 악화만이 아니라 그동안 독일 기업이 자랑해왔던 '효율성'에 이변이 생겼다고 진단했다.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뱅크는 세계화의 야망을 접고 정리해고에 착수했다. 이달 초 사실상 투자은행(IB) 사업을 포기하고 오는 2022년까지 1만8000명을 감원하는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막대한 구조조정 비용에 도이체뱅크는 2분기 31억5000만 유로(약 4조1338억 원)에 달하는 순손실을 기록했다.

WSJ는 도이체뱅크가 수렁에 빠진 원인 중 하나로 20년간 진행됐던 경영진들의 의문점이 많은 서투른 판단을 꼽았다. 도이체뱅크의 핵심 사업은 전통적으로 제조업계를 대상으로 한 상업은행 부문이었으며 독일은 활기찬 금융시장이 없었는데 무리하게 월가에 대항할 수 있는 IB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 결과 결국 자금과 같은 사태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독일 정부의 개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04년 게르하르트 슈뢰더 당시 총리는 글로벌 은행을 탄생시킨다는 명분으로 도이체뱅크에 우정국 산하 금융자회사인 포스트뱅크 인수를 압박했다. 도이체뱅크는 결국 슈뢰더가 이미 정계를 떠난

2010년 포스트뱅크를 인수했지만 통합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 과정에서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매각해야 했다.

독일 정부는 올해 초에도 도이체뱅크와 2위 코메르츠뱅크의 합병을 추진했으나 결국 무산돼 구조조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도이체뱅크 경영진들이 엉뚱한 데 힘을 쏟게 했다. 그러면서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보유한 1300개 가까운 소규모 신용협동조합이나 저축은행의 통합은 거부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럭셔리 자동차의 대명사인 BMW의 최고경영자(CEO)였던 하랄트 크뤼거가 이달 초 전격적으로 사임을 발표했다. 자동차 산업의 변화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지만 크뤼거가 수익성이 낮은 전기자동차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반발이 컸던 것이 주원인이었다. BMW의 미래를 책임질 전기차 인재들이 속속 회사를 떠났다. 그 중에는 아우디의 차기 CEO로 꼽히는 마커스 뒤스만도 있다.

바이엘은 지난해 인수한 미국 대기업 몬산토와 관련한 소송에 휘말렸다. 몬산토의 제초제 '라운드업'을 둘러싼 막대한 피해 배상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독일 DVAM자산운용의 마르크스 쇤 매니징디렉터는 "독일 경제가 장기간 좋은 상황을 유지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방심한 것 같다"며 "독일은 현재 위기에 빠져 있지만 기업들이 이런 상황에 대비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본 광고는 2018 제1회 한국가스공사 홍보콘텐트 공모전 포스터(일반) 대상 수상작(신우식)을 일부 수정하여 게재하였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지우고 환경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한국가스공사는 환경을 위한 저탄소 청정에너지, 천연가스 보급으로 대기 질 개선에 기여하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한국가스공사

〈주거연계증권〉

ELS 변액보험료, 내년부터 오른다

금감원, 보증비용 재산출 권고
업계, 투자대상 편입 자산 기반
공통 이익률 시나리오 개발 추진

주거연계증권(ELS) 변액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내년부터 인상될 전망이다. 보증비용을 재산출하라는 금감원의 권고 때문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내년 1월부터 보증비용을 재산정에 판매할 예정이다.

28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ELS변액보험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사(KB생명, 하나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에 펀드 투자 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보증비용을 산출했다며, 재산정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최저사망보험금의 보증비용'에 대한 재산정을 지적했다. 최저사망보험금이란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최저 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이를 보증하기 위한 보증비용은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마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저사망보험금의 보증비용은 펀드의 투자자산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출해야 하는데, 파생상품인 ELS변액보험의 보증비용 산출시 'ELS자산이익률' 대신 '주식' 또는 '주가지수 자산이익률'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변액보험 보증비용

은 적정가격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변액보험에 편입된 투자대상 자산(ELS)에 기초해 해당 자산이익률 시나리오를 사용해 보증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출할 것을 주문했다. 해당 보험사는 내년 1월부터 재산정된 보증비용을 반영한 상품을 판매하겠다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산이익률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과정이다.

해당 보험사 관계자는 "업계 공통적으로 시나리오를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라 개발이 완료되고 적용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 기간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용 후에는 보증비용이 올라가 결국 보험료 인상효과가 있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LS변액보험은 주가지수와 연계한 상품으로 미리 정해놓은 조건에 따라 투자성과가 달라지는 상품이다. 목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거나 재투자를 지속하고 싶은 고객들의 호응이 높고, 신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앞서 보장성보험과 변액보험을 중심으로 체질개선에 집중하고 있는 보험사들의 니즈와도 맞아 떨어진다.

2013년 4월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 처음으로 출시한 데 이어 KB생명이 2014년 4월 비슷한 상품을 출시했다. 지난해에는 하나생명이 ELS변액보험 시장에 참여해 전체 수입보험료는 약 2조 원에 달한다. 주로 은행의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일사납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서지연 기자 sij@

〈기업 PR〉



'힙스터' 콘텐츠 한눈에... '현대카드 다이브' 베타 오픈

현대카드는 28일 새로운 디지털 문화 공간 '현대카드 다이브' 앱을 베타 오픈했다고 밝혔다.

현대카드는 다이브 베타 오픈을 통해 현대카드가 보유한 문화적 자산과 힙스터들의 주요 관심사를 동시에 담아낼 예정이다. 현재 현대카드는 디자인과 여행, 음악, 미식 등 총 4곳의 라이브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런 아날로그 경험을 다이브를 통해 디지털로 확장할 계획이다.

현대카드 다이브는 여행과 음악, 요리, 스타일, 테크, 디자인 등 힙스터들의 관심사를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자신의 아날로그 경험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다른 힙스터의 경험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 현대카드 다이브는 회사의 문화 활동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된다. 현대카드가 운영하는 4곳의 라이브러리와 스토리지(전시장), 바이닐엔플라스틱(음반매장) 등에서 열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예약할 수 있다. 슈퍼퍼서트 포함한 현대카드의 다양한 문화 활동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현대카드는 다이브 베타 오픈을 기념해 행사를 시행한다. 앱을 내려받은 뒤 최근 자신의 관심사나 인기 장소, 인생 여행지 등에 대한 경험을 앱에 올리면 자동으로 이벤트에 응모된다. 응모 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 본인 SNS 계정에 올린 게시물도 손쉽게 가져올 수 있다. 현대카드는 이벤트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고프로 카메라'와 '애플워치', '홈비어머신' 등을 선물한다.

회식 줄어들자... 노래방 음악소리 '뚝'

KB 자영업 보고서 2탄

지난해 폐업 노래방 수가 창업 노래방의 두 배에 달했다. 코인노래방 역시 지난해부터 성장세가 둔화해 노래방업계의 주 52시간제 도입과 생활양식 변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KB금융경영연구소는 'KB 자영업 보고서' 두 번째 시리즈로 '노래방 현황 및 시장여건 분석'을 발표했다.

현재 노래방은 전국 3만3000곳이 운영 중이며 종사자는 6만5000명에 달한다. 전체 매출액은 1조5000억 원

주 52시간제 등 생활양식 변화 휴·폐업 1413곳... 창업의 2배

으로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4500만 원이다.

전국 노래방 수는 2011년 3만5316개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신규 등록 수는 766개로, 이는 노래방이 등장한 1992년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반면 폐업과 휴업으로 시장을 이탈한 노래방은 지난해 1413개로 집계됐다. 5월까지 노래방 657개가 시장을 이

탈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신규 295건의 2배 이상 규모다.

노래방이 가장 많은 동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으로 197개가 영업 중이었다. 이어서 경기 시흥 정왕동(191개), 서울 관악 신림동(186개) 등으로 집계됐다.

코인노래방은 2015년 이후 상승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신규 등록은 409개로 대폭 줄었다. 이런 노래방업 감소 경향은 노래방의 보완재인 회식 수요 감소와 문화 변화 영향으로 해석된다. 주 52시간제 도입과 워라벨 문화 등의 확산으로 직장인 회식 감소가 큰 영향을 줬다. 또

노래방을 대체할 수 있는 카페와 당구장, 스낵골프, 복합쇼핑몰 등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었다.

연구소 측은 "주 52시간제 시행과 같은 외부환경 변화에 대해 노래방의 능동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공기 질과 내부 위생 관리, 노후 실내장식 교체 등으로 소비자 눈높이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래방 업계 전망에 대해서는 "낮은 운영비로 운영이 가능하며 업계의 자연적인 구조조정은 더디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코인노래방은 최근 성장 둔화세를 보이지만 1인 가구 증가와 소비 개인화로 기존 노래방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www.douzone.com

인공지능 시대 회계프로그램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회계증빙을 자동수집, 자동분개,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세무신고 데이터의 오류까지 자동으로 검증해줍니다.

더존 Smart A 자동 회계처리 프로세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통장 → 자동수집 → Cloud Center → 자동분개 → 자동회계처리 엔진 → 자동입력 → 자동검증

자동입력: 빅데이터 분석, 기업 표준 회계처리 패턴, 기계학습, 기업별 과거 회계처리 이력

자동검증: 회계장부, 자금관리, 세무신고, 회계세무신고 누락 및 오류 검증

국가공인 AT(회계실무/세무실무)자격시험
더존 회계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기업의 회계, 세무처리 능력을 검증하는 실무중심의 자격시험입니다.

더존 자격시험 을 검색하세요

핵심 강좌, 기술문제, 유형별 문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전산화계운용사, 국가공인 ERP정보관리사도 공식 수험용 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세요

더존 프로그램의 주요 모듈 구성
(필요한 모듈만 선택 도입 가능)

회계관리, 세무조정, 인사급여, 영업관리, 생산관리, 외주관리, 구매관리, 자재관리, 무역(수출입), 서비스관리, 공시현장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바로수금서비스, 금융CMS서비스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 문의 1688-5000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Shinhan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같이 가자 환전하고, 선물 받으러

신한은행에서 환전하여 최대90% 환율우대 받고
어디든 떠날 수 있는 여행상품권의 행운도 받으세요



Summer Dream
★ 신한 환전&송금 FESTIVAL

신한은행에서 USD 100 이상 환전·송금하고
여행상품권의 행운을 잡아보세요!
(SOL앱 또는 인터넷 뱅킹에서 '썸머드림' 검색해 이벤트 참여)

1등(1명) 100만원 여행상품권 1,000,000	2등(4명) 50만원 여행상품권 500,000	3등(5명) 30만원 여행상품권 300,000	4등(20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	------------------------------------	------------------------------------	---------------------------

행사기간 : 6월 3일 ~ 8월 30일
당첨자 발표 : 9월 27일 (신한은행 홈페이지 게시)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19-2-2014호(2019.07.18~2019.10.31) ※경품발송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한 고객에 한하여 진행되며 경품 수령 거부 혹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까지 연락처 오류 등 고객의 귀책사유로 경품이 불가능한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경품발송 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실물 경품 당첨 시 우선으로 통보되고 그 외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경품의 이미지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고 경품은 사정에 따라 다른 경품으로 바뀔 수 있으며, 경품 소진 및 당행의 사정에 따라 이벤트는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5만원 초과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 22%는 당행에서 부담하며, 3만원 초과 경품 제공 건에 대하여는 2016.7.30부터 시행중인 은행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보고」 의무에 따라 보고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홈페이지 참조 또는 고객센터,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martphone·Car>

안 사고 안 바뀐요...기업 울리는 폰·카 트렌드

스마트폰과 자동차 소비의 최근 트렌드가 '안 바꾸고, 안 사는' 쪽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삶의 형태를 바꿀 초혁신적인 제품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다 제품 내구성이 좋아지면서 신제품 소비 욕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저마다의 방법으로 각자도생(各自圖生)을 꾀하고 있다.

28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안드로이드폰의 교체 주기는 30개월, 아이폰 교체주기는 36개월로 나타났다. 2017년 조사에서 세계 휴대폰 사용자의 평균 휴대폰 교체주기는 21개월이었다.

타른 파탁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연구원은 교체주기가 길어진 원인에 대해 "(스마트폰) 품질이 전반적으로 좋아졌고 평균 판매단가는 올라갔으나, 제품에는 눈에 띄는 혁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교체주기 장기화는 스마트폰 시장 축소



**스마트폰 교체 주기 21→30개월
쓰던 폰 멀쩡한 데다 혁신 없어
1분기 전 세계 출하량 5% 줄어**

**자동차 패러다임, 소유에서 공유로
쏘카 차량 구독자 5만 명 돌파
정의선도 "아들이 면허를 안 따"**

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3억4500만 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3억6160만 대) 대비 5%가량 감소한 수치다.

시장침체 속 스마트폰 업계는 자구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LG전자는 업그레이드 서비스 확대를 천명했는데, 이는 신규 고객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집토키(기존 고객) 이탈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LG전자는 LG V30에 신기능을 대거 추가하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LG전자는 29일 제작년 하반기에 출시한 LG V30와 LG V30S ThinQ를 사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밸류업 패키지를 배포한다. 밸류업 패키지에는 최근 출시한 스마트폰에 적용된 최신 기능들이 담겨 있다.

자동차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차량공유 개념의 확산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내수 차 시장 판매량은 2016년 상반기 81만8115대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다. 이를 기점으로 하락세가 이어지며 올 상반기는 75만8060대 판매에 머물렀다. 특히 30대의 신차구매 비중은 2011년 23.7%였지만 지난해에는 17.4%로 떨어졌다.

차 판매 감소의 주요 원인은 경차와 소형차 수요 축소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던 경차와 소형차 수요는 이미 차량공유 업체가 대

신하고 있다. 필요할 때만 차를 빌려 타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실제로 차량공유 업체 쏘카가 내세운 '차량 구독 서비스'의 올해 누적 구독자 수는 5만 명을 넘어섰다.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SK그룹은 미래 모빌리티를 5대 신사업분야로 선정하고 최근 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2015년 국내 1위 차량공유 업체 쏘카에 투자하고 지난해에는 미국과 동남아시아 공유업체에 투자를 단행했다.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은 지난 5월 칼라일그룹이 주최한 투자자 간담회를 통해 자신의 아들이 면허 딸 생각을 안 한다고 소개하며 "밀레니얼 세대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아닌 공유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안영무 기자 noglasses@

김준형 기자 junior@

이 기사는 **channel 5** 유료정보서비스에 게재됐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 "한화 다니길 잘했어" 영상

**한화 프라우드 캠페인
회사에 자긍심 느낀 순간
20개국 임직원 사연 모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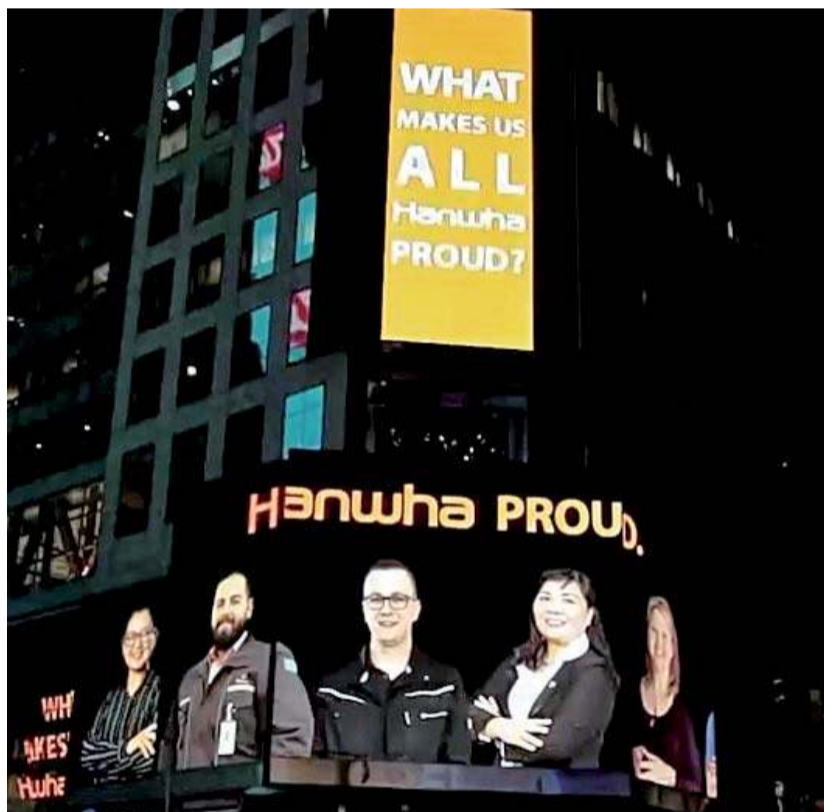
"한화에 입사하길 잘했어요."

한화그룹이 해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화 프라우드(Hanwha Proud)' 캠페인을 진행했다. 한화의 기업 문화와 가치를 해외 사업장에도 전파하기 위해 한화에 입사해 자긍심을 가졌던 사연을 공모, 공유한 것이다.

28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한화에 자부심을 느낀 순간을 사진과 사연으로 공모하는 한화 프라우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11개 계열사 20개 국가, 30개 법인에서 총 526건의 사연이 응모됐다.

한화그룹이 이 같은 캠페인을 진행한 것은 글로벌 사업 확대에 따라 해외 임직원이 전체 임직원의 25%까지 늘어나자 이들에게 한화그룹만의 가치를 내재화하고 자긍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한화그룹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최종적으로 한화그룹 독일에서 40명이 넘는 동료들에게 80일간의 휴가를 기부받은 이야기, 한화건설 비스마야 현장의 꿈의 도시를 만들어 가는 이야기 등 6명의 사연을 선정했다.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한화 해외 임직원 6명의 사연을 담은 '한화 프라우드 캠페인'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사진제공 한화

특히 한화그룹은 6명의 사연을 이달 초 선정된 사연을 영상으로 제작해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옥외 전광판을 통해 상영하는 행사를 했다. 이를 통해 해외 임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한화라는 브랜드를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한화 프라우드 캠페인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전문지인 캠페인(Campaign) 주관으로 진행된 2019 PR 어워드 아시아(PR Awards Asia)에서 사내커뮤니케이션 부문 '브론즈(Bronze)'에 선정되는 성과도 거뒀다.

김유진 기자 eugene@

대한항공, 항공 종사자 근무 전 음주검사

**9월 단속 의무화 이전 시범운영
조종사·승무원·정비사 등 측정**

대한항공이 8월부터 조종사·승무원 등 모든 항공종사자에 대한 음주 단속에 나선다. 9월부터 실시되는 항공업계 음주 측정 의무화에 따른 시범 운영이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8월 말부터 항공기 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 운항관리사 및 운항 정비 종사자, 항공 정비사 등을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다. 이들은 근무 전 필수로 음주 측정을 마쳐야만 근무에 투입될 수 있다.

대한항공이 근무 전 음주 측정에 나선 것은 항공종사자의 잇따른 음주 관련 구설수에 대한 국토부의 지침 때문이다. 국토부는 항공업 종사자들의 음주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항기술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의 항공안전법은 음주 상태로 항공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음주 단속에 적발된 항공종사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되며 징계를 받는다. 그러나 단속을 피해 음주 업무를 하는 경우가 생겼다.

지난해 11월 14일 청주공항에서 진에어 부기장 A씨는 국토부 안전감독관의 음주 측정 단속에 걸렸다. 단속이 없었다면, 오전 7시 25분 출발 편 부기장으로 예정된

A씨가 조종석에 앉아 위험한 '음주 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심의위는 A씨의 행위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행위로 판단해 자격정지 처분을 기준보다 50% 상향한 90일로 결정했다. 아울러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진에어에 4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제주항공 정비사도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적발돼 효력정지 60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항공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음주 측정에 대해 불시 점검 방식이 아니라 모든 항공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음주 측정을 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부 훈령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의 주류 등 측정 및 단속 업무 지침'을 보면 운항, 객실승무원은 항공기 운항을 위한 비행 임무 시작 시각(show-up)부터 비행 임무 종료 후 해당 공항을 벗어나기 전까지 브리핑실, 이동 경로(보안검색대, 탑승 게이트 등) 또는 기내에서 측정한다.

이외의 종사자는 해당 근무 스케줄에 따른 근무 시작 시각부터 종료 시각까지 사무실 또는 해당 근무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받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9월부터 항공종사자 음주 단속이 의무화되는 만큼 8월 말부터 시범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기송 기자 kissong@

'삼성 제트' 글로벌 출사표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무선 청소기 '삼성 제트'(사진) 판매 국가를 확대한다. 경쟁사인 LG전자와 다이슨이 이미 하이엔드 제품을 미국, 일본 등에 선보인 만큼 업계 최고 수준의 흡입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르면 9월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에 삼성 제트를 출시할 예정이다. 올해 1월 국내에 공개된 삼성 제트는 삼성전자 무선 청소기 라인업 중 최상위 제품군에 속한다.

프리미엄 제품인 삼성 제트는 업계 최고인 200W(와트) 흡입력을 구현했다. 완전 충전 시 최대 60분 동안 연속으로 사용 가능하며, 5중 청정 헤파 시스템을 갖춰 생활 미세먼지를 99.999% 차단한다.

**200W 업계 최강 흡입력
9월 독일 시작으로
亞·美 진출 예정**

**LG 코드제로·다이슨
무선청소기 삼파전**



삼성 제트는 출시된 이후 해외 기관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독일의 시험인증 기관인 SLG는 삼성 제트에 먼지 차단 능력

인증 최고 등급인 5스타를 부여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현재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가 유일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9월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가전박람회(IFA) 이후 삼성 제트를 일부 유럽 국가에 선보인다"며 "이후 아시아, 북미 등에 있는 주요 국가에도 제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 제트가 전 세계에 본격적으로 판매되면서 무선 청소기 시장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가전업체 간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전 세계 무선 청소기 시장 규모는 4조8360억 원이며 매년 30%가량 성장할 전망이다.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LG전자는 프리미엄 제품인 코드제로 A9를 미국, 일본, 호주 등 8개국에 일찌감치 출시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핸들 대신 마이크 휠 카레이서
현대차 '헤리티지 라이브' 진행**

현대자동차가 고성능과 모터스포츠를 주제로 고객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현대차는 경기 고양시에 있는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현대차의 모터스포츠를 주제로 고객들과 소통하는 토크 콘서트 '제6회 헤리티지 라이브' 행사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날 열린 행사는 카레이서 권범이, 강병휘가 진행을 맡았다. 여기에 독일 뉘르부르크링 24시 내구레이스에 출전한 경험이 있는 김재근 현대차 연구원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들은 현대차의 모터스포츠 역사부터 현재의 고성능 브랜드 N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를 고객들과 나눴다. 현대 모터스튜디오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2층 'N 체험존'에 전시된 'i30 N' 프로드 차량. 연합뉴스

오 고양은 'N 체험존'의 리뉴얼을 기념해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되는 '디스커버리 N' 행사도 진행 중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중저가 대신 고급車로 정의선, 中 전략 수정

**‘제네시스 모터 차이나’ 설립
中시장, 전기차 등 질적 승부
생산 기지 동남아·인도 이전**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동남아시아 생산 확대를 추진한다. 양적성장을 추진해온 중국 시장은 친환경차와 고급차 전략으로 대응한다. 28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현대차의 올 상반기 중국 생산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9% 감소한 28만8060대에 그쳤다. 상반기 생산량이 30만 대를 밑돈 것은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최대 생산기지 역시 인도에 자리를 내줬다. 올 상반기 현대차 인도 첸나이 1~2공장은 총 35만1837대를 생산했다. 이곳은 올해도 가동률 100% (65만 대)를 넘겨 70만 대를 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연간 판매목표치(86만 대)를 앞서는 규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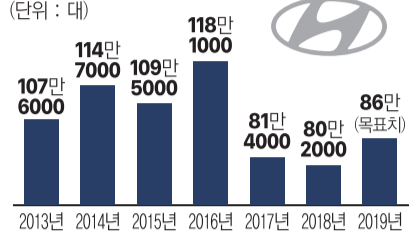
이미 폐쇄가 결정된 베이징현대 1공장(30만 대)을 제외한 중국 생산 가능규모는 150만 대. 현대차는 올해 중국 판매목표를 58% 수준인 86만 대로 잡았으나 이 조차 달성이 어려워 보인다.

구자유 현대차 글로벌IR담당 전무 역시 상반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 “대내외적 요인을 고려할 때 (중국시장)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차의 중국시장 고전은 현지 산업 수요 감소 탓이다. 올해 중국 차시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

현대기아차 중국 공장 현황

구분	공장(비고)	위치	연간 생산능력	비고
현대차	1~3공장	베이징	105만 대	1공장 폐쇄
	4공장	칭저우	30만 대	
	5공장	충칭	30만 대	
	상용차	쓰촨	16만 대	
기아차	1~3공장	옌청	89만 대	1공장 매각

현대차 중국 판매 추이



으로 전망된다. GM의 합작사 ‘상하이GM’의 작년 판매는 전년 대비 6.91% 감소했고, ‘창안포드’ 역시 7.3% 줄었다. 같은 기간 베이징현대 판매도 6.48% 위축됐다. 그나마 잘 나간다면 ‘상하이폭스바겐’조차 0.62% 증가하는데 그쳤다.

결국 정 부회장은 중국시장 전략 수정에 나섰다. 가동률이 하락한 베이징1공장을 과감하게 폐쇄하고 시장 전략을 다시 짜고 있다. 기아차도 합작사 가운데 하나인 위에다그룹에 옌청 1공장을 매각했다. 양적 성장 위주에서 △친환경차 △고급차 및 SUV 중심 전략 △차량공유 확산 등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구조조정과 함께 인도에 공을 들인다. 기아차는 인도 아난타푸르 지역에 연산 30만 대 규모의 공장을 짓고 시험 생산 중이다. 하반기 전략 SUV ‘셀토스’를 앞세워 현지 생산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인도네시아 생산도 구체화한다. 앞서 25일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직접 만나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본격적인 현지공장이 착공 수순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동남아시아 생산을 확대하는 가

운데 중국시장은 제품 전략을 재편해 대응한다. 중저가 모델과 구형차 재생산 수준에 그쳤던 중국에서는 양적성장 대신 친환경차와 고급차, SUV 등을 적극 투입해 시장 회복을 노린다는 전략이다.

현대차는 중국에 제네시스 법인(제네시스 모터 차이나)을 설립하고 조만간 본격적인 판매에 나선다. 노조 동의절차를 넘어서면 현지생산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준형 기자 junior@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삼성, 동남아 1위 오픈마켓 맞손

**모바일 전자상거래 ‘쇼피’
슈퍼 세일 자이언트 행사**



삼성전자가 동남아시아 지역 오픈마켓인 ‘쇼피(Shopee)’와 손을 잡았다.

삼성전자는 향후 2억 명이 넘는 쇼피 고객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모바일 쇼핑에 익숙한 현지 ‘말레니얼’ 세대를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는 동남아 지역 모바일 전자 상거래 부문 선두업체인 쇼피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양사는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고 사용자의 쇼핑 경험을 최적화할 계획이다. 먼저 삼성전자는 쇼피와 함께 동남아 6개 지역에서 ‘슈퍼 세일 자이언트’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에 혜택을 제공한다.

쇼피는 태국,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6개국에 진출했으며, 현지 모바일 쇼핑 점유율 1위의 오픈마켓이다. 누적 앱 다운로드

는 1억1500만 이상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쇼피를 통해 제품을 판매해 왔는데, 작년에는 무려 판매량이 전년 대비 4배 늘었다.

쇼피 관계자는 “삼성”은 지역 소비자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브랜드”라며 “우리는 삼성과의 효과적인 관계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남아 전자상거래 시장은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구글과 싱가포르 국 부펀드 테마섹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동남아 6개국의 전자상거래 총거래액은 지난해 230억 달러로 2017년보다 114% 급증하고, 2025년에는 1000억 달러를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동남아 6개국의 인터넷 신규 이용자는 매달 300만 명에 달하며 거의 모두 모바일 기기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송영록 기자 syr@

환경·생명 지키는 LS전선 ‘그린케이블’

**정박 중인 선박에 전원 공급
1000°C 견디는 내화용도**



친환경 옥내용 케이블인 ‘HFIX+’. 기존 PVC 케이블보다 화재 시 유독가스가 적게 나온다. 사진제공 LS전선

LS전선(대표 명노현)은 최근 미세 먼지 저감과 화재 피해 최소화 등의 효과가 있는 친환경·안전 관련 ‘그린케이블’을 연이어 출시했다.

산업화 시대에 대거 설치된 각종 전력, 통신 케이블 등은 당시 제품 기술의 한계와 관계 법령의 미비 등으로 인해 화재와 각종 사고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케이블이 화재의 뇌관 역할을 하거나 대형 인명 피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LS전선이 최근 개발한 선박용 옥상 전원공급 케이블은 선박이 항구에서 자체 엔진 대신 육상 설비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한 제품이다. 매년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컨테이너선 1척이 정박 중 발생시키는 황산화물은 디젤 승용차 5000만 대, 초미세먼지는 트럭 50만 대 분량에 이를 만큼 대기 오염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LS전선은 불에 잘 안 타고(난연), 고온에서도 제 기능을 발휘하거나(내화) 유독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등 화재에 강한 케이블들도 속속 선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화재 시 대부분의 인명 사고가 유독가스 때문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골든타임을 늘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송영록 기자 syr@

LS전선의 친환경 옥내용 케이블인 ‘HFIX+(플러스)’는 기존 폴리염화비닐(PVC) 케이블보다 유독가스가 적게 나오고, 연기의 공기 투과도가 높아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이미 친환경 케이블의 사용이 보편화된 민간 건설사들과 달리 일부 공공 건설사는 아직까지 PVC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어 화재 시 피해 확대가 우려된다.

또 최근 발생한 대형 통신 사고에서 보듯 케이블이 고온에서도 수 시간 동안 통신과 신호 전송 등 원래의 기능을 발휘하는 내화 특성 역시 중요하다. LS전선은 섭씨 1050°C에서 120분까지 견디는 제품을 개발,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1995년 개정된 국내 소방법상 케이블 내화 기준은 750°C·90분으로, 950~1050°C·120~180분으로 규정하고 있는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어서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 업계의 견해다.

GROVANA
Swiss Made Since 1924

Time is our tradition.

‘시간은 우리의 전통(Time is our tradition)’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1924년 탄생된 스위스 메이드 위치, 그로바나(GROVANA)의 모든 제품은 스위스 텐니켄(Tenniken)에 위치해 있는 자체 공장의 생산라인을 통해 수작업으로 조립되며 3년간의 국제보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OI COMPANY Co., Ltd 02)6403-2112 www.grovana.co.kr

GMT 1547.1135

“프랜차이즈 울타리 탈출... 안정된 ‘인생 2막’ 지원”

규제개혁이 혁신생장의 답이다

② 김혁균 ‘먼슬리키친’ 대표

공유주방 업계에 활력이 되고 있다. 국내 첫 공유주방 스타트업 위륙이 규제 샌드박스(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 실증 특례를 부여받으면서 ‘정부가 밀어주는 산업’이라는 자신감이 업계에 더해졌다. 그러나 동시에 공유주방의 규제 개혁 문제는 이제 막 첫발을 뗏다고 봐도 무방하다. 위륙이 건의한 규제가 일정 기간 풀린 것이지 업계 전체에 해당하는 규제 완화는 아닌 탓이다.

지난 17일 만난 김혁균(48) 먼슬리키친 대표는 위륙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에 관해 “같은 공유주방 사업자로서 두 팔 벌려 환영한다”며 “위륙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공유주방 먼슬리키친은 위륙과 같은 기업 간 거래(B2B) 유통을 가능하게 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 지역에 2개 지점을 운영 중인 먼슬리키친은 올해 하반기 강남권에 3~4개의 공유주방 매장을 추가 출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3호점이 10월께 오픈할 예정인데 이에 맞춰 내달 중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다는 구상이다. 계획대로면 3호점에서는 편의점 납품 등 B2B 영업을 본격화된다.

먼슬리키친은 작년 3월 법인을 설립했고, 그해 4월 역삼 1호점을 열었다. 김 대표는 이미 공유오피스 ‘위킷’, 건강식품회사 ‘자연지애’ 등 계열사를 거느린 사업가다. 육선, 글로벌 컨설팅 업체 등

퇴직금으로 치킨집 개업 태반 외식업 창업 성공사례 드물어 공유주방 통한 위라벨 실현 목표 내달 식약처 규제 샌드박스 신청 ‘先허용 後제재’ 규제심사 단축 혁신기업 창출 디딤돌 될 것

을 거쳐 MP3 플레이어 아이리버의 제조업체인 레인콤의 대표로 있었다. 9년 전부터 창업 전선에 뛰어들어 공유오피스, 건강식품회사 등을 설립한 그가 2017년부터 공유주방에 눈을 돌린 데는 나름의 사연이 있다. 다양한 분야의 회사에서 대표까지 지낸 김 씨 주변에는 부장, 이사, 상무 등 직함을 떼고 회사 밖으로 나와 외식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술하게 많았다. 2억~3억 원 가량의 퇴직금으로 치



김혁균 먼슬리키친 대표가 17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포부를 밝히고 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 심사 기간을 단축해 신산업 분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킨집을 하는 경우가 가장 흔했다. 하지만 외식업 창업에 성공하는 주변인들은 극소수였다.

김 대표는 “프랜차이즈에 의존하지 않고, 제2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먼슬리키친은 6개월, 1년, 2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을 제공한다. 1·2호점 기준 보증금 800만 원에 임대료는 180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1·2호점에는 현

재 10개 팀이 입점했다. 여기에는 오스테키, 남해분식 등이 이름이 알려진 업체들도 포함돼 있다. 먼슬리키친은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영업, 마케팅 등 컨설팅을 제공해 입점자는 음식 조리에만 집중하도록 한다.

김 대표는 “팔 요리만 있으면 오늘부터 창업에 나설 수 있는 셈”이라며 “일반적으로 식당을 내려면 수익이 필요하지만, 공유주방을 이용하면 임대료 자금만 있

으면 되는 것이고, 거꾸로 실패했을 때 없는 비용도 임대료뿐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궁극적으로 공유주방이 자영업자들에게도 ‘위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안겨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죽자 살자 해야 하는 장사가 아니라 하루에 8시간 정도만 영업해도 한 사람당 월 300만~500만 원가량 가져갈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표”라며 “배달 음식 시장이 커지면서 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의 말처럼 먼슬리키친에 입점한 팀들의 매출 구조를 보면 70% 이상이 온라인 주문에서 발생한다. 먼슬리키친 2호점에서 가장 주문이 많은 호랑이돈까스도 매출 80%가 온라인 영역이다. 셰프를 하던 남자 두명이 창업한 호랑이돈까스는 올해 5월 먼슬리키친에 입점했다. 입점 두 달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겨 450만 원의 수익을 냈다.

한편, 규제 샌드박스도 그 자체로 긍정적인 정책이지만, 심사 기간을 단축해 공유주방 같은 신산업 분야 전체가 빠르게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도 신청한 사례만 하나씩 심사해 통과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규제하겠다’고 한다면 어떨까”라며 “그렇게만 되면 혁신적인 기업이 쏟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23kg 장비 달고 테스트, 제 속도 나오자 ‘미소’

가보니 LG U+, 전라북도 5G 기지국 구축 현장

LG유플러스가 오는 10월까지 전라북도 6개 시에 5G 기지국 2170개를 설치한다. 지난 4월 상용화 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됐던 5G 기지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다.

장맛비가 흠뻑리던 지난 25일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선유도 해수욕장을 찾았다. 현장에선 LG유플러스 직원들이 노트북과 휴대용, 특수장비를 이용해 5G 속도 측정 등 장비점검에 한창이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5G 기지국을 구축하고, 최적화 작업에 나선 것이다.

이날 만난 양승석 LG유플러스 네트워크부문 전북인프라팀장 “이달 말까지 휴양지나 관광지 대상으로 서비스 구축에 나서고 있다. 전주 한옥마을, 채석강, 선유도 세 곳에 5G 기지국을 중점적으로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팀장은 이어 “선유도와 채석강에는 각각 6개의 5G 기지국을 설치했고, 건물들이 많은 전주 한옥마을에는 16개를 설치했다”고 덧붙였다.

이달까지 전북 지역에 850개의 5G 기지국 개통을 마무리한다. LG유플러스는 오는 10월까지 2170개까지 기지국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LG유플러스는 호남지역에는 삼성전자 5G 장비를 투입한다. 부산 등 영남지역에는 노키아 장비를 사용하고, 서울과 수도권 일부에서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양 팀장은 “선유도에 설치한 5G 기지국은 삼성 AAU라는 장비다. 예전에는 중계기 따로 안테나 따로 있었는데 안테나 안에

휴가철 앞두고 최적화 작업 나서 장맛비 뿌리는 날도 설치 구슬땀 10월까지 기지국 2170개 확대

안테나 기능도 하면서 파워 증폭, 필터링 기능 모두 다 이거 하나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기의 크기는 가로는 23cm, 두께는 13.5cm, 높이가 97cm이고 무게는 23.3kg다. 통상 LTE 안테나가 15kg 정도 인접을 고려하면 8kg정도 더 나간다. 양 팀장은 “삼성 장비 특징이 EN-DC(E-UTRA NR Dual Connectivity·이중연결성)라는 기능이 있어서 5G하고 LTE하고 합쳐서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더 잘 나오는 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EN-DC를 적용하면 5G 5G와 LTE 두 개의 망을 동시에 사용, 5G 이용 속도에 LTE 속도가 더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수 차례 속도 측정결과 평균 500메가(Mbps) 정도 속도가 나왔다.

LG유플러스는 여름철 휴가시즌을 대비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전국 40여개 해수욕장에서 5G 서비스를 시작한다. 다음달 중에는 10여 개가 추가돼 전국 50여개 해수욕장에서 U+5G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강원 영동지역의 경우 이미 경포대, 속초 해수욕장 등에 5G 기지국 설치를 완료했다. 정동진, 망상 해수욕장 등이 추가돼 이달 중 14개 해수욕장에서 U+5G 이용이 가능해진다. 충청은 대전 해수욕장을 비롯해 무창포 해수욕장에서 이미 U+5G 이용이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전라북도 군산에 위치한 선유도에서 5G 기지국을 테스트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가능하고, 다음달까지 꽃지, 만리포 해수욕장 등 4개 해수욕장에도 5G 기지국을 구축될 예정이다. 부산 해운대, 광안리, 송정 해수욕장을 비롯해 울산의 일산 등에서 U+5G를 이용할 수 있다. 부산 송도 해수욕장, 울산 진해해수욕장, 거제 몽돌해수욕장 등에도 이달 말까지 5G 기지국을 구축한다.

5G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해 해수욕장의 기지국 구축은 설계 단계부터 도심지역과는 차이를 뒀다. 고층 빌딩이 밀집된 도심과는 달리 해수욕장은 대형 건물이 거의 없고 최대 수 Km에 달하는 해수욕장 백사장이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서울·수도권 및 광역시와 85개 주요도시 지역 중심으로 연내 누적 8만개의 5G 기지국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G 전용 콘텐츠를 연말까지 1만 50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김범근 기자 nova@

네이버 ‘프로젝트 꽃’, 소상공인에 ‘웃음꽃’

‘D-커머스 프로그램’ 컨설팅 등 스몰비즈니스 성공 전방위 지원 온·오프라인 매출 증가 시너지

제품 경쟁력과 개발력을 갖춘 소상공인들이 네이버를 활용해 전국으로 판로를 확대하면서 다양한 성공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28일 네이버에 따르면 4년째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꽃’을 통해 스몰비즈니스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5월 시작한 ‘D-커머스 프로그램’으로 교육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소상공인의 스토리를 웹툰으로 재해석하는 등 마케팅을 지원한다. ‘D-커머스 프로그램’은 사업자 거래액구간에 따라 교육과 컨설팅, 자금지원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로우플로우’는 40년 수제화 외길 인생을 걸어온 부친의 가업을 이어받아 정종근 대표가 2014년 만든 수제화 브랜드다.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로우플로우’는 네이버 스타일윈도를 통해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며 이같은 성공사례를 시작으로 현재는 성수동 수제화거리 자체가 네이버에 입점돼 있다.

정종근 로우플로우 대표는 “온라인에서 수제화가 팔리겠다는 시선들이 많았지만, 스타일윈도에 입점하고 온라인에서만 200% 매출이 증가했다”며 “오프라인 매장 매출도 스타일윈도 시작 이후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스타일윈도에서의 성공 요인 중 하나로 네이버의 커머스 메신저 기능인 ‘톡톡’을 꼽았다. 고객 응대가 실시간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 정 대표는 “맞춤제작이라는 수제화 특성상



김인혜 메종 드 이네스 대표.

사진제공 메종 드 이네스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데 ‘네이버 톡톡’은 상담 내용이 한 곳에 기록되고, 빠른 대응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디자이너윈도의 김인혜 메종 드 이네스 대표도 제품 경쟁력을 앞세워 온라인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김 대표는 브랜드가 곧 플랫폼의 운영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디자이너윈도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다. 브랜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다양한 이용자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메종 드 이네스’는 네이버 웹툰 ‘유미의 세포들’과 콜라보레이션을 시도해 클릭 수 8만회, 초기판매 30분 만에 완판이라는 기록을 세운 바 있다.

김유정 네이버 프로젝트 꽃 마케팅 담당 리더는 “네이버는 로컬 사업자들의 창업과 성장을 위해 교육, 인프라, 공간, 자본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다양성을 가진 스몰비즈니스의 성공이 우리 경제에 ‘분수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ati@

해외로 발 넓히는 롯데면세점 “내년 글로벌 매출 1兆”

하노이공항에 베트남 3호점 문 열고, 연내 다낭시내점 계획
사업 호조 힘입어 3년 내 ‘세계 1위 면세점’ 달성 기대감
내달 싱가포르 창이공항 입찰 도전... 신라와 한판 대결

롯데면세점이 해외 매장을 새롭게 오픈하면서 해외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6일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출국장 면세점을 오픈했다고 28일 밝혔다. 2017년 5월 개장한 다낭공항점과 2018년 6월 문 연 나트랑 캄란공항점에 이어 베트남 내 세번째 매장이다. 롯데면세점은 연내 베트남 4호점인 다낭시내점도 오픈할 예정이다. 롯데면세점은 하노이공항점을 10년 운영 계약했으며, 앞으로 10년 간 누적 매출이 약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로써 롯데면세점은 8개국에서 총 21개의 매장을 운영하게 됐다. 롯데면세점은 올해 6월까지 해외점 누적 매출이 지난해 해외점 총 매출을 넘어섰

다. 베트남 다낭공항점과 나트랑캄란공항점은 개점 첫해 흑자 전환을 기록했고 일본 도쿄 긴자점은 매년 평균 120%의 성장률을 기록 중이다. 롯데면세점은 2020년까지 해외점 매출 1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해외 사업 호조가 이어진다면 3년 내 ‘세계 1위 면세점’이라는 목표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면세 전문지 무디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롯데면세점은 60억9300만 유로(한화 7조7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3년 연속 2위 자리를 유지했다. 면세점 1위 사업자인 듀프리의 매출은 76억8700만유로(한화 10조2000억 원)로 격차는 17억7400만 유로(한화 2조3000억 원) 가량이다. 롯데가 처음 글로벌 업계 2위로 올라선 2016년



25억1500만 유로(한화 3조3000억 원)에 비해 1위와의 격차는 많이 좁혀졌다. 롯데면세점 사업 성장의 또다른 관전 포인트로 호텔신라와의 경쟁을 빼뜨릴 수 없다. 신라면세점은 지난해 54억7700만유로(약 6조9000억 원)의 매출을 올려 두계

단이나 뛰어오른 글로벌 3위를 기록했다. 더욱이 지난해 ‘해외 매출 1조’ 타이틀을 롯데보다 먼저 거머쥐었다. 2017년 12월 문을 연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점의 실적(약 4000억 원)이 크게 작용한 덕분이다. 국내 5개, 해외 5개 총 10개 매장을 운영 중인 신라면세점은 특히 아시아 3대 공항(인천, 싱가포르, 홍콩)에 면세점을 운영하며 업계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2억명으로 추산되는 잠재 고객을 확보하고 중국 시장으로의 접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사업 성장률은 72%에 달해 신라면세점의 주요 부문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롯데면세점의 해외 사업은 올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1월 호주 브리즈번공항, 멜버른시내, 다윈공항, 캔버라공항 등 4곳과 뉴질랜드 웰링턴공항에 면세점을 개장하면서 오세아니아로 사업영역을 넓혔다. 오세아니아 5개 지점에서 올해 매출 목표 2000억 원을 세웠다. 공격적인 해외 영토를 확장한 후 사업이 궤도에 오른 롯데면세점

은 올해 해외 매출 7000억 원 달성을 노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롯데는 치앙마이, 하노이, 푸켓 공항 면세점 입찰에 참여했다. 롯데는 싱가포르 창이공항의 면세점 운영사업자 입찰에 재도전한다. 이 곳은 미국 면세업체 DFS가 운영 중인 주류·담배 면세 매장이다. 이미 신라면세점은 창이국제공항 4개 터미널의 모든 화장품·향수 매장을 운영 중이다. 전체 매장규모는 8000㎡(2420평)로,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면세사업장 중 최대 규모다. 다음달 초 예정된 싱가포르 창이공항 주류·담배 매장 입찰에는 롯데 외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도 입찰을 검토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면세시장은 포화상태인 데다 중국 보따리상 매출 의존도가 커 변수가 많다는 약점이 있다”며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 진출이 필수인 만큼 롯데와 신라의 경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 확산

국내 SPA, 여세 몰아 ‘히트텍’ 수요 잡을까

국내 속옷 브랜드들이 유니클로의 ‘히트텍’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이어지자 유니클로 실적의 1등 공신으로 꼽히는 여름 대표 상품 ‘에어리움’을 대체하는 국내 제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국내 속옷 브랜드 BYC의 ‘보디드라이’는 공식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년 대비 159% 매출 신장을 기록했고, 이랜드가 내놓은 SPA 브랜드 스파오의 ‘쿨테크’도 전년 대비 3배 이상 높은 판매율을 올리는 등 에어리움 대항마를 자처하는 국내 브랜드들이 반사이익을 쏙쏙히 누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을·겨울 신제품 준비에 들어간 국내 SPA 브랜드가 유니클로의 여름 소재인 에어리움에 이어 유니클로의 겨울 소재인 히트텍에 대항하는 기능성 발열 내의 출시로 히트텍 수요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07년 국내 출시된 유니클로 히트텍은 기능성 발열 내의 대명사로 불리며 국내 시장을 선점했다. 국내 SPA 브랜드는 히트텍을 겨냥해 기능성 발열 내의를 잇달아 선보였으나 히트텍만큼 자리 잡은 브랜드는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국내 SPA 브랜드들은 유니클로 히트텍 수요를 잡기

‘유니클로 불매’ 분위기 편승 스파오 워히트·탑텐 온에어 등 발열 내의 발주 물량 더 늘려



이랜드 ‘스파오’의 기능성 발열 내의 ‘워히트’.

위해 히트텍 대항마 제품의 물량을 확대하고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랜드 ‘스파오’는 기능성 발열 내의 ‘워히트’ 출시 물량을 지난해보다 60% 확대했다. 스파오는 브랜드 출시와 함께 2009년 유니클로 히트텍을 겨냥한 발열 내의 워히트의 첫선을 보였다. 스

파오는 기존에 선보이던 워히트와 달리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신제품 워히트를 9월 추석 전 내놓을 예정이다. 스파오 측은 올여름 유니클로 ‘에어리움’의 대항마로 불리는 ‘쿨테크’의 판매율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 ‘워히트’ 출하 물량도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스파오 관계자는 “5월 중순 출시한 쿨테크의 판매율이 7월 중순까지 3개월간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었다”며 “쿨테크의 기능성을 느껴본 소비자들이 올해 스파오의 워히트도 찾을 것이라 예상해 발주 물량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신성통상의 SPA 브랜드 ‘탑텐’ 역시 히트텍과 견주는 발열 내의 ‘온에어’의 출시 물량을 지난해보다 5배 늘려 270만 장 선보인다. 온에어 키즈 라인도 출시 물량을 지난해보다 4배 늘린다. 탑텐은 2014년 ‘한국 사람들에게 일본 내의는 안 입히겠다’며 유니클로 히트텍의 대항마로 온에어를 출시했다. 탑텐 측 관계자는 “온에어 자체가 유니클로 히트텍을 겨냥해 내놓은 제품이다. 이번에는 출시 물량도 더 늘렸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매우 이덕화 씨를 모델로 한 마케팅도 강화해 히트텍 수요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남산 블렌드’ 선보이는 英왕실 차 영국 왕실이 사랑하는 차 ‘포트넘앤메이슨’이 한국 론칭 2주년을 맞아 한국 고객의 입맛에 맞춘 ‘남산 블렌드’를 출시한다. 8월 선보이는 ‘남산 블렌드’는 다즐링 품종과 5월 남산의 장미꽃에서 영감을 얻은 장미꽃잎을 더해 신뜻한 향과 깊은 풍미로 고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론칭 2주년을 기념해 8월 7일까지 비스킷, 과일 홍차, 머그컵 등 10만 원 상당의 상품이 담긴 럭키박스를 7만 원에 제공하는 행사도 선보인다. 사신제공 신세계백화점

‘지역상생’ 오투기, 화천 토마토축제 후원

냉파스타 나누는 ‘천인의 식탁’

오투기가 토마토 재배지로 유명한 강원도 화천에서 열리는 ‘2019 화천 토마토축제’를 후원한다고 24일 밝혔다. 화천 토마토 축제는 강원도 화천군 지역 대표 농산물인 화천 토마토와 지역 홍보를 위해 기획된 지역농산물 축제다. 행사는 8월 1일부터 4일간 화천군 사내면 문화마을 일원에서 펼쳐진다. 토마토를 주제로 월드존, 토마토피아존, 플레이존, 해피존, 마켓·전시존 등 5개 테마구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토마토축제는 전야제 행사와 축제 선포식 및 불꽃놀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토마토 체험 프로그램과 전시, 공연, 농특산물 판매장 등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황금반지가 걸린 ‘토마토 황금반지를 찾아라’ 이벤트를 펼쳐 관광객들의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오투기는 화천 토마토 축제를 16번째 후원하며 1000인분의 토마토 냉파스타를 참가자들과 함



께 나누는 ‘오투기와 함께하는 천인의 식탁’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투기 홍보존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케첩인 ‘오투기 케첩’ 등 다양한 오투기 제품 소개와 오투기 벨라티 시음, 신제품 ‘카레케첩’, ‘할라피노 케첩’ 등 제품 시식 코너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日맥주 매출 ‘반토막’... 백화점선 SK-II ‘광고 철수’ 고민

아사히 ‘수입맥주 1위’ 내주고 日화장품 두 자릿수 판매 급감

경제 회복 조치로 인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수입 맥주의 간판주자 격이었던 아사히 맥주는 물론 화장품 SK-II 등 일본 제품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28일 한국주류수입협회가 2018년 7월~2019년 6월 1년 간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아사히맥주 판매량은 0.8% 감소한 반면 중국 칭따오맥주 판매량이 13.9% 증가해 수입맥주 1·2위 순위가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의 수입 맥주 시장 점

유율은 17.8%에서 15%로 2.8%포인트나 줄었다.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마트에서 이달 들어 25일까지 일본 맥주 매출은 48.1%나 급감했고, 일본 라면은 33.1%, 일본 과자는 29% 매출이 빠졌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맥주 매출은 8.1%, 전체 맥주 매출은 0.1% 증가했을 정도다. 이미 이달 들어 일본 맥주 매출이 30~40%가량 급감한 주요 편의점에서도 다음달부터는 ‘4켄에 1만원’ 할인 행사에서 일본 맥주를

제외하거나 신규 발주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일본 맥주 매출은 한층 더 줄어들 전망이다. 일본 화장품을 구매를 꺼리는 심리가 포착되면서 일부 일본 화장품 브랜드는 일본색을 드러내는 광고판을 철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백화점에서 이달 들어 25일까지 SK-II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23% 급감했고, 시세이도는 21%, 슈에무라는 1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B백화점에서도 SK-II 매출은 19.4%, 시세이도는 10.5%, 슈에무라는 9.5% 감소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현금자산 비중 높은 기업, 지배구조는 '낙제점'

ESG 평가 상장사 551곳 중 96개사 주주환원·투자 소극적
11개사는 1년간 배당 없어... "경영자 사적 편익 사용 우려"

현금자산 비중이 높은 상장사 대부분이 지배구조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주주환원이나 투자활동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필요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28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국지배구조원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점수가 있는 코스피 상장사 551곳의 총 자산 대비 평균 현금비중은 7.33%(1분기 기준)다. 이 중 비교적 높은 현금비중(10%)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총 96개사로 조사됐다. 그러나 네이버, 유수홀딩스, LS산전 세 곳을 제외하면 이들 모두 ESG 평가에서 저조한 등급(B 이하)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SG 평가는 기업의 주주권리보호, 배

당, 감사위원회, 공정거래, 환경성과 등을 고려해 등급(A+, A, B+, B 이하)을 산정한다.

전체 자산 절반이 현금인 곳도 있었다. B 이하 등급을 받은 기업 중 현금자산 비중이 높은 곳은 우리들휴브레인이 47.20%(1분기 기준)로 가장 높았고, 씨니전자(40.40%), 경인전자(40.18%), 동양네트웍스(36.20%), 진원생명과학(33.52%), 동아지질(32.37%), 미래아이앤지(32.28%), 인천도시가스(29.64%), 세우글로벌(28.66%), 광명전자(27.92%), 한미글로벌(26.04%) 등이 뒤를 이었다.

송은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일수록 유입된 현금을 영업활동에 재투자하지 않고 금융이나



부동산 등 비영업자산 취득에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기업의 잉여현금은 경영자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들은 배당이나 투자활동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비

효율적인 자본 배분으로 기업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일 년간 배당을 아예 실시하지 않은 곳은 우리들휴브레인, 씨니전자, 동양네트웍스, 진원생명과학 등 총 11개사다. 동시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서도 유출이 전혀 없는 곳도 미래아이앤지, 엔케이물산, 웰바이오텍, 한미글

로벌, 부광약품 등 11개사로 집계됐다.

반면 A 이상을 받은 상장사 중에는 네이버(30.47%), 유수홀딩스(19.88%), LS산전(16.80%), 현대건설(14.75%), 화승알앤에이(14.61%), LG하우시스(13.77%), 아모레퍼시픽(12.93%) 등이 비교적 현금자산 비중이 높았지만, B 등급 이하를 받은 곳들과 비교하면 확연히 적었다.

송 연구원은 "기업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들의 자본배분 정책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현금을 필요 이상으로 과잉 보유해 자본수익률을 저하시키거나, 경영진이 비효율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내리지 않는지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外人 코스피 비중 38% '13년 만에 최대'

올들어 7조472억 순매수 행진
삼성전자 1조3457억 '최대'
원화 약세에 환차익 효과 기대

유가증권시장 (단위: 억 원, 만 주)



※출처: 금융투자협회

구분	KOSPI지수	외국인 비중	거래량	거래 대금	시가총액	외국인 시가총액
2019년 07월 25일	2,074.48	38.45	59,863	52,074	13,835,006	5,319,594
2018년 12월 28일	2,041.04	35.82	35,268	41,207	13,439,719	4,814,834
2017년 12월 28일	2,467.49	37.19	22,034	42,744	16,058,209	5,972,337
2016년 12월 29일	2,026.46	35.2	26,452	30,092	13,084,404	4,606,325
2006년 08월 24일	1,315.73	38.45	19,232	23,154	6,457,410	2,483,213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 코스피 시장의 주요 매수 주체로 부각되는 가운데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 비중이 약 13년 만의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5일 기준 외국인 보유 코스피 주식의 시가총액 비중은 38.45%로 집계됐다. 2006년 8월 24일 38.46%를 기록한 이래 최대 수치다.

작년 말 비중이 36% 선을 밑돌았던 만큼 올해 변화가 커진 셈이다.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도 눈에 띈다.

외국인은 올해 들어 이달 25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7조472억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했다.

특히 외국인은 이달 들어서만 1조 8858억 원어치 주식을 사들였다. 주요 매수 대상은 시가총액 1위와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 외국인은 해당 기간 삼성전자 주식을 1조3457억 원, SK하이닉스를 5599억 원어치를 샀다. 증권 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반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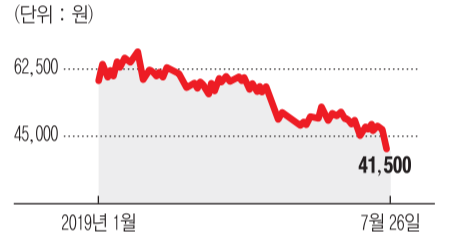
핵심 소재 수출규제가 재고 감소와 반도체 가격 상승효과를 내고 있다"며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약세) 영향도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는 환차익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1100원 초반에 머물던 원·달러 환율이 1200원에 육박하고 있다. 고종민 기자 kjm@

'호실적' 현대미포조선, 주가 하락 왜?

2분기 매출 전년비 52% 증가
당기순익 188억 흑자전환 불구
업황 부진에 수주 절반 줄어
증권가 현실 반영 목표가 하향

현대미포조선 주가 (단위: 원)



현대미포조선이 상반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끝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실적은 기대 이상이지만 선박 수주가 발목을 잡았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미포조선의 2분기 연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1.8% 증가한 8316억 원, 영업이익은 70.8% 늘어난 319억 20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당기순이익은 188억 7700만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앞서 1분기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9.3%, 13.9% 증가하며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던 현대미포조선은 호실적으로 상반기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실적과 달리 주가는 하향세가 뚜렷하다. 지난해 연말 한때 6만 7500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던 주가는 연초 5만 8800원으로 시작해 하향곡선을 그리더니 25·26일 연달아 신저가(4만 1500원)를 갈아치웠다.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수주 부진이다. 현대미포조선은 앞서 올해 연간 수주 목표로 35억 3000만 달러를 제시했다. 지난해 수주는 24억 6000만 달러였다. 산술적으로 분기마다 9억 달러에 가까운 성

과를 내야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1분기 4억 3400만 달러의 수주 성과를 공시했고 2분기에도 비슷한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업황 부진이 원인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 누적 수주 금액은 9억 1700만 달러에 그쳤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난해 실적도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증권가에서도 이런 현실을 반영해 목표가를 줄들이 하향했다. 현재의 분기 실적은 기존의 잔고 수주에 따른 것이지 올해 성적과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최진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미포조선의 매출 및 영업이익은 최근의 수주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이라며 "기준에 수주한 선박들의 납기 일정에 따라 생산량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반기 신규 수주는 연간 목표치의 26% 수준"이라며 "인도 기준 수주잔량은 매출액 대비 1.5년 수준"이라고 평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적자 행진' 평화산업, 주주배정 유증 성사될까

현대기아차 판매 부진 영향
작년 411억 대규모 순손실
부채비율은 705%로 '급등'
적자 지속엔 자본잠식 우려

평화산업 재무제표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분기
매출	3,270	3,245	3,358	830
영업이익	5	-89	-160	-27
순이익	17	-79	-441	-28
부채비율	180.5%	161.6%	705.7%	816.1%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평화산업의 적자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200억 원에 가까운 대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원활하게 진행될지 이목이 쏠린다. 실적 부진과 그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의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선제적 조치인 만큼 회사 입장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평화산업이 진행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신주 발행가격은 1045원으로 확정됐다. 우리사주조합에 20%가 우선 배정되며 나머지는 구주주를 대상으로 1주당 0.4018342336주의 신주가 발행된다.

증자 대금 중 41.9%에 해당하는 82억여 원은 에어서스펜션 어세이 라인과 금형제작 등 시설자금에 우선 쓰이고 나머지 113억여 원은 차입금 상환에 쓸 계획이다. 회사는 사용자금의 우선순위를 시설자금에 두고 있지만 증자의 실질적인 목적은 차입금 상환이다.

평화산업은 현대차그룹 매출이 전체의 48%에 달해 전방 매출처인 현대기아차의 완성차 판매 실적에 손익이 연동되는 구조다. 실제 현대기아차가 부진했던 2017년과 2018년 영업손실이 지속됐다. 아울러 직전 연도에도 이미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일 정도로 수익성은 상당히 떨어진 상태다. 특히 지난해 방진사업부문 영업손실 누적과 판매 부진이 예상돼 손상검사를 하고 203억 원을 손상차손 인식하면서 441억 원의 대규모 순손실이 발생해 평화산업의 재무 안정성을 크게 훼손시켰다.

160~180%대를 유지하던 부채비율은 지난해 705.7%로 급격하게 상승했다. 거액의 순손실에 자본총계가 전년도 682억 원에서 작년에 221억 원으로 급감한 탓이다. 아울러 최근 2년간의 적자로 평화산업의 이익잉여금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게다가 올해도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 일

부 자본잠식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올해 1분기 기준 평화산업의 자본총계는 205억 원까지 낮아져 납입자본금 187억 원과 불과 18억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18억 원 이상의 순손실이 추가로 발생하면 자본금이 깎인다는 의미다. 여기에 과도한 차입금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1분기 기준 평화산업의 총차입금은 678억 원이며 이중 1년 내 갚아야 하는 단기성 차입금만 648억 원(95.5%)에 달한다. 회사는 이번 유상증자 이외에도 기타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차입금을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유증은 실권주 발생 시 주권사가 총액 인수하는 방식도 아니어서 전방 미발행 처리된다. 한 편이 아쉬운 평화산업으로서는 소액주주의 유증 참여가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다. 평화산업은 1만 2000여 명의 소액주주가 35.3%의 지분을 갖고 있다. 조남호 기자 spdran@

빗썸 지수 (2019년 7월 28일 18:00, KST)

전일 대비: -579,000원 (4.9% ▼) | 6개월 대비: 7,215,226원 (176.2% ▲)

전일 대비: -11,400원 (4.4% ▼) | 6개월 대비: 106,942원 (75.2% ▲)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363,700	-11,400 (3.0% ▼)	모네로	95,600	-300 (0.3% ▼)
리플	370	-8 (2.1% ▼)	비트코인골드	23,090	-1,300 (5.3% ▼)
라이트코인	106,700	-4,100 (3.7% ▼)	이더리움클래식	7,185	-150 (2.0% ▼)
대시	152,200	-3,900 (2.5% ▼)	퀀텀	3,513	-178 (4.8% ▼)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장위8·9구역 이어 15구역도 재개발 재시동 흔들리는 '박원순표 재개발 출구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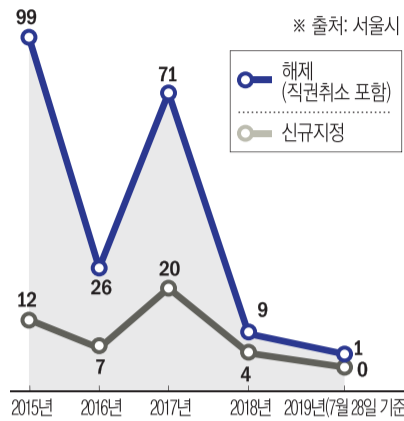
〈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 해제〉

소송 통한 '직권해제 무효' 늘어
재개발 구역 자발적 사업 재개
法 "서울시 사업 고의 지연" 판결
차시장 '직권남용죄'로 피소도

장위뉴타운 재개발 사업 현황



서울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현황



박원순표 '재개발 출구전략'이 흔들리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직권으로 해제한 재개발 구역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재개하거나 소송을 통해 직권해제 무효를 끌어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당초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직권해제한 탓에 역풍을 맞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장위 15구역 주민들은 23일 성북동 성광교회에서 주민임시총회를 열고 재개발추진위원회(가칭-이하 추진위)의 추진위원 선임과 법인 전환 등을 의결했다.

이날 자리를 만든 장위15구역 추진위에 따르면 이번 총회는 토지 등 소유주 1601명 중 966명(60.3%)의 참여로 성

원을 이뤘다. 주민 과반이 재개발 사업 재개에 찬성하는 뜻을 확인한 셈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추진위는 임의 단체로서 구역지정해제 복원, 행정소송, 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의 의사 결정을 대변할 수 없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를 민법상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라며 "구역해제 복원 이후 조합설립 시 법인은 자동으로 해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위15구역은 2017년 주민 3분의 1이

구역 해제 동의를 제출하고 주민 찬반 투표에서 사업 찬성률이 50%에 미달하면서, 지난해 5월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 한시 조례를 도입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고 주민의견 조사 결과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했다.

현재 15구역 일부 주민은 해제 동의서

가 실제 소유주 명의로 다르거나, 한 사람이 여러 장을 제출하는 등 엉터리로 권했다며 정비구역 해제 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총회 개최도 주민의 재개발 추진 의지를 다시 확인해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취지다. 추진위는 15구역이 내년 3월 일몰제 대상이기 때문에 재판 승소 이후 일몰 전까지 주민 동의를 75% 이상을 확보해 조합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15구역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한시 조례를 통해 직권해제된 장위 8·9구역도 직권해제 무효 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장위9구역 관계자는 "해제 동의서가 주민 3분의 1보다 9장이 더 많았는데, 이중 잘못된 해제 동의서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23장 확보한 상태"라며 "재판에서 이 부분이 인정되면 해제 동의서가 기준보다 덜 걸린 것이므로 정비구역 해제는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2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패소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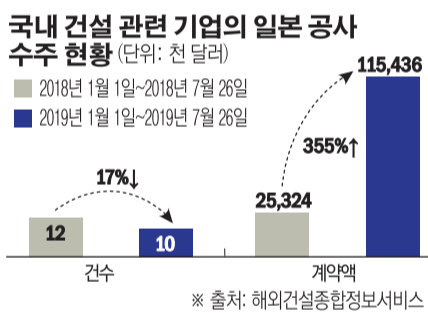
최종적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장위 11구역은 일부 주민이 정비구역 재지정을 위해 주민 동의서를 권고 있다.

법원이 서울시의 재개발 출구전략에 제동을 거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성북3구역은 최근 1심에서 서울시가 사업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직권해제 무효 판결을 받았다. 앞서 대법원은 4월 서울시가 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주민의 견도 묻지 않고 2017년 3월 직권해제한 사직2구역에 대해 최종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사직2구역 조합은 지난달 말 박 시장을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자 직권남용죄로 고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는 주민의 견조사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해제하는데 서울시는 주민의견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보는 이상한 조례로 사업들을 직권해제했다"며 "사직2구역도 성북3구역도 주민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으니 이제 와서 역풍을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건설업계, 日 공사 수주 '이상無'

해건협, 회원사 韓日 갈등영향 조사
올해 공사 수주 10건 1360억 집계
"직접 공사 수주 적어 영향 없다"



해외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일본 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조사가 나왔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한·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만큼 업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고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28일 해외건설협회(이하 해건협)에 따르면 협회는 22일부터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일 갈등으로 일본 관련 사업에 영향을 받은 것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 대부분 회사는 아직은 피해가 없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건설 관련 업체가 일본에서 직접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보니 수주액도 크지 않다.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에 집계된 올해 국내 기업이 일본에서 공사를 수주한 규모를 보면 10건, 1억1543만6000달러(한화 약 1360억 원)로 나타났다.

아시아에서 기타 지역을 제외하고 캄보디아(9073만8000달러), 카자흐스탄(1억

114만3000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수주 규모가 작다.

올해 계약이 이뤄진 사업을 보면 태양광 건설공사(EPC)와 공장 신축공사 등이 있다. 상반기에 수주 계약을 맺은 한 업체 관계자는 "(한·일 관계 악화로) 영향받은 게 없다"고 답했다. 일본에서 열리는 전시회의 한국관 부스 장치 공사를 맡은 업체 역시 "별다른 영향 없다"고 말했다.

해건협 관계자는 "한·일 관계 악화가 국내 기업의 해외 건설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분석하고 있다"며 "제조업 기반 업체들처럼 드러나게 피해를 본 사례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했습니다



26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씨밋갤러리에 마련된 '과천 푸르지오 씨밋' 아파트 견본주택을 찾는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 대우건설

과천 역세권·1호 후분양에 기대감 '업'

입지 좋지만 높은 분양가 부담... 중도금 유예 혜택

주목! 이곳

대우건설 '과천 푸르지오 씨밋'

6250만~16억9990만 원 △전용 126㎡ 16억4110만~18억230만 원 △전용 131㎡ 16억7860만~18억6490만 원 △전용 151㎡ 19억8270만~21억3830만 원이다.

후분양으로 공급되다 보니 옵션 비용은 무조건 부담해야 한다. 대우건설은 안내문을 통해 "현장 공정상 발코니 확장공사를 이미 진행했으므로 발코니 비확장을 선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발코니 확장 금액은 타입별로 1746만4700~3013만8200원이다.

방문객들은 입지는 좋지만 가격 부담이 크다고 아쉬워했다. 분양가격이 모두 9억 원 이상이라 중도금 대출도 어려워 청약에 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것이다.

과천에 사는 30대 부부는 "청약 당첨된다면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처음 4~5년은 전세로 돌리고 자금을 꾸준하게 모은 뒤 이 아파트에 입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과 재건축조합은 분양계약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중도금 유예 혜택을 마련했다. 1차 중도금 금액도 1000만 원으로 일괄 적용했다. 다만 유예기간 동안 연체 이자율 5.5%가 붙는다.

이달 30일, 다음달 1일에 순서대로 1·2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다음달 8일이다. 서지희 기자 jhsseo@

금주의 분양캘린더

이달 말부터 내달 첫째 주 사이 전국에서 1만194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2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경기 과천시 중앙동 '과천푸르지오씨밋',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브라이트어의도(오피스텔)' 등 예비 청약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단

지들이 청약 접수에 나선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공공분양 단지도 속속 선보인다. 경기 광주시 역동 '광주역자연&자이',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신도시자연엔푸르지오' 등이다.

당첨자 발표는 12곳에서 진행된다.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평코아루', 경기 김포시 구래동 '김포한강신도시현대앤빌더킹',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청랑리역롯데

캐슬SKY-L65' 등이 당첨자를 발표한다. 계약이 진행되는 단지는 12곳으로 경기 용인시 신봉동 '힐스테이트광교산', 이천시 안흥동 '이천롯데캐슬페라즈스카이', 부산 수영구 민락동 '광안리수빌DS' 등이다.

견본주택은 4개 단계에서 개관할 예정이다. 대구 동구 신천동 '신천센트럴자이'와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골드클래스' 등이 내달 문을 연다.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7/29 (월)	접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청랑리역롯데캐슬SKY-L65 2순위		
					경기 김포시	구래동	김포한강신도시현대앤빌더킹
7/30 (화)	접수	서울	중랑구	신내동	양원지구동원베네스트 (~7/31)		
					경기 과천시	중앙동	과천푸르지오씨밋 1순위(당해지역)
발표	경북	청송군	진보면	청송각산(국민임대)	청송각산(영구임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7/31 (수)	접수	경기	과천시	덕은동	고양덕은대방노블랜드(A5) 1순위(당해지역)		
					과천시	과천푸르지오씨밋 1순위(기타지역)	
					광주	역동	광주역자연&자이(공공분양) 1순위
					평택시	고덕면	고덕리수빌파크뷰(A45) 1순위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평코아루
발표	대구	달성군	화원읍	화원파크뷰우방아이유셀	화원파크뷰우방아이유셀		
					광주	광산구	신가동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8/1 (목)	접수	경기	과천시	덕은동	고양덕은대방노블랜드(A5) 1순위(기타지역)			
					과천시	중앙동	과천푸르지오씨밋 2순위	
					남양주시	역동	광주역자연&자이(공공분양) 2순위	
					평택시	고덕면	고덕리수빌파크뷰(A45) 2순위	
					경기 김포시	구래동	김포한강신도시현대앤빌더킹	
발표	경기	광주	북구	운암동	중외공원모아미래도			
					서울	서구	화정동	화정골드클래스
8/2 (금)	접수	경기	과천시	덕은동	고양덕은대방노블랜드(A5) 2순위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신도시자연엔푸르지오(A4) 2순위	
					강릉시	강일동	강일2준주거1(행복주택)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청랑리역롯데캐슬SKY-L65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평코아루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부동산114

“사립유치원도 학교처럼 국가가 회계 관리해야”

현재 “사학 재무·회계 규칙 적용 재산권 침해 아냐”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를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현재는 A 씨 등 사립유치원장 124명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2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2는 사립유치원의 세입·세출예산 과목을 구분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씨 등은 해당 조항으로 건물 임대료 등을 지급할 수 없게 하고, 학부모를 통해 납입되는 정부 지원금과 방과 후 과정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엄격하게 회계관리를 하도록 해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사립학교 기준을 일률적으로 사립유치원에 적용해 평등권이 침해됐으며 2017년 10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했다.

그러나 현재는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 역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상 학교로서 공교육 체계에 편입돼 공공성이 강조된다”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 세제 혜택을 받고 있어 재정·회계의 투명성은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이 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지 못한다면 교육의 질 저하로 유아교육에 대한 신뢰는 나빠진다”며 “사립유치원 운영 공공성 담보를 위해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재무회계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시했다.

현재는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어린이집의 경우 사립유치원과 거의 동일한 정도의 회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차별 취급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립유치원 역시 사립학교법상 학교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교육부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사립유치원장들이 주장하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장효진 기자 js62@



“글로벌 인재 되려면...”

권명숙 인텔코리아 대표가 28일 서울시청 본관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9 서울시 청년 글로벌 기업 취업 멘토링 콘서트'에서 '글로벌 기업이 원하는 글로벌 인재'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제자 성희롱 교사, 무혐의에도 해임 정당” 재판부 “고의성 없었더라도 교사 품의유지 위반 해당”

제자 성희롱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비위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해임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형사 사건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필요하지만, 민사 사건의 경우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최근 중학교 교사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3월 제자들의 △영당이 만진 행위 △허리를 두드린 행위 △목덜미 안으로 손을 넣어 어깨를 주무른 행위 △허리와 팔 등을 만진 행위 등을 이유로 학교법인 교원징계위원회가 해임 처분을 내리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A 씨는 검찰 수사에서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만큼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교사의 지위에서 각각의 비위행위로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작성한 진술서에 피해를 본 경위와 장소, 전후 상황, A 씨가 만진 신체 부위, 학생들의 반응이나 느낌이 구체적으로 쓰여 있다”며 “수사 기관에서도 진술서에 기재된 사실 자체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했고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위행위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형사상 강제추행에 이르지 않은 성희롱이나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성희롱도 품의유지의무 위반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A 씨가 신체 접촉에 민감한 시기에 있는 학생들의 몸을 만지거나 친 행위는 교육 현장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할 수 없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종용 기자 deep@

출국금지 고액 체납자 지난해 1만명 넘었다

세금을 5000만 원 이상 체납해 출국이 금지된 체납자 수가 1만 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국세징수법에 의거해 출국이 금지된 인원은 1만2012명이다. 2017년 말 8952명에 비해 34.2% 증가한 숫자다.

지난해 새로 출국이 금지된 체납자는 6560명이며 3500명은 출국금지가 해제됐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은 국세 50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출국금지 해제자를 제외하고 출금 조치가 된 체납자 1만5512명은 5대 지방국세청별로 중부청이 6731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서울청 4606명, 대전청 1245명 등 순이었다.

정부는 최근 악성 체납을 뿌리 뽑기 위해 체납자 출국금지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올해 출국금지 인원은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서울중앙지검장에 배성범 임명 법무부, 검찰 고위직 38명 인사



명의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고검장급은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윗기수와 동기들이 다수 보임됐다. 검사장급 승진은 25~26

기가 주축을 이뤘다.

서울고검장, 부산고검장, 수원고검장에는 22기인 김영대(56) 서울북부지검장, 양부남(58) 의정부지검장, 김우현(52) 인천지검장이 각각 신규 보임됐다.

장효진 기자 js62@

‘윤석열 호’의 진용이 갖춰졌다. 조미의 관심사였던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배성범(57·사법연수원 23기·사진) 광주지검장이 이동했다. 윤석열(59·23기) 신임 검찰총장을 가까이서 보좌할 대검찰청 차장에는 강남일(51·23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보임됐다. 법무부는 26일 승진 18명(고등검사장급 4명, 검사장급 14명), 전보 21명 등 총 38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8월호 발매

시니어 공감 매거진

BRAVO My Life

Monthly Magazine

2019. 08 VOL.58

자려움 투덜뽀 노환병 승진보다 노후한 시간이 중요

도움받고도 응원한 귀촌사위 이야기

어스레중, 한할 때, 노후 인생의 전조증상 어떤가?

취미로 삼은 사진이 인생의 기록이 된다

이런 후 인생에 대해 생각해두세요

어떻게 보살피게 할까?

슬기로운 은퇴 생활

retirement

COVERSTORY 청년 없이 일을 놀이로 즐기자

PART1. 슬기로운 은퇴 생활 - 은퇴 후에도 일자리를 가져야 한다

PART2. 청년연장 논의 - 은퇴 연령,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해법일까

PART3. 은퇴 후의 좌충우돌 - 재무적·비재무적 솔루션 제안

PART4. 내가 만드는 제2직업 - 창업과 사회공헌 일자리

PART5. 인생 N잡러의 '잡 철학' - "일이란 자신을 찾아가는 천직 여행"

PART6. 은퇴자들의 사소한 로망 -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수다란' 지휘자

PART7. 은퇴자 기고 - 나는 오늘도 사람을 만나다

웰에이징 어지럼증, 빈혈 아니라 중병의 전조증상이라면?

어지럼증을 겪고 있는 시니어가 적지 않다. 가벼운 증상이라 여기고 병원을 찾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3명 중 1명은 앓고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 의사들도 있다. 가벼운 어지럼증은 휘청일 때 잠깐 참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몸을 가누지 못한 장소가 계단 정상이라면? 혹은 횡단보도 위를 걷거나 손에 칼을 쥐고 있는 상황이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실제로 어지럼증을 겪는 이들 중 상당수는 낙상 등의 파해로 고통을 겪기도 한다. 신경과 전문의인 박지현(45) 세란병원 진료부장은 “어지럼증은 그 원인이 다양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귀촌 나여! 나부터 잘해보자

귀촌을 위해 집을 샀으나 온전히 그의 것이 아니다. 남의 토지 위에 들어앉은 건물만 샀으니까. 건물 값은 900만 원. 토지 사용료는 연세(年費)로 치른다. 폐가에 가까운 건물이었다. 까짓것, 고쳐 쓰면 그만이지! 그런 작심으로 담벼를 들었다. 뉘든 똑똑하게 고치고 바꾸고 꾸미는 재주가 있는 그는, 단지 두 달여 만에 쓸 만한 집을 만들어냈다. 민병덕(64) 씨의 귀촌살이는 그렇게 시작됐다. 조출하고도 옹골차게.

신라비가 만난 사람

새로 얻은 삶, 죽는 날까지 젊음으로 채우겠다

오토 타는 DJ 겸 실내건축가 최범찬

알을 내려놓아라

이놈들아, 알이 곧 장애이니까!

전통무예 기천문(氣天門)

박사규 문주(門主)

“작은 집의 매력, 손수 지어봐야 알다!”

한겨레작은집건축학교

문건호 교장

타박타박 산책 섬 속의 작은 섬, 소무의도 한 바퀴

인천 무의도에 딸린 섬, 소무의도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2012년에 소무의도 둘레길인 무의바다누리길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소무의도는 해안선 길이가 2.5km에 불과하지만 섬 여행의 매력을 다 갖췄으니 가성비 좋은 섬이라나 할까. 섬 둘레를 걸으며 고갯배가 들락거리는 아담한 포구와 정겨운 섬마을 풍경, 74m 높이의 아담한 산과 푸른 바다를 두루 즐길 수 있다.

고고가게 인천·경기편

고고는 오래된, 고상한, 뛰어난 등의 의미로 쓰인다. 그 수식어에 걸맞은 맛집, 이름하여 '고고가게'를 찾아가 본다. 지하철 인근으로만 선별해 찾기도 쉬우니, 어서 고고(go-go)를 외치자!

시니어 밥상

홈메이드 사찰음식 계속되는 더위, 힘을 더해주는 보양 레시피

상속과 증여 톨아보기

김성우 변호사 임의후견과 유언, 그리고 신탁 이야기

보험성 금리인하와 통화전쟁 그리고 정책여력



김남현의 일가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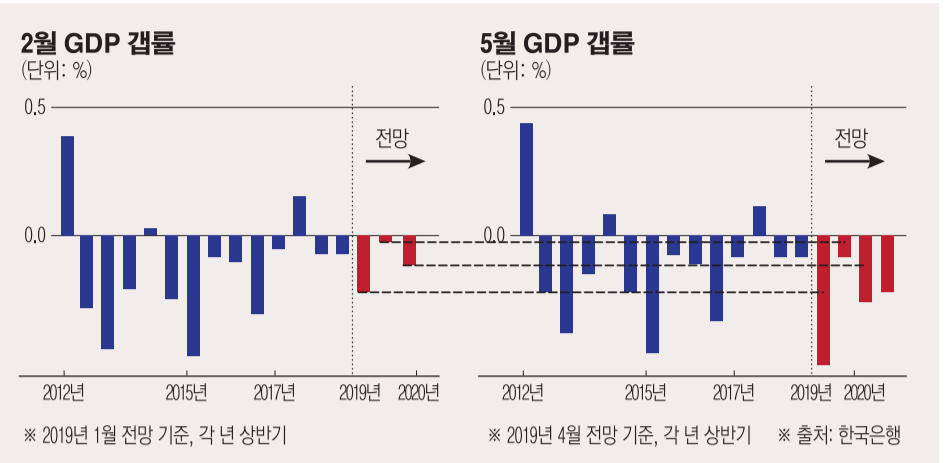
1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인하, 23일 한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25일(현지시간) 유럽중앙은행(ECB) 금리동결과 '더 낮은 수준'이라는 성명 문구 추가, 25일 필립 로우 호주중앙은행(RBA) 총재의 추가 완화 가능성 시사, 30-31일 금리인하 기대감이 큰 미국 연준(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이달 하순 대내외 중앙은행들의 행보가 숨돌릴 틈 없이 바빠 돌아오고 있다. 그 저에는 미중 무역분쟁과 세계교역 둔화, 이에 따른 각국의 경제성장 부진이 자리하고 있다. 또 주요국들 사이에서는 자국 통화를 약세로 유도해 경제부진과 저물가를 타개하고자 하는 소위 통화전쟁 양상까지 확산할 조짐이다.

한은도 이달 3년1개월 만에 금리인하를 단행하면서 경기부양 의지는 물론이거니와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완화기조에 동참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연내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다만 급박했던 최근 흐름의 와중에서도 키워드는 역시 정책 여력과 보험성 인하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정책 여력이 많지 않은 한은 입장에서는 추가 인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글로벌 완화기조에 동참하더라도 보험성 인하나 통화전쟁 추세라면 마냥 따라갈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간의 금리인하가 긍정적 경제 효과보다는 부동산발 가계부채 증대, 양극화 심화, 쯤비기업 연명 등 부작용이 컸다는 점에서 이번의 금리인하 효과 역시 의문이 많다. 가급적 잠재성장률이나 중립금리 수준 내지 그보다 살짝 낮은 수준에서 통화정책을 운용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허송세월했던 구조개혁을 촉구해야 한다. 그래야 2000년대 들어 빠르



게 떨어지지만 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추가하락은 저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잠재성장률 하향 조정과 정책 여력 = 23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서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정책) 여력이 크지 않다"면서도 "(추가 금리인하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통화당국이 대응할 것이다", "(정책 여력은) 아직 어느 정도 있다"는 말을 쏟아냈다.

'금리인하' 긍정효과보단 부작용 커... 가계부채 증가·양극화 심화 정책여력 많지 않은 韓銀, 추가 인하 신중해야... 구조개혁도 필요 연준 이달말 인하할듯... 연준 행보 보며 한은도 속도조절 가능성

최근 한은의 통화정책을 두고 가장 많이 언급된 말은 단연코 '정책 여력'이다. 그도 그럴 것이 연 1.50% 기준금리는 역사적으로 가장 낮았던 연 1.25%에 불과한 걸음(25bp, 1bp=0.01%포인트) 보폭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참고로 한은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통상 소위 베이스스텝이라 해서 한 번에 25bp씩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등 조정해오고 있다). 또, 명목상 제로금리(0%)까지 낮추는 데 부담이 없는 선진국과 달리 자본유출 우려 등으로 금리하한이 선진국보다 높다는 게 이 총재와 한은의 입장이라는 점에서 과연 얼마나 더 내릴 수 있겠느냐는 의문은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라 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 하락도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잠재성장률이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창출할 수 있는 성장률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선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면 통상 실제 국내총생산과 잠재성장률 간 격차를 의미하는 국내총생산격차(GDP갭)에 변화가

생긴다. 국내총생산이 잠재성장률보다 높을 경우엔 플러스 폭을 키우고, 낮을 경우엔 마이너스 폭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반면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면 중립금리 수준이 낮아진다. 전자를 중시할 경우엔 금리인하 명분이 떨어지는 반면, 후자를 중시하면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높인다.

한은은 7월 금통위에서 2.8~2.9%로 추정했던 2010년대 후반(2016~2020년) 잠재성장률을 2.7~2.8%로 낮췄다. 특히 2019~2020년엔 2.5~2.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5월 한은이 추정한 GDP갭을 마이너스폭을 줄이기 충분하다. 당시 추정한 GDP갭률은 올 상반기 마이너스(-)0.51%, 올 하반기 -0.08%, 내

년 상반기 -0.25%, 내년 하반기 -0.22%였다. 다만 7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2.5%→2.2%)와 내년(2.6%→2.5%)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다는 점에서 한은이 8월 초 발표할 GDP갭률 변화 추이를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주열 총재는 이에 대한 즉답을 회피한 바 있다. 18일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는 "이(잠재성장률) 발표를 통화정책과 연관시킬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의 한 금통위원은 "잠재성장률 하향은 추가 금리인하 명분을 낮추기도 하지만 높이기도 한다. 어느 쪽에 중심을 두는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연준 인하 예방적 인하에 방점 = 연준도 이르면 이달 말 열릴 FOMC에서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세계경제에서 나홀로 번영 중인 미국이 금리인하에 나서지는 향후 경기부진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보험적 성격이 강하다.

보험성 인하란 이론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실제 경제·금융 상황 악화로 이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위험관리 차원에서 현 경제상황에 적합한 수준 이하로 금리를 미리 인하하는 정책을 뜻한다.

최근 한은 뉴욕사무소가 내놓은 동향분석 자료에 따르면 연준이 보험성 인하를 단행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3번까지는 아닐 것이라 관측이다. 각각 3회에 걸쳐 총 75bp씩 인하했던 1995년과 1998년 보험

성 인하 당시와 달리 미국 경제지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이다.

실제 올 2분기(4~6월) 실질 경제성장률(GDP)은 전기 대비 연율 환산으로 2.1%를 기록했다. 3.1%를 기록했던 1분기보다 크게 떨어졌지만 시장 예측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개인소비는 4.3% 증가해 1년 6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소비 증가율은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1995년은 대내외 경제지표 부진이 가시화되며 성장 우려가 부각되는 상황였고, 1998년은 아시아 외환위기와 롱텀캐피탈매니지먼트(LTCM) 파산 등 불확실성이 이례적으로 높아지고, 구대관리협회(ISM) 제조업 등 일부 지표가 부진했었다.

연준 금리인하 속도가 생각보다 완만하다면 한은 역시 추가 인하에 대해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높다. 연준 통화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이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7월 금통위 금리인하를 두고 일각에선 선제적이라고 말하지만, 7월 말 FOMC 금리인하 가능성이 기정사실화한 것도 한은 입장에서는 부담을 더는 요인이 됐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주열 총재도 6월 20일 연준 통화정책과 관련해 "기계적으로 따라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늘 같은 답변이다. 연준 변화는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늘 고려해 의사결정을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2019년에는 '짧게, 당당하게, 매력 터지게' 말해보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해야 할 때, 평소 대화할 때, 상대를 설득을 해야 할 때 이 책의 말하기 기술을 떠올린다면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기회들을 발판삼아 '당당한 나, 매력적인 나'의 모습을 찾아보자!

- 상대의 '심리를 지배하는' 말하기
- 상대의 '마음을 훔치는' 말하기
- 상대를 '행동하게 만드는' 말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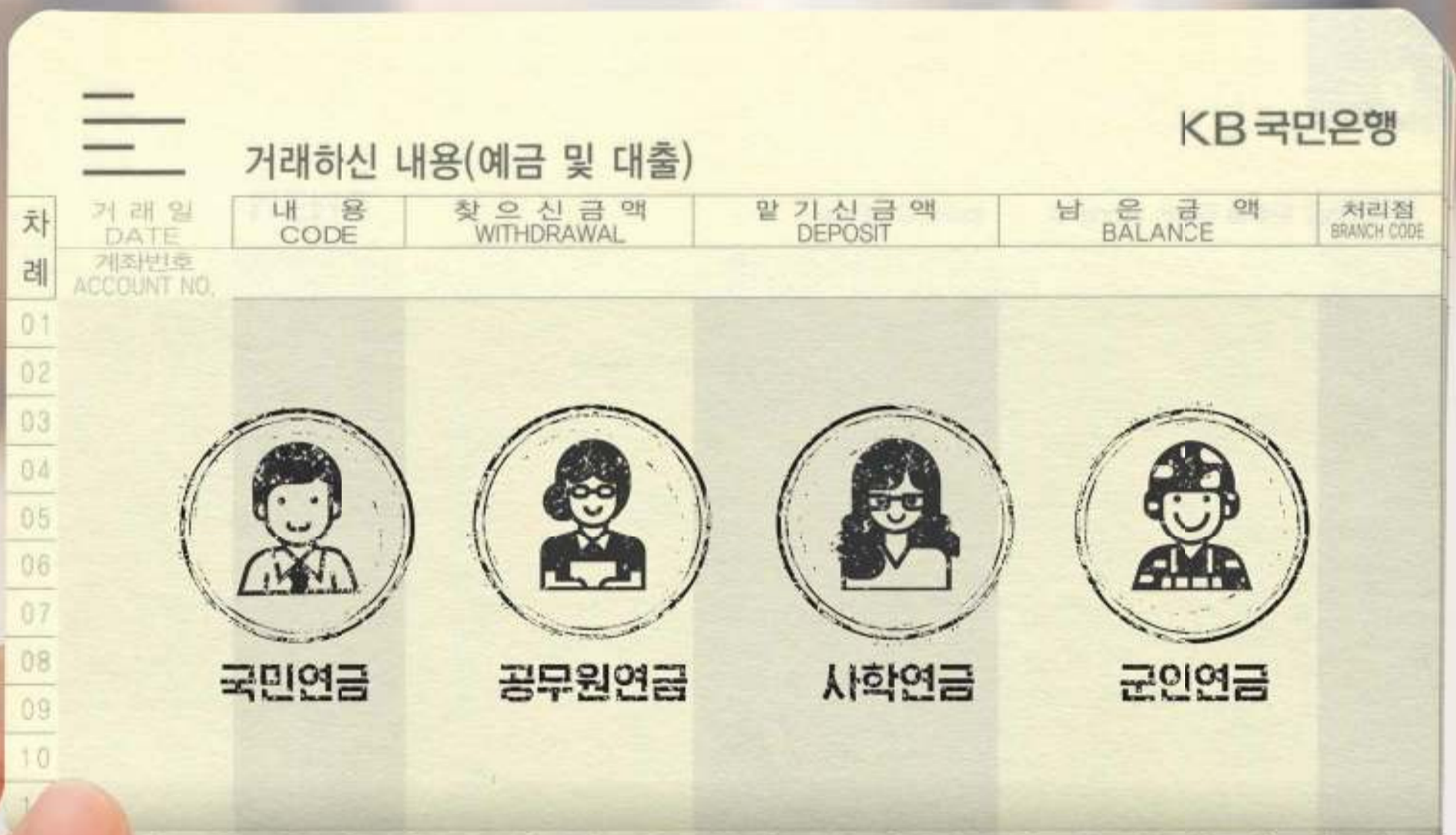


국민연금도 KB국민은행으로

편리한 KB
편의점 24시간 ATM 출금

가까운 KB
전국지점수 1위

손쉬운 KB
'손으로 출금'(손바닥 정맥 인증)



4대연금 신규수령 이벤트

2019. 7. 8 ~ 12. 31

·경품내용:

1등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여유로운 나의 힐링을 위해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2명, 500만원 상당)

2등 국민관광 상품권 ₩1,000,000
설레는 나를 위해
국민관광 상품권 100만원권(20명)

3등 신세계 상품권 ₩300,000
트렌디한 나의 패션 센스를 위해
신세계 상품권 30만원권(50명)

4등 정관장 상품권 ₩50,000
소중한 나의 면역력을 위해
정관장 상품권 5만원권(500명)

·이벤트내용: 이벤트 기간 중 당행 입출금계좌로 4대연금을 2회 이상 신규 수령^{*)} 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 증정
*주) 2019. 1. 1 ~ 6. 28 4대연금을 당행 계좌로 수령한 경우 제외

·당첨자발표: 2020. 2. 7(금) 예정 [KB국민은행 홈페이지 / 스타뱅킹 / 리브(Liiv)] ▶ 이벤트 ▶ 행운의 당첨자

* 이벤트 응모기회는 1인당 1회에 한하며 자동응모 됩니다. * 이벤트 추첨 대상은 2020.1.31(금) 기준 4대연금 정상 이체 계좌만 해당됩니다. * 이벤트 추첨은 난수 입력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난수추첨일 2020.2.4(화) 예정). * 경품 지급금액 5만원 초과 시 제세공과금은 KB국민은행이 부담합니다. * 경품 발송을 위해 고객정보상의 연락처(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우선으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KB국민은행 홈페이지 및 KB스타뱅킹, 리브(Liiv)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경품 수령 거부 또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까지 연락처 오류 등으로 경품 반송 시 당첨이 무효 처리됩니다. * 본 이벤트는 KB국민은행의 사정으로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이벤트 경품은 사정상 동일 금액대의 다른 상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9-1166호(2019.7.18) 광고물 유효기한 2019.12.31까지



지난해 11월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2018 삼성 협력사 채용 한마당'을 찾은 구직자가 삼성전자 반도체 협력사 '피에스케이' 부스에서 채용 면접을 보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LG복지재단은 강원체육고등학교에서 성준용(왼쪽부터), 김지수, 최태준 학생에게 'LG 의인상'을 전달했다. 오른쪽은 남상건 LG복지재단 부사장. 사진제공 LG

협력사 인재양성 등 경쟁력 강화 전폭 지원



삼성전자는 협력사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자금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인 물대지원펀드는 1차 협력사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5000억 원 규모의 물대지원펀드는 2020년 5월 말까지 3년간 운영되면서 1, 2차 협력사 간 '납품 대금 30일 이내 현금 지급' 프로세스를 정착시키고 추후 협력사들의 요청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협력사의 인재 양성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2013년부터 실시한 상생협력아카데미 교육센터는 삼성전자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체계와 교육 콘텐츠를 협력사 임직원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한다. 삼성의 노하우를 협력사에 전수하기 위해 20

년 이상의 현장경험을 갖춘 우수 인력들이 협력사 교육 전담 강사로 활동한다.

인력난으로 고민하는 협력사들을 위해서는 2012년부터 매년 삼성 협력사 채용한마당을 개최하고 있다. 삼성 협력사 채용한마당은 우수 인재를 원하는 협력사와 일자리를 희망하는 구직자 간 만남의 장을 제공해 청년 실업난 해소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협력사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삼성전자는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스마트 팩토리는 자동화·지능화 분야의 IT 기술을 접목해 중소기업 공장운영 전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공장이다. 2015~2017년까지 삼성전자가 전환을 지원한 회사만 무려 1086개사이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들의 평균 매출은 5.5% 증가하고 일자리는 4600개 만들어졌다. 스마트 팩토리 지원 대상에는 삼성과 거래가 없는 중소기업도 포함되며, 지방 노후 산업 단지 소재 기업이나 장애인·여성 고용 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사회 귀감이 된 '의인상' 111명 도와



LG복지재단은 '국가와 사회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인에게 기업이 사회적 책임으로 보답한다'는 고(故) 구본무 회장의 뜻 반영해 2015년 9월 첫 'LG 의인상'을 수여한 이후 2015년 3명, 2016년 25명, 2017년 30명, 2018년 32명, 올해는 21명의 의인을 선정하는 등 현재까지 총 111명의 의인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했다. 특히 'LG 의인상' 수상 범위를 올해부터 선형과 봉사로 귀감이 된 시민들로 확대했다.

LG는 이 외에도 살신성인의 자세와 투철한 책임감으로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된 의인들을 꾸준히 지원해왔다.

2015년 8월 LG는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폭발로 다리를 잃는 2명의 우리 군 장병에게 치료와 재활 등에 요건하게 쓰여 길 바라며 각각 5억 원씩의 위로금을 전달했다. 2014년 7월에는 진도 팽목항 세월호 사고 현장의 지원 활동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소방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

한 소방관 5명의 유가족에게 1억 원씩의 위로금을 전달했다.

한편, LG는 구인회 LG 창업회장의 독립운동 자금 지원으로 시작된 LG의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 LG의 사업역량을 활용한 관련 시설 개보수 및 유공자 지원 사업 등에 앞장서고 있다.

구인회 LG 창업회장은 1942년 충칭 임시정부 독립운동자금 마련을 위해 찾아온 '백산 안희제' 선생에게 1만 원을 희사했다. 구 창업회장은 '나라를 되찾고 겨레를 살리자는 구국의 정에 힘을 보태는 것이야말로 나라를 돕는 일'이라 생각해 위험을 감수하고 결정했다. 구 창업회장의 부친 춘강 공 역시 '일정 구여순' 선생을 통해 당시 상하이 임시정부에 5000원의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LG하우시스는 2015년부터 현충시설 개보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충칭 임시정부 청사, 서재필기념관, 매현윤봉길기념관, 우당이회영기념관, 안중근의사기념관, 만해기념관, 도산안창호기념관 등 총 7곳의 독립운동 관련 시설을 개보수했다.



현대차그룹은 23일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 오디션' 8기 시상식 및 사업 발표회를 열었다. 현대차는 8년간 'H-온드림'을 통해 총 211개 사회적기업을 지원해 142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사진제공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는 친환경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 30개 협력사가 참여하는 '에코 얼라이언스(ECO Alliance)'를 7월 1일 출범했다. 사진제공 SK하이닉스

'H-온드림'으로 청년고용·사회적기업 육성



현대차그룹은 지난 8년 동안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오디션을 통해 총 211개의 사회적기업에 지원금과 경영 멘토링, 구매연결, 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총 142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도 달성했다.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오디션에 참여한 사회적기업은 △소외계층 주거문제 해결 △노숙인 일자리 창출 △위안부 할머니 모티브 상품 판매 영업이익 50% 기부 등의 혁신적인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생태계의 활력을 불어넣으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 사회연대경제 콘퍼런스에 초청받은 현대차는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인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오디션'의 성공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특별 세션에 참여해 2012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의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오디션의 경제적 성과와 UN 지속가능개발목표와 관련된 사회적 성과를 공유하고 정부, 공공기관, 시민사회 등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이어 이달에는 사회적기업 관계자와 H-온드림 8기 선정팀 등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오디션' 8기 시상식 및 사업발표회도 개최했다.

지난해 4월 사회적기업 지원을 확대해 2022년까지 총 1600개의 청년 신규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사회적기업 '안심생활'과 신규 사업을 추진해 여성 일자리 확대에도 적극 나선다. 2006년 설립된 안심생활은 노인요양보호 사업, 요양보호소 10개 지점, 13개 가맹점 운영,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을 통해 750명의 경력단절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고, 8년간 누적 서비스 인원 약 100만 명 등의 성과를 달성한 사회적기업이다.

협력업체와 미래 유망분야 지식·기술 공유



된 자사의 노하우도 사회와 지속 공유할 계획이다.

SK그룹은 빅데이터, 친환경 등 미래 유망분야에서의 지식 및 기술을 협력사와 공유하면서 동반성장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SK텔레콤은 빅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자체 개발기술을 개발자, 협력사와 나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자사의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메타트론(Metatron)' 일부를 오픈소스로 공개해 개발자 동반성장 및 사물인터넷(IoT)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메타트론은 기업이 보다 손쉽게 빅데이터를 준비·정제하고 AI기반의 기술을 개발·상용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솔루션이다.

SK텔레콤은 빅데이터, 머신러닝, 데이터 시각화 기술이 융합된 '메타트론 디스커버리'의 오픈소스 공개를 통해 협력사 및 개발자들이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시각화할 수 있는 기술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관련

친환경을 위한 노력도 SK는 협력사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협력사와 함께 반도체 업계 환경문제 해결에 나선다. SK하이닉스는 친환경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 30개 협력사가 참여하는 '에코 얼라이언스(ECO Alliance)'를 7월 1일 출범했다. '에코 얼라이언스'는 △참여기업별 환경경영 목표 설정 △에코 얼라이언스 공동 환경 목적 설정 △새로운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통해 반도체 산업 내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협력사와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는 활동도 꾸준히 열린다. SK㈜ C&C는 4월 경기도 성남시 판교캠퍼스 A동 1층 드림홀에서 '2019년 상반기 Biz. Partner(BP, 협력사) CEO 세미나'를 개최했다. BP사 CEO 세미나는 BP사 대표들의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높이고, 양사가 윈윈(Win-Win)의 사업 성과 창출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시행되고 있다.



포스코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총 300억 원을 투자해 5년 동안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사진은 포스코 스마트공장 컨셉트. 사진제공 포스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협력사와 공정계약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협력사의 기술력 향상과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19년도 1, 2차 협력사 대상 공정거래 협약식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 한화

2005년부터 中企 직원 56만 명 교육



2019 세계경제포럼(WEF)이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포스코'를 등대 공장으로 선정했다. 등대공장은 등대가 불을 밝혀 길을 안내하듯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제조업의 미래를 혁신적으로 이끄는 공장을 말한다. 포스코를 비롯해 세계 등대공장으로 등재된 공장은 총 16개뿐이다.

포스코가 등대공장으로 선정된 배경에는 포스코가 추진 중인 '상생경영'이 한몫했다. WEF는 "포스코가 기술력뿐만 아니라 대학, 중소기업, 스타트업들과의 협력 생태계 구축 및 상호협력을 통해 철강 산업 고유의 스마트 공장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호평했다.

포스코는 중소기업과의 상생경영을 위한 투자를 꾸준히 하며 기업 속 등대 역할을 해왔다. 2013년부터 200억 원을 투자해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 구축과 생산현장 혁신을 도모했다. 덕분에 870여 개의 중소기업이 1660건의 개선 과제를 수행했다.

올해도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총 300억 원을 투자해 5년 동안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이 사업을 위해 포스코는 포스코ICT·포항산업과 학연연구원(RIST)·포스코인재창조원 등 그룹 내 분야별 전문가로 스마트 추진단을 구성했다. 참여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에너지절감·재고관리·생산라인 자동화 등 공장 스마트화를 지원한다. 포스코의 전문 컨설턴트가 축적된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전수한다는 점은 어두운 밤 바닷길을 헤매는 배에 빛을 비추는 등대를 떠오르게 한다.

포스코는 기업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몸소 보여주기도 했다. 2005년부터 '중소기업 컨소시엄 교육'을 도입해 56만여 명의 직원들을 교육하며 중소기업 인재양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또 청년 구직자 121명을 대상으로 인성·기술 등 취업 지원 교육을 하고, 114명을 협력사에 채용시켜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포스코는 이 사업으로 2018 고용노동부 주관 '2018년 중소기업 컨소시엄 교육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우수 협력사 거래대금 전액 현금결제



한화그룹은 김승연 한화 회장의 '함께 멀리'라는 동반성장 철학에 따라 준법경영과 상생경영을 적극 실천 중이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통해 상생 경영과 관련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유형화해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특히 청년과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청년 및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투자펀드를 운영하고 한화의 인재육성 사회공헌 프로그램이자 플랫폼인 '드림플러스'를 통해 청년 취업과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사업도 펼치고 있다. 또한 400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통해 협력사 자금리대출 및 자금을 지원하고, 협력사 생산성 향상과 연구개발 등을 적극 돕고 있다.

(주한화는 2009년도부터 주요 협력회사를 대상으

로 품질, 납기 등의 기준으로 매년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우수 협력회사에는 구매대금 전액 현금결제, 홍콩·중국 등의 해외 기술 연수, 이해보증보험 면제, 한화 사업장 견학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양호 등급을 받은 56개 협력회사들도 대금 전액 현금결제 인센티브를 주며, '노력' 등급을 받은 7개사의 경우에는 패널티가 아닌 공정개선, 품질관리, 보안관리 등의 컨설팅 활동 등을 지원한다.

한화케미칼은 정기적으로 주요 협력사와 에너지 상생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에너지 관리는 제조업의 핵심 역량이기 때문에 협력사가 최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지난해 8월부터 에너지 컨설팅 전문 기관과 함께 협력사의 생산설비와 에너지 현황을 다각적으로 진단하고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협력사와 경영현황 공유, 하도급 법령 준수, 공정계약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협력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제품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30억 원 규모의 '민관 공동투자 신제품 개발' 펀드를 조성했으며, 협력사와 함께 엔진부품 국산화 개발에 나서고 있다.



동현수(왼쪽부터) 두산 부회장과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협력사 대표 류만열 동평테크 대표이사가 4월 17일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두산그룹



효성중공업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5월 서울시 마포구 노을공원 '효성 나눔의 숲'을 찾아 나무심기 등 생태 보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 효성

자사 임직원 수준 복리후생제도 지원



두산의 상생경영은 협력사와 '선순환적 파트너십 구축'을 목표로 한다. 선순환적 파트너십이란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사업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성장한 협력사들이 두산의 사업을 지지하면서 상호 성장의 궤를 함께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두산은 경쟁력 공유, 기술력 및 재무 지원, 커뮤니케이션 활동 등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두산은 지난달 동반성장위원회와 '혁신주도형 임금 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산은 3년간 100억 원의 기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한다. 이 기금은 협력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끌어올리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사용된다. 이와 함께 현재 월 1회인 대금지급 횟수를 2~3회로 확대하고, 지급 소요 기일은 20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한다. 또한 2차 협력사 기술 인력의 장기 재직을 위한 상생격려금을 지급(임금 지원)하고 △명절 선물 지급 △종합건강검진 실시 △상조 서비스 등 복리후생도 ㈜두산 임직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키로 했다. 미화·보안 분야 근로자에게도 같은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을 적용한다.

두산중공업은 동반성장위원회 주최로 지난해 12월 열린 '2018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에서 동반성장지수평가 최우수기업 인증 트로피를 받았다. 두산중공업은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동반성장 아카데미 개최 △성과공유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지원 등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다.

특히, 협력사와의 정기적인 간담회와 정기·수시 방문 등 원활한 소통채널을 구축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협력사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베트남 동반진출 및 해외 법인을 통한 계약을 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현장 중심의 동반성장 활동을 전개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협력사 기술 개발 컨설팅·설비 개선



효성은 "협력업체와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한다"는 조현준 효성 회장의 의지에 따라 상생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협력사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제품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력 제고에 힘쓰고 있다.

효성은 협력사의 핵심 경쟁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컨설팅 및 설비 개선을 지원해 왔다. 효성중공업은 초고압 전력기기 부문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 협력사에 조작성 등 핵심부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협력사가 안정적인 공급 기술력과 시스템을 갖춰, 곧 회사의 원가 절감과 매출 확대에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것이다.

협력업체의 품질 개선을 위해 생산 관리 시스템, 원격 검사 시스템 등 설비도 지원한다. 최근에는 ICT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협력업체의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

다. 전자 계측장비 및 품질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ICT-QC시스템(정보통신기술을 통한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검사 시간을 단축하고 제품 신뢰도 향상 및 불량률 감소에도 기여했다.

효성은 매년 230여 개 협력업체를 초청해 동반성장 간담회도 개최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주요 경영 현황을 공유하고 동반성장·공정거래·기술거래·교육 협력 등을 협의한다. 우선 창원공장과 마포 본사를 비롯해 주요 거점 사업장에서는 소통 확대와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매년 4회 이상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고 있다. 개별 사업장에서 정기·비정기적으로 다양한 교류 모임을 실시하는 등 연간 6회 이상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효성은 협력업체들의 글로벌 판로 개척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효성티앤씨는 원단 생산 협력업체들과 함께 대구 국제섬유박람회, 상하이 인터텍스타일, 프랑스 파리 모드 시티를 비롯한 글로벌 섬유전시회에 동반 참가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임직원들이 협력사 상생활동의 일환으로 부품 협력사를 방문해 생산관리 시스템 노하우를 공유·전수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모비스



KT 파트너스관에 참여한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KT

지난해 특허 160건 개방... 기술경쟁력 높여



현대모비스가 동반성장위원회의 '2018년 동반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현대모비스의 공정거래 협약 이행 활동 평가와 함께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를 합산해 발표됐다. 협력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현대모비스의 상생경영 활동 평가가 반영된 결과라 의미를 더한다.

현대모비스는 1300여 개 협력사와 건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사 지원자금제도 △국제 경쟁력 강화 △소통과 공감을 주제로 동반성장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모비스는 2016년부터 매출 5000억 원 미만 중견·중소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유동성을 위해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협력사들이 신규 부품 개발에 앞서 대규모 투자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려고 금형비를 양산 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도 한다. 자금

지원제도 외에도 현대모비스 임직원들이 협력사 사업장을 방문해 그간 축적한 생산, 품질관리시스템 노하우 등을 지속해서 공유하고 있다.

협력사들이 스스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현대모비스의 주요 동반성장 정책이다. 보유한 특허를 무료로 이전하고, 협력사들과 함께 더 나은 제품을 만드는 진정한 상호이익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실제로 현대모비스가 지난해 협력사에 개방한 특허는 160건에 이른다. 협력사들은 특허를 무상으로 이전받아 해외부품사의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적으로 기술 국산화를 이룰 수 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100건이 넘는 특허를 협력사들과 공동으로 출원하고, 협력사들이 자체적으로 출원·등록하는 특허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협력사의 해외진출 역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해외 부품전시회에 공동 부스를 마련하고, 중소협력사의 참가·운영·체제비용 등을 전액 지원한다.

中企와 해외 박람회 '동반 전시' 5G 협업



KT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투자가 이뤄지는 5G 및 혁신성장 분야에서 중소기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성공모델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시장 확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집중하고 있다.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와 같은 글로벌 행사에 '동반전시' 형태로 전시 참여 기회를 제공하거나 별도로 해외 박람회 참가를 지원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 2월 25~28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19'에서도 메티스메이크, 뉴로메카, 링크플로우 등 5개 중소·벤처기업들이 참여했다. 무엇보다 KT가 야심차게 선보인 5G 첨단 서비스에 중소·벤처기업들과 협업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해 주목받았다. 메티스메이크는 5G 스카이스의 드론 및 영상 카메라 기술을, 뉴로메카는 5G 커넥티드 로봇에 기술력을 담았다. 링크플로

우는 5G를 기반으로 360도 영상 커뮤니케이션과 1인 미디어 방송이 가능한 넥밴드형 웨어러블 카메라를 선보였다.

이밖에 픽잇은 5G 팩토리 분야에서, 앱노리는 VR 스포츠게임 분야에서 각각 독자적인 기술을 전시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세계 무역센터에서 열린 '두바이 정보통신박람회 2018(GITEX 2018)'에 지엠티, 유비위스, 고려오토론, 에이제이월드 등 9개 협력사에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도 했다.

KT는 GITEX 2018에 'KT 파트너스' 전시관을 구성해 9개 협력사에 독립된 전시공간과 함께 바이어 상담공간을 제공했다. 9개 협력사 가운데 고려오토론, 에이제이월드 등은 400만 달러(약 45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사전에 전시 참가 기업들에 제공한 바이어 매칭 프로그램이 주효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9개 협력사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전시 기간 하루 평균 100회 이상의 바이어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CJ ENM 오쇼핑 부문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생산성본부가 중소 협력사 10곳과 혁신 파트너십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 CJ ENM 오쇼핑



대구 달서구 월배시장에 들어선 이마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사진제공 이마트

협력사 10곳에 연구개발비 3억원 지원



CJ ENM 오쇼핑부문이 경기 불황으로 신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협력사 10곳에 3억 원의 연구개발(R&D) 비용을 지원한다. CJ ENM 오쇼핑부문은 23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생산성본부와 함께 '2019년도 협약기업 R&D 지원사업 설명회 및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CJ ENM 오쇼핑부문의 협력기업인 미라클피플사, 태석광학, 더네이처홀딩스, 대경아이앤씨, 보국전자, 스팀보이, 오리엔탈코리아, 네츄럴메이드, 온니포유, 휴롬 등 10개사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CJ ENM 오쇼핑부문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하는 '혁신 파트너십 사업'에 3억 원을 출연한다. 혁신 파트너십 사업이란 대기업이 비용을 출연하면 수행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가 이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경영 컨설팅 및 자금 지원

을 담당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CJ ENM 오쇼핑부문의 협력사 10곳은 올 하반기 유통·디자인 분야 R&D에 약 250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CJ ENM 오쇼핑부문은 이를 시작으로 향후 3년간 약 10억 원을 중소기업 R&D 비용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단순한 판매 촉진이나 판로 확대를 넘어 실질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CJ ENM 오쇼핑부문은 올 초 TV홈쇼핑계 최초로 동반성장위원회와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CJ ENM 오쇼핑부문은 업계 첫 '협력사 인센티브(제품 판매 실적 목표치를 웃돈 협력사에 최대 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향후 3년간 협력사 지원에 834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재희 CJ ENM 오쇼핑부문 상생경영팀장은 중소기업은 비용 절감, 매출 신장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고, CJ ENM 오쇼핑부문은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일 수 있어 '윈윈'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전통시장에 상생스토어 열어 매출 '윈윈'



노브랜드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생활비를 절감해주는 상품을 제공하는 동시에 우수 중소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상생 브랜드다.

노브랜드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소비자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꼭 필요한 기능만 남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마케팅, 홍보, 포장지 제작 등에 투입되는 불필요한 가격 거품을 제거했다. 이마트를 상징하는 노란색 바탕에 간결한 글씨체로 쓰인 'No Brand' 로고 역시 비용 절감 차원에서 도입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기존 상품 대비 획기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선보일 수 있었고,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노브랜드는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상품의 해외 판로 확보에 힘쓰고 있

다. 실제로 노브랜드와 거래하는 총 389개 협력사 가운데 중소기업은 301개로 전체 협력사의 77%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몽골, 중국을 포함한 해외 시장에 노브랜드 상품을 수출하는 한편 필리핀 등 신규 시장을 개척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를 넓히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노브랜드는 2016년 8월 충남 당진 어시장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8개 상생스토어를 오픈해 운영 중이다. 상생스토어가 입점할 때에는 시장 상인들의 요청에 따라 판매 품목을 조율함으로써 전통시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아이들을 위한 키즈라이브러리, 카페 등 고객 센터, 시장 환경 개선 사업 등을 동시에 진행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노브랜드의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상생스토어가 입점한 전통시장의 매출이 증대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시장 내 공실이 대폭 줄어들고 청년 상인들의 창업이 이어지는 등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Class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세계 최경량 세계 최고 고반발 장타 설계기술력 - 뱅

Par5 3Shot 합산

+100_{yd} 더 나간다

1st Shot +30~50yd 세계 최고 고반발 드라이버 + 2nd Shot +30~40yd 세계 최초의 초고반발 우드 + 3rd Shot +30~40yd 세계 유일한 고반발 아이언 × 205g~ 44%더 가벼운 세계 최경량 기술 × 최적화 기술 적용

BIG BANG Light

모든 업체가 뱅골프의 고반발 기술을 따라하고 경량화 기술을 쫓아오지만 이미 뱅골프는 제3의 신기술 - 최적화 기술로 골프를 쉽고 편하게 하고 있다



PGA 톱 프로처럼 클럽을 만들어 준다면 나도 프로선수 처럼 잘 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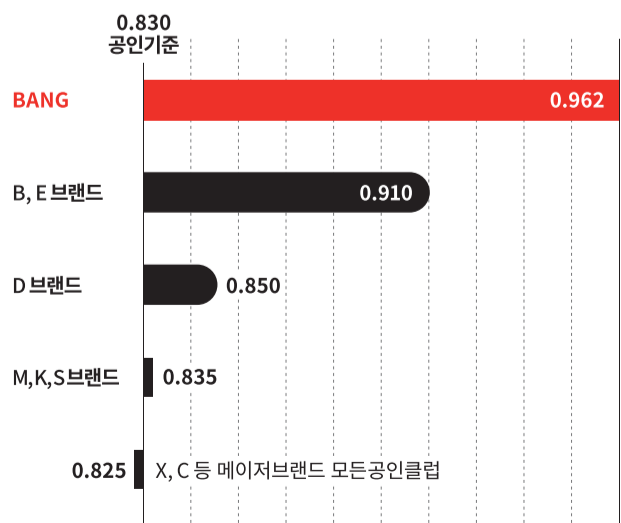
프로 골퍼가 잘 치는 것은 뛰어난 스윙 기술과 최적화된 골프채 덕분입니다. PGA 톱 프로는 첨단 스윙분석을 거쳐 그 프로에게 최적화된 수십 개의 클럽을 만든 후 그중에서 가장 감이 좋은 것을 골라 씁니다.

스윙기술이 부족해도 세계 최고 고반발 기술 + 세계 최경량 기술이 있는 뱅골프 클럽으로 PGA 프로처럼 최적화 기술을 적용한 골프채를 만들어준다면 나도 +30yd 더 잘 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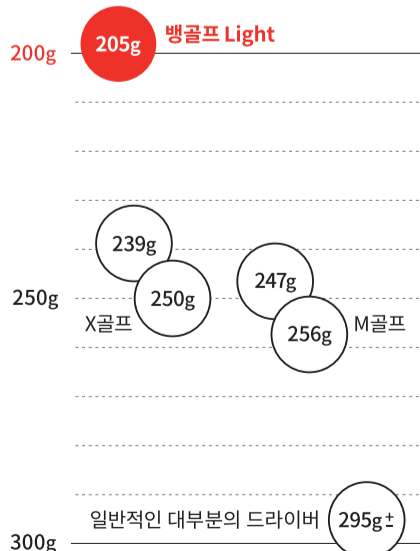
VVIP 고객님의 프로선수와 같은 관리 시스템으로 최적화 기술 적용 및 사용 후 수정 최적화

品格

고반발 기술 격차



경량화 기술 격차



최적화 기술 수준 격차

	BANG Light	타사
드라이버 사양 종류	999,000가지	획일적인 몇가지
드라이버 무게 종류	205g ~ 325g까지 120가지	단일 무게 혹은 몇가지
드라이버 강도 종류	XXX ~ R6까지 36가지	S, SR, R, L 등 몇가지
우드/아이언 강도종류	XXX ~ R6까지 36가지	S, R 두가지 안팎
아이언무게(9번 기준)	남 333g 여 312g	남 351g ~ 395g 여 326g ~ 368g
아이언 샤프트 종류	0.335 inch 최초 2~11번까지 번호별 샤프트	대부분 한가지 길이를 번호별로 잘라서 사용
헤드 무게 조정	120가지 헤드 무게로 헤드 교환 납을 사용하지 않음	납을 첨가하여 무게조정
드라이버 100yd 골퍼	스윙웨이트가 A8까지 있어서 누구나 딱 맞는 가벼운 클럽이 있다	무거워서 치기 불편하다

“유전자원 이익 공유, 서로 윈윈하는 개념으로 봐야”

생명공학 ABS연구지원센터 안민호 박사

나고야의정서 발효 따른 유전자원법 시행...기업 문의 급증 로열티 공포? “지식재산권 공유·ODA 등 다양한 모델 가능”

1990년대 말 일본 화장품 회사 시세이도는 인도네시아의 야생 허브에서 얻은 추출물을 특허 출원하고, 이를 활용해 마백·노화 방지 화장품을 내놨다. 화장품은 인기를 얻었지만 현지 환경단체는 자국 유전자원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생물 해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1년간의 공방을 벌인 끝에 시세이도는 인도네시아의 유전자원 주권을 인정하고 특허를 철회해야 했다.

유전자원 분쟁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에서도 2014년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 데 이어 지난해부터 그 이행 법률인 ‘유전자원법’이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나고야의정서에 따르면 다른 나라의 생물 유전자원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승인을 받고 활용에 따른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유전자원법에 따라 징

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안민호<사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ABS(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연구지원센터 박사는 한국이 나고야의정서 체제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해외 ABS에 대한 정보를 기업과 학계 등에 제공하고 유전자원 접근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도 제공한다.

안 박사는 26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에서 “2017, 2018년 (유전자원 접근에 관한) 문의가 확 늘고 있다”고 말했다. 안 박사 말대로 센터에 접수된 유전자원 관련 문의는 2015년 3건에 불과했지만 2017년 122건, 지난해 204건으로 증가했다. 유전자원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 등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안 박사는 “일부 언론이 (ABS에 대해) 필요 이상의 공포를 조장하는 내용을 다루는 것 같다”고 로열티 문제를 지적했다. 나고야의정서에 유전자원을 개발해 얻은 이익 중 일부를 원산국과 나누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의무규정이 아닌 예시규정이라는 게 안 박사의 설명이다. 그는 “(ABS를) 서로 윈윈(win-win)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겠다”며 유전자원을 활용한 지식재산권 공유와 현지 주민 교육·훈련 프

로그램, 공적개발원조(ODA) 등 다양한 이익 공유 모델을 제시했다.

안 박사의 말대로 제약업계 등 다른 나라 기업들은 새로운 ABS 모델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스웨덴 제약기업 아스트라제네카는 호주 그리피스 대학과 천연물질 발굴을 위한 파트너십 관계를 맺는 대가로 현지 과학자 고용과 연구 기기·설비 제공 등을 약속했다. 덴마크 생명공학 기업 노보자임도 케냐의 유전자원을 수집·분석하기로 케냐 야생보호국과 계약을 맺으면서 로열티 지급은 물론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와 기술 이전, 학생 훈련 등에 합의했다.

안 박사는 “길게 10년 이상 봐야 사례도 많이 쌓이고 다양한 ABS 모델이 개발될 것이라 본다”며 “이익 공유라는 나고야의정서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여러 ABS 옵션을 개발·진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유공 입장에서 이익 공유를 해줘야 한다는 걱정만 하는데 잘만하면 우리도 유전자원 개발에 따른 이익을 공유받을 수 있다”며 국내 유전자원 발굴도 당부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KAI 최종호 사장직무대행 체제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김조원 사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KAI는 지난 26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 사임 안건을 가결했다. 신임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종호 개발본부장(전무)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최 전무는 1982년 서울대학교 항공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공과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4년 삼성항공을 거쳐 KAI에 근무하면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소형무장·민수헬기 LAH·LCH 등 개발에 주력해왔다.

권태성 기자 tskwon@

아이스크림에듀 대표 조용상 씨

초등생용 스마트러닝 전문업체 아이스크림에듀는 신임 대표이사로 조용상 씨를 선임했다고 28일 밝혔다.



조 신임 대표이사는 에듀테크 전문가로 성공관대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제표준화기구 에듀테크 분야 워킹그룹 의장을 맡고 있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연구위원과 스마트 미디어 분야 국가표준 코디네이터 등을 역임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삼성전자 ‘드림클래스 여름캠프’ 5개 도시서 개최

읍·면·도서지역 중학생 1543명 참가...내달 14일까지

삼성전자는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전국 5개 대학에서 읍·면·도서 지역 691개 중학교의 학생 1543명이 참가하는 ‘2019 삼성드림클래스 여름캠프’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2012년부터 시작한 ‘삼성드림클래스’는 교육 여건이 부족한 지역의 중학생에게 대학생이 멘토가 되어 학습을 지원하는 삼성전자의 교육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삼성전자는 교육부와 함께 여름캠프에 참가할 중학생을 모집했다. 또한 국가와 사

회를 위해 헌신하는 군부사관, 소방관, 해양경찰, 국가유공자 자녀 487명도 포함됐다. 대학생 멘토들은 8.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전국 49개 대학에서 534명이 선발됐다. 이 중 중학생 시절에 ‘삼성드림클래스’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대학생 멘토가 62명으로, 나눔의 선순환을 이루고 있다.

캠프에 참가한 중학생들은 대학 캠퍼스에서 대학생 멘토들과 합숙하며 총 150시간 동안 영어, 수학과 소프트웨어를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특히 삼성전자는 이번 캠프



26일 경기도 용인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열린 ‘2019 삼성드림클래스 여름캠프’ 환영식에서 참가 중학생, 대학생 멘토, 삼성전자 임직원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부터 30시간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도입해 창의적 미래 인재 육성에도 집중한다.

강원경 씨(20·서울대 2학년)는 “중학생 때 삼성드림클래스 방학캠프에 다녀온 이

후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찾아가며 했다”며 “후배들에게도 캠프에서 배운 자기주도 학습법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LG, 저신장애아동 126명 성장호르몬제 지원

‘유트로핀’ 25년간 1571명에

LG가 25년째 성장호르몬제 ‘유트로핀’ 지원사업으로 저신장애아동의 키와 꿈을 키우고 있다.

26일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진행된 ‘저신장애아동 성장호르몬제 기증식’에서 이문호(왼쪽) LG복지재단 대표이사(가) 어린이에게 기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 LG그룹

LG복지재단은 지난 26일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저신장애아동 성장호르몬제 기증식’을 열고 126명의 저신장애아동에게 10억 원 상당의 ‘유트로핀’을 지원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선발된 126명의 아동 중 키가 더 자랄 가능성이 큰 34명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지원을 받게 된다. 저신장애아동은 성장호르몬제 치료가 필요하지만, 연간 1000만 원 정도의 비용 부담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LG는 1995년부터 25년간 매년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전문의들의 추천을 받아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를 어려움을 겪는 저신장애아동을 돕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571명을 지원해왔다.

‘유트로핀’은 LG화학이 1992년 국내 최초로 개발한 성장촉진 호르몬제로, 매년 ‘유트로핀’ 매출액의 1% 이상을 기부해 저신장애아동 성장호르몬제 지원에 사용하는 등 LG복지재단과 LG화학의 지속가능한 사회공헌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게시판

최병오 회장, 전남대 발전기금 1억 기탁



전남대학교는 패션그룹 형지 최병오(사진 왼쪽 네 번째) 회장이 최근 대학발전기금 1억 원을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 최 회장은 “호남 미래 인재 양성에 앞장서는 전남대에 발전기금을 기부하게 돼 기쁘다”며 “전남대와 패션 분야 상호 협력이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감사위원장에 이윤재 부이사관

서울시는 감사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이윤재(51) 현 감사원 부이사관을 29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윤재 신임 위원장은 22년간 감



사원에 재직하며 전략감사단 제1과장, 특별조사국 조사1과장, 교육감사단 제1과장을 역임했다.

부음

▲김용호(전 철도청 운수국장·전 맨손요법학회 고문) 씨 별세, 김동수(전 농협중앙회 구미교육원장)·동식(전 한국관광공사 부장)·동대(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사장)·동명(㈜우리코스메틱 대표이사)·영재(㈜우리코스메틱 본부장) 씨 부친상, 박동호(전 ㈜롯데제과 이사) 씨 장인상 = 28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30일 오전 11시, 02-3410-6930

▲김영도 씨 별세, 김형호(㈜삼보에스엔티 대표이사)·민봉(봉 동물병원 대표) 씨 부친상 = 27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30일 오전 11시20분, 02-3010-2231

인사

◆교육부 △차관보 서유미 △공주대 사무국장 유정기 △방과후돌봄정책과장 오응석 △진로교육정책과장 김성근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기획팀장 연장흠

◆행정안전부 △실장급 파견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기획단장 최훈

◆문화체육관광부 △부이사관 승진 △문화인문정신정책과장 박종달 △국제문화과과장 정영석 △문화예술교육과장 이경직

◆환경부 △국장급 승진 △전북지방환경청장 정선화 △국장급 전보 △물환경정책과장 박미자 △4대강 조사·평가단 조사·평가지원관 박용규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이승환 △자원재활용과장 김효정 △환경연구개발과장 오흔진 △통합허가제도과장 최민지 △신기후체제대응팀장 배연진

◆한국은행 △부서장 이동 △정책보좌관 김제현 △법규제도실장 김기환 △차세대시스템개발담당장 김지수 △전산정보국장 임철재 △금융감사실장 변성식 △통화정책국장 이상형 △금융시장국장 김현기 △국고증권실장 이상엽 △발권국장 이정옥 △뉴욕사무소장 김옥중 △국제협력국장 오금화 △부산본부장 김준한 △대구경북본부장 정상돈 △충북본부장 하천수 △제주본부장 김종욱 △경기본부장 정유성 △강릉본부장 안병권 △포항본부장 서정의 △강남본부장 노영래 △1급 승진 △인사경영국 송두석 △조사국 박세령 △금융감사실장 변성식 △국제협력국장 오금화 △외자운용원 전귀환 △경제연구원 김석원 △인사경영국 소속 정호석 △1급 이동 △경제연구원 류상철 △이재량 인사경영국 소속 △2급 승진 △공보관 전광명 △기획협력국 김승표 정삼선 △차세대시스템개발단 박성종 △조사국 이지호 △금융안정

국 서영기 △통화정책과장 장정수 △금융결제국 남택정 △외자운용원 권민수 정영진 △경제연구원 배병호 △인사경영국 소속 박영환(전 국민소득총괄팀) 박완근 정원식 △2급 이동 △커뮤니케이션국 이상윤 △전산정보국 김영일 손진국 △조사국 공철 △금융안정국 박정규 신현열 △통화정책국 김준태 △발권국 유병훈 △국제협력국 이동현 △외자운용원 김기훈 △경제연구원 이승환 △부산본부 김원태 △대전충남본부 박창규 정하법 △제주본부 이은간 △인사경영국 소속 박형호 유창조 이강원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승진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 신진창 △과장급 전보 △금융정책과장 손주형

◆농촌진흥청 △과장급 승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장 조은희 △도원국장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구범서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장 박동구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장급 승진 △기획조정관 김성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본부장 △분석과학연구본부장(소재분석연구부장 겸직) 한옥희 △연구장비개발·운영본부장 장기수 △지역분석과학본부장 문원진 △정책본부장 박찬수 △경영본부장 김건희 △부장 및 센터장 △환경분석연구본부장 최정현 △바이오융합연구본부장 김진영 △연구장비개발본부장 박승영 △연구장비운영본부장 홍태은 △서울센터장 서종복 △부산센터장 배종성 △대구센터장 이상걸 △광주센터장 이영주 △전주센터장(직무대리) 박종배 △춘천센터장 김길남 △서울서부센터장 이하진 △정책성과부장 이현철 △대외협력부장 안치수 △기획부장 양병국 △행정부장 이승희

◆경향신문 △편집국장 최병준 △논설위원 이기수 △전략기획실장 장정현 △스포츠경영편집국장 겸 스포츠에디터 김경호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가천대 교수 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얼마 전 국내 한 대학은 미국 MIT의 AI 대학원 설립에 관여했던 전문가를 영입하려 했으나 3년 계약, 연봉 500만 달러(약 50억 원)를 제시해 손을 들었다고 한다. 현재 미국에서 AI 관련 박사학위를 막 판 인재를 신규 교수로 유치하려면 연봉 1억5000만 원 정도를 주어야 하는데 국내 실정은 조교수급이 7000만~8000만 원선이라 이 또한 만만치 않다.

대덕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근처 호텔에 30대 말에서 40대 초의 삼성전자 직원 40명이 묵고 있다. 회사에서 가장 바쁜 연배의 이들이 경기도 기흥에서 여기까지 내려와 합숙하는 이유는 카이스트에서 인공지능(AI) 관련 강의를 듣기 위해서다. 이들은 카이스트 AI대학원에서 8주 동안 맞춤형 단기 집중 코스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기업들의 AI 교육 붐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한 기수당 10억 원이 넘는 AI 교육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현대자동차그룹 등 대기업들이 AI 인재를 수시로 영입하겠다고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한발 더 나아가 산학협력으로 자체 인재 양성을 시도하고 있어 주목된다. 경기 성남시 판교에 본원이 있는 카이스트는 최근 성남시와 협약을 맺고 성남 산업단지 내에 중견·중소기업 직원들을 위한 AI 교육 코스를 개설했다. 교육비는 성남시와 기업이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성남시는 카이스트에 AI 교육시설까지 대여해 주고 있다. 산학협력의 새로운 모습이다.

카이스트는 최근 붐을 타고 있는 AI 교육·연구를 맡을 유능한 인재를 다른 대학에서 스카웃하고 있다. 이 같은 스카웃 바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AI 대학원으로 지정된 고려대, 성균관대를 필두로 추후 AI 대학원에 도전하려는 대학, AI 학과를 개설한 대학들까지 가세하면서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일부 대학에선 스카웃 경쟁이 자칫 소송으로 번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 지난 19일 동원산업과 AI 솔루션 센터를 설립한 한양대의 김우승 총장은 “이제 AI는 공기와 같은 것”이라며 “최근 수년 새 일취월장하고 있는 이른바 ABC(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발전에 따라 교육도 재빨리 디지털화, 글로벌화, 지능화를 이루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얼마 전 국내 한 대학은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의 AI 대학원 설립에 관여했던 전문가를 영입하려 했으나 3년 계약, 연봉 500만 달러(약 50억 원)를 제시해 손을 들었다고 한다. 현재 미국에서 AI 관련

박사학위를 막 판 인재를 신규 교수로 유치하려면 연봉 1억5000만 원 정도를 주어야 하는데 국내 실정은 조교수급이 7000만~8000만 원선이라 이 또한 만만치 않다.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등 4차 산업혁명의 ‘키 플레이어’들은 선도적인 대학 교육과 비교적 풍부한 교수 요원을 갖추고 있다. 우리만큼 AI 인력난을 겪고 있지 않지만 ‘키 플레이어’의 기업들도 세계 톱 수준의 글로벌 인재를 찾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가장 대담한 행보를 하고 있는 곳은 역시 중국이다. 지난 25일 중국 통신기기 최대기업인 화웨이는 AI와 로봇 등 고도 기술을 가진 젊은 인재의 채용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박사학위를 막 신규 졸업자에 대해 중국 IT기업 부사장급에 필적하는 최대 약 200만 위안(약 3억1000만 원)의 연봉을 제시했다. 이 회사는 ‘세계로부터 천재소년을!’이란 기치를 내걸고 연내 최대 30명, 내년에는 300명 정도를 채용할 계획이다. 미국의 제재로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우수한 인재를 확보해 반도체 등의 기술 개발을

서두르려는 전략이 담겨 있다. 화웨이는 약 19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 중 연구개발 관련 인원은 40%가 넘는 약 8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지난 26일 소프트뱅크그룹이 ‘소프트비전 펀드’의 제2호 펀드를 발표했다. 운용 규모는 1080억 달러(약 120조 원)에 달한다. 소프트뱅크그룹이 380억 달러(40조 원)를 출자하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 참여한다. 이 펀드는 교통, 금융·전자상거래, 부동산·증권, 의료·헬스케어 등 세계의 AI 관련기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의 전략은 AI 인재가 몰려 있는 기업에 투자하거나 아예 기업을 매수하는 것이다. 세계의 주요 IT기업과 금융기관이 출자하고 있는 이 펀드는 AI 인재의 블랙홀이 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와 대학 그리고 기업은 이러한 세계적 트렌드와 경쟁국 동향을 감안해 미래의 인력 수요, 신축적인 교육과정 등을 담은 치밀한 AI 인재양성 종합 계획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공병호의 독서산책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최대한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데는 철학이 필요하다. 이때 철학은 현학적인 철학이 아니라 일상의 삶과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는 철학이다. 덴마크 철학자 스벤 브링크만의 ‘철학이 필요한 순간’은 생활인에게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철학서다.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앞서 살았던 철학자들이 삶에 대해 가졌던 생각들을 10가지로 묶어 ‘삶에 의미를 되찾는 10가지 생각’으로 정리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온통 도구주의적 사고가 지배하는 사회를 살아간다. 이익이 되거나 남는 것의 유무가 좋은 활동과 그렇지 않은 활동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실용성이 떨어지는 활동에 시간을 쏟는 사람은 덜떨어진 사람으로 간주되기 일쑤다. 과연 올바른 일인가. 물론 실용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모든 일을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도구나 수단으로 생각해 버리는 도구주의적 사고방식은 그 폐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삶의 귀한 순간들을 그냥 흘려 보내 버리도록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허무주의의 멧에 빠져들도록 만든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구화 현상은 사실상 허무주의적이다. 아무것도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따금 실용적인 학문으로 평생을 달려온 사람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전부를 걸었던 분들에게 허무주의적 기운을 느낄 때가 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도구화가 가져온 폐해일 것이다. 저자가 이 책에서 외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도구화를 극복하는 일과 허무주의에 저항하는 일이 같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도구화를 극복하는 과정은 일상이나 현실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으니까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인생철학이 되어 줄 10가지 원칙은 무엇일까. 현대인들의 고민이 현대인만의 것이 아니었음에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이 책에서 말하는 10가지 생각의 토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리가 그 자체를 위해 하는 것이 선이다(아리스토텔레스). 존엄성은 가격으로 따질 수도 없고 대체될 수 없다(칸트). 인간은 약속하는 동물이다(니체). 자기만 관계 그 자체와 관계하는 관계다(키에르케고르). 진리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인간은 진실할 수 있다(아렌트).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일은 그의 삶 무언가를 손에 쥐는 일이다(로이스트루프). 사랑은 우리 자신 외에 다른 무언가가 실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가능한 무척 어려운 깨달음이다(머독). 용서는 오직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일이다(테리다). 자유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으로 이루어진다(카뮈). 죽는 법을 배운 사람은 노예가 되는 법을 잊는다(몽테뉴).

이 책은 10개 장에서 철학자들의 생각과 철학을 소개한 다음 이들이 의미 있는 삶에 대해 현대인들에게 무엇을 말해줄 수 있는가를 간략하게 정리해 제시한다. 역사

스벤 브링크만 ‘철학이 필요한 순간’

도구적 삶은 허무주의로 흐른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빈센트 반 고흐 명인 “위대한 일들은 작은 일들로 이루어진다.”

네덜란드 출신의 프랑수아화가. 네덜란드 시절에는 어두운 색채로 비참한 주제의 작품을 그렸으나 훗날 파리에서 인상파, 신인상파의 영향을 받는다. 대표적 작품으로 ‘해바라기’, ‘별이 빛나는 밤’, ‘아를르의 침실’ 등이 있다. 그는 오늘 세상을 떠났다. 1853~1890.

☆ 고사성어 / 제계의혈(堤濟鐵穴) ‘개미굴이 독을 무너뜨린다’라는 뜻. 출전은 한비자(韓非子) 유로(喻老)편. 명의 편작(扁鵲)이 채(蔡)나라 환공(桓公)에게 살갓에 병이 있으니 치료하지 않으면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환공은 듣지 않았다. 열흘 뒤에 찾아와 근육에 병이 들었다고 했고, 다시 열흘 뒤에 위장에 병이 들었다고 했으나 모두 듣지 않았다. 또 열흘 후에는 바라만 보다 돌아갔다. 환공이 사람을 시켜 그 까닭을 묻자 ‘살갓에 든 병은 약을 바르면 고칠 수 있고, 근육에 든 병은 침석(鍼石)으로 고칠 수 있으나, 골수까지 스며든 병은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했다. 환공은 5일 뒤 갑자기 병이 도져 죽고 말았다.

☆ 시사상식 / 린치핀(linchpin) 마차나 수레, 자동차의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축에 꽂는 핀을 가리키는 말. 비유적으로 핵심이나 구심점을 뜻하기도 하며 외교적으로는 꼭 필요한 동반자라는 함의(含意)를 갖고 있다. 미국은 이 용어를 주로 미·일 관계에만 사용하다가 2010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부터 한미관계에도 사용하기 시작했다.

☆ 유머 / 비계 많은 고기 고급 식당에서 주문한 비싼 고기에 비계가 많다고 종업원에게 따지자 그의 해명. “늬움이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운동 많이 한 늬움으로 바귀 드릴까요?” 손님의 대답. “됐어요. 먹고 내가 운동을 하지 뭐!”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정용욱 금융부/dragon@

TPO 못 맞추는 금융위의 규제 감각

패션의 기본 원칙은 티피오(TPO)다. 시간(Time)과 장소(Place), 상황(Occasion)에 맞춰 옷을 입어야 한다는 뜻이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더라도 ‘때’를 맞추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 장례식장에 명품 반바지를 입고 간다거나, 해변에 벨벳 정장을 입고 가면 옷을 잘 입는다고 할 수 없다. 패션 감각의 기본인 셈이다.

규제도 TPO가 중요하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업자의 신결제 단말기 보급’ 관련 법령 해석문을 내놨다. 신용카드사가 개별 또는 공동으로 NFC 모듈이 탑재된 단말기나 OR 코드 리더기를 무상 보급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금융위는 ‘괜찮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새 결제방식의 확산 등 공익

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부당한 보상금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로써 7개 카드사가 공동으로 만든 한국형 근거리무선통신 서비스 ‘저스터치’ 보급의 큰 걸림돌이었던 단말기 보급 문제가 해결됐다.

문제는 때를 놓쳐도 한참 놓쳤다는 점이

다. 저스터치는 지난해 8월 개발된 이후 카드사가 보급에 나섰지만, 당시 여전법 리베이트 금지 조항에 발목이 잡혀 NFC 단말기 보급에 차질을 빚었다. 결국, 저스터치는 전국 3만여 곳에 보급되는 데 그쳤다. 지난해 말부터는 ‘백지화’ 절차를 밟고 있다. 풀어야 할 때 풀지 못한 규제의 결과

는 참담하다.

카드업계는 금융위의 뒤늦은 결정에 냉소적으로 반응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저스터치 무산 이후 카드사들은 간편결제 시장에서 ‘각자도생’하고 있다”며 “어떤 곳은 OR 코드로, 또 다른 곳은 자체 앱으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어서 저스터치로 되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현재 금융당국에서 논의 중인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 합리화 방안으로 ‘적자 상품 이사회 보고’, ‘일회성 마케팅비용 포함’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 수익성 제고를 위한 규제라고 보기에는 TPO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맞는 부분이 없다. 금융위의 ‘규제 감각’ 회복이 시급하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논설실장 추창근 편집국장 김덕현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조국의 '폐북 정치'와 비서의 처신

"비서는 입이 없다." 대통령 주변에서 불문율처럼 내려온 말이다.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처신을 경계한 말이다. 참모의 입이 요란하면 필연적으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칠 수 있다.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고 레임덕을 앞당기기도 한다. 박지원 민주당평화당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이 말을 달고 살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노영민 비서실장 취임 일성도 "비서는 입이 없다"였다. 노 실장은 직원들에게 "사무실마다 벽에 걸린 '춘풍추상(春風秋霜)' 문구를 다시한 번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 같이 부드럽게 하고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해야 한다'는 의미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경청하고 조용히 성과를 내는 '비서의 자세'를 주문한 것이다. SNS 활동 자제도 당부했다고 한다.

26일 청와대를 떠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입은 달랐다. 소통 차원을 넘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가 10여 일 동안 일본의 경제보복을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만 43개였다.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보다 많은 횟수는 물론 용어와 내용, 형식 모두가 파격 그 자체였다.

그는 13일 동학농민운동 때의 '죽창'을 거론하며 첫 포문을 열었다. 18일엔 "중요한 것은 애국이나 이적이나"고 했고, 20일엔 "(일본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 비난, 매도하는 사람은 마땅히 친일파로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1일엔 "문재인 정부는 국익수호를 위해 '서희' 역할과 '이순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서희는 외교담판으로 거란군을 물리친 고려의 문과

데스크칼럼

이재창

국장대우 정치경제부장



이고 이순신은 무능한 정부서 고초를 겪고도 온몸을 던져 나라를 구한 장수다. 문재인 정부를 '서희+이순신'에 비유한 것을 놓고 논란이 빚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개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하지 말라' 얘기할 수는 없다"고 옹호했다. 법조인으로 법리문제를 개인의 소통공간에서 밝히는 것은 문제 될 게 없다는 논지다. 조 전 수석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리는 고위직 공무원이다.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이다. 이미 차기 법무장관도 예약한 상태다. 그의 말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그의 말이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이 아니라는 해명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공인엔 사견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그의 '폐북 정치'는 여러모로 비정상적이다. 그는 청와대의 입장을 대변하는 홍보수석도, 대변인도 아니었다. 인사검증과 공직감찰, 친인척 관리가 주요 업무인 민정수석이였다. 그가 검찰개혁과 관련한 글들을 올린 것은 업무 연관성이 있으니 그렇다 치자. 적어도 대일 외교문제는 그의 업무가 아니다. 청와대에는 엄연히 경제와 외교 안보를 책임지는 부서가 있다. 그는 법학자로 법리에 밝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직접 나서기보다는 해당 부서에 법리를 알려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 그게 일반적인 조직의 정상 프로세스다.

그가 사용한 용어와 접근법도 공직자로 선도를 넘었다. 즉장, 친일파, 이적, 쫓지 말자 등의 표현은 공직자의 절제된 언어가 아니다. 한결같이 국민의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선동적인 용어다. 군소야당 대변인으로 착각할 정도다. 논리도 시종 '애국 대 친일'로 편을 가르는 이분법이다.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이적 또는 친일파라는 '이상한 프레임'이다. 과격한 정치인이나 선동가가 쓰는 수법이다. 조국 서울대 교수라면 문제 될 게 없지만 적어도 차기 법무장관 후보자가 사용할 화법은 아니다.

그가 굳이 나설 상황도 아니었다. 이미 국민의 반일 감정이 하늘을 찌르는 터였다. 전국적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전개됐다. 게다가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분명한 메시지를 낸 상태였다. 그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이유가 분명치 않다. 일각서 그가 국민의 반일 감정에 편승해 '자기 정치'를 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정을 책임지는 최후 보루다. 링 위의 복서가 아니다. 코디네이터로 싸움을 말리고 위기를 관리하는 컨트롤러이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설 수 있지만 꼭 필요할 때만이다. 어차피 청와대는 위기를 풀어야 하는 주체다. 그만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더욱이 외교는 국민 감정으로 풀 수 없는 문제다.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강한 목소리를 내고 정부는 이를 지렛대 삼아 외교 해법을 찾는 게 맞다. 그의 '폐북 정치'를 보면서 공직자의 처신과 애국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leejc@

사설

반도체 감산, 국가 경제 비상관리 체제를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의 감산(減産)을 결정했다. 공급 과잉으로 가격 하락이 지속하면서 감산을 통해 불황을 견디기 위한 것이다. SK하이닉스는 주력 제품인 D램 생산량을 4분기부터 줄이기로 했다. 올해 낸드플래시 감산 규모도 당초 계획했던 10%에서 15%로 확대한다. 투자규모도 축소된다. SK하이닉스는 청주 M15 공장의 클린룸 설비와,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이천 M16 공장 장비반입 시기도 재검토기로 했다.

SK하이닉스는 D램 글로벌 시장 점유율 29.5%(2018년)를 차지하는 2위 업체다. 삼성전자가 43.9%로 1위이고, 미국 마이크론이 23% 정도로 3위이다. 이들 세 업체가 시장을 과점하는데, 마이크론은 이에 앞서 6월 D램과 낸드플래시 생산량을 10%씩 줄이기로 했다.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6376억 원)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9%나 쪼그라들었다. 이 회사의 감산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반도체 시장이 얼어붙었던 2008년 이후 11년 만이다.

우선 불황에 따른 재고 부담을 덜고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문제는 감산이 장기화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앞으로 반도체 시장이 언제 살아날지 짐작하기 어렵다. 미국의 중국 화웨이 제재 등으로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체들의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데다,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규제가 최대 불확실성이다. 글로벌

수요가 회복된다 해도 한국 반도체 산업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이은 세계 1위 삼성전자의 감산 여부 또한 주목된다. 삼성은 아직 "인위적인 생산 감축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가 가장 큰 변수다. 단기적으로는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핵심소재의 안정적인 조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생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결국 삼성까지 감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이 경우 한국 경제가 받을 충격은 치명적이다. 반도체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는 설명이 필요치 않다. 작년 전체 수출의 20.9%, 국내총생산(GDP)의 7.8%를 차지했다. 반도체가 무너지면 수출·투자·고용의 감소와 성장을 하락 등 경제의 총체적 후퇴로 이어진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을 전망 2.2%(한국은행) 달성도 어렵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은 '반도체 쇼크'가 한국 경제 성장률을 1%대로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비상한 위기다. 기업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환경 악화로 이미 비상경영에 들어갔다. 정부 또한 특단의 대응책이 요구된다. 산업 구조조정, 신성장 동력 발굴, 소재·부품 국산화 등 늘 하던 식의 중장기 전략만 내세울 때가 아니다. 국가 경제의 비상한 위기관리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

하유미의 고공비행

산업부 차장



日 소재 아닌 쓰레기 수입하는 대한민국

자원'이라고 설명하는 게 법적으로는 맞다. 실제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폐기물은 석탄재,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등으로 이들은 시멘트, 섬유 등으로 재가공된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는 2가지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도 모두 처리를 못 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폐기물을 엄청나게 들여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사한 '우리나라 폐기물 순환이용률 현황'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생활폐기물 순환이용률은 35.8%, 사업장폐기물 69.1%, 건설폐기물 79.5%로 전체적인 평균은 70%로 집계됐다. 순환이용률은 폐기물 발생량 중 실제로 재활용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그나마 철강 부산물은 낫다. 우리나라 철강 부산물의 대부분은 철스크랩과 철강슬래그가 차지하는데 100% 재활용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 약 10년간 폐기물 발생량은 20% 감축, 순환이용률은

82%까지 올리는 게 목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전체 폐기물 가운데 3분의1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가 굳이 일본 쓰레기를 적극적으로 수입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두 번째 문제는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꾸준히 제기되는 방사능 물질에 대한 우려감이다. 폐기물 생산지, 유통지가 명확하지 않아 방사능 오염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 실제 원전 사태 직후인 2012년 일본에서 수입한 석탄재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슘이 검출됐고, 폐배터리와 폐플라스틱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정부는 일본에서 들여오는 폐기물의 양을 다시 한 번 점검해봐야 함은 물론, 방사능 검사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폐기물이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로화'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다.

jscs508@



비설거리

언제나 장마가 끝나려나? 지난주에는 폭우가 내려 피해를 입은 곳이 있다. 습기가 많고 눅눅한 날씨가 계속되니 짜증이 날 때도 있다. 잠깐 태양이 나오는 틈을 타서 빨래도 말리고 축축한 물건도 밖에 내놓아 바람을 쫓겨야 하면 불과 한두 시간도 안 지나서 먹구름이 다시 밀려와 또 비가 내리려 한다. 이럴 때면 서둘러 널었던 빨래도 걷고 밖에 내놓았던 물건들도 다 거두어들여야 한다. 이처럼 "비가 오려고 할 때 비에 맞지 않도록 물건을 치우거나 덮어서 단속하는 일"을 '비설거리'라고 한다.

비설거지는 '비'와 '설거리'의 합성어이다. 설거지는 '먹고 난 뒤에 그릇을 씻어 정리하는 일'을 말하는데 국어사전은 순우리말로 분류해 놓았다. 그런데 필자는 설거리 또한 '설'과 '겉이'의 합성어라고 생각한다. '겉이'는 '거두다'가 어간인 말로서 '거두어들이기'의 줄임말이다. 가을에 농작물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가을겉이'라 하고, 여기저기서 받을 돈이나 물건

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받겉이'라고 하는데 이때의 '겉이'는 다 '거두어들이기'의 줄임말이다. 그러므로 '설겉이'는 '설(設)을 거두어들인다'는 뜻이다. '設'은 흔히 '배풀 설'이라고 혼동하는데 학교나 회사, 법인 등을 세운다는 의미의 '설립(設立)'이 '設'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용어이다. 그런데 이 '設'은 잔치를 베풀거나 제사상을 차린다는 의미로도 쓴다. '설연(設宴·宴잔치 연)'이 잔치를 베풀다는 뜻이고 '진설(陳設·陳:배출 진)'이 제사상을 차린다는 뜻이다. 베풀 잔치자리나 차린 제사상은 잔치가 끝나고 제사를 마치면 남은 음식을 정리하고 그릇들을 거두어들여 잘 씻어줘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설(設)했던 것을 거두어들이는 '설겉이'인데 나중에 발음대로 표기하다 보니 '설거리'로 변하여 순우리말인 양 정착하게 된 것이다. 좀 귀찮더라도 설거리나 비설거지는 때맞춰 스스로 잘 해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이투데이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찾아보세요 전국 곳곳에 늘어나는 수소충전소

이번 휴가철에는 수소충전소를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곳곳에 생기고 있거든요
곧 여의도 국회에도 세워진다고 하니
앞으로는 고속도로에서도 도심에서도
언제든 마음 편히 수소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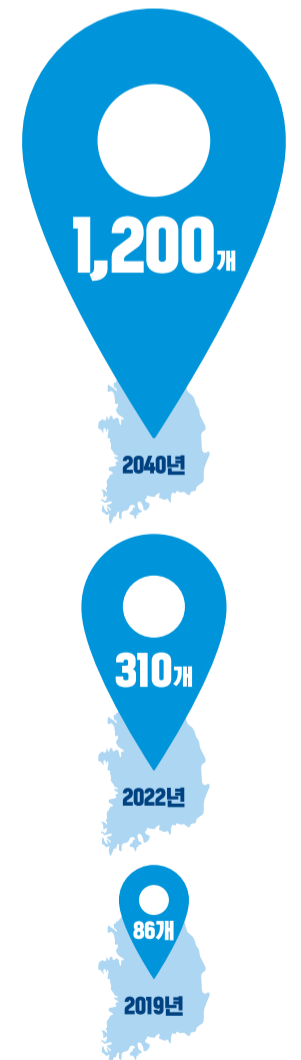
자금. 모두의. 수소전기차

대한민국 곳곳으로부터 도착한
수소전기차와 수소에너지 소식을
현대자동차그룹 SNS에서 확인하세요



QR코드를 스캔하고
더 많은 수소전기차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대한민국 수소충전소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까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충전소 현황
[2019년 7월 기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기준
[2019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7월 현재, 전국 20개 수소충전소 구축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

